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15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월 21일(음력 12월 26일) 수요일(주간)

‘해골물’먹고 깨달아 볼까?

문광부 등 ‘원효 트레일’ 발표
문화·수행 체험 697km 대장정

원효대교는 한강에 놓인 27개 다리 가운데 아름다운 조형미로 손꼽힌다. 원효로와 이어졌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원효로는 일제 강점기 모토마치(元町)라 불리던 곳을 1946년 퇴계로, 을지로, 세종로 등과 함께 개명하면서 원효 대사(617~686)의 이름을 빌어 원효로라 이름 했다. 원효로와 원효대교 모두 당시의 행정편의에 의해 채택됐을 뿐 신라 고승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던 원효 대사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당나라 유학길에 해골 바가지의 물을 마시고는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이 없느니 오랑캐에게 배움을 구하지 않겠다(心外無法 胡用無求)”던 원효 대사가 살아있다면 심히 거북할 일이었다.

이런 가운데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 유엔 스텝재단(UN-WTO ST-EP, 이사장 도영심)이 함께 원효 트레일(trail, 길)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단순히 지목(地目)에 붙는 것이 아닌 원효 대사의 행적을 따라 붙여지는 이름이라니 이제야 진짜 원효의 길을 찾은 듯하다.

원효 트레일은 의상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원효 대사가 중간에 발길을 돌려 돌아온 여정을 관광 상품화한 명칭이다. 경주를 출발해 경산~문경~여주~수원~평택~괴산~구미를 거쳐 경주로 돌아오는 697km 코스다. 20개 시·군 470여 사찰을 지나는 대장정 동안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를 하며 참선, 사찰음식 등 불교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수행 트레일 외에도 한국자생약초와 한방원리를 체험하는 웰빙 트레일, 사찰음식과 차 등을 활용한 웰빙푸드기행, 나무심기와 이산화탄소 줄이기 등 환경운동을 포함한 기후변화방지 환경 대장정 등 트레일 패키지가 개발될 예정이다.

영국의 제프리 초서가 14세기 런던에서 캔터베리 성당으로 순례했던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집필한 <켄터베리 이야기>에 버금가는 기행문도 만들고, 이를 다큐멘터리나 영화, 드라마 등으로 가공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단순한 관광상품에 그치지 않고 원효 트레일을 통해 한국 정신문화 원형을 회복하겠다는 비전이다.

이웃 종교에는 이미 10세기 전 원효 트레일과 같은 코스가 있었다.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야곱의 순례길은 ‘산티아고 가는 길(Camino de Santiago, 산티아고는 야곱의 스페인어로 스페인 서북부 소도시)이라 불린다. 야곱의 길은 그가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프랑스 남부 생장피에르포르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걸었던 길로 800km에 달한다. 이 길은 10세기 이후 수많은 사제들이 걸어왔고 지금도 해마다 10만여 명이 걷고 있다.

현대에서 ‘길’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해 한국불교를 알린 것 중 하나가 최인호의 <길 없는 길>이다. 인간 부처라 불렸던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를 소설화한 책은 10년간 100만부 이상 팔리며 대중들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했다. <길 없는 길>을 읽고 불교에 귀의한 이도 많다. <길 없는 길>이 글로 한국불교를 알려왔다면 원효 트레일은 여행을 통해 한국불교를 체험하게 하는 ‘색다른 길’이다.

한국 불교의 새벽을 알렸던 원효(元曉)가 130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세계화된 한국 불교문화의 새벽을 열었다. 신년 벽두 발표된 원효 트레일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길을 걸으며 원효의 가르침을 새기는가에 달렸다. 간결함으로 선의 극치를 나타냈던 운문 선사는 길(道, 도)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가라(去).”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이렇게 닦아서 다 먹으라는 거지?”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산사체험은 또 다른 세상을 배우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기회다.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가 1월 15~18일 개최한 ‘참나를 찾아 떠나는 직지사 청소년 동안거 산사체험’에 참가한 학생이 발우 공양을 하고 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는 16명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해 108배와 명상, 발우공양, 사경, 다도, 사찰예절 등 다양한 산사체험을 했다. 박재완 기자

“가자 지구에 상생과 평화를…”

불교계 등 종교단체 이스라엘 규탄 시위 잇따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전 세계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한 개신교 등 국내 각 종교단체들도 이스라엘의 무력 시위를 규탄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위원장 진관, 이하 인권위)는 1월 13일 조계사에서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관 스님과 지도위원 현종 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 등 인권위 소속 스님들을 비롯해 원불교 정상덕 교무, 조영건 명예교수(경남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안영민 운동가 등이 참석했다.

인권위는 “생명과 평화를 중시하는 불교도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이스라엘의 침략적 만행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와 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김성은) 등 종교지성인들도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이사장 손주영) 등 종교단체들과 14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격과 전쟁을 즉각 중지하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에 대해 반대하는 세계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참여를 호소한다”며 “유엔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해 중재자로써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진흥원, ‘한국불교총람’ 2008년 개정판 발간

한국불교 현황을 집대성한 <한국불교총람>이 개정 · 발간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한국불교총람> 2008년 개정판을 발행했다고 1월 1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판은 1993년 초판 발간 이후 1998년 개정판에 이은 2차 개정판으로 3년 간의 작업 끝에 1998년 개정판 이후에 변화한 한국불교를 오롯이 담았다.

책에는 160여 한국불교 종단과 사찰 1만5000여 곳을 비롯해 불교법인 400여 곳 등 불교단체와 기관들을 수록했다. 불교인명에는 2500명 승려와 재가불자를 가나다순으로 나눠 출생연도, 학력, 연락처 등을 기재했다. 불서(佛書)는 도서와 논문으로 나눠 저자, 출판사, 발행일 등을 수록했다. 특히 불교관련 사건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한국불교사 연표도 실었다.

진흥원 출판부 관계자는 “<한국불교총람>에 수록된 내용을 웹으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2) 3272-7181

조동섭 기자


“부처님 말씀 실행하라”
함께가요 설법전 ▶23 진제 스님


“마음 잘쓰면 성불해”
선지식을 찾아서 ▶14 일오 스님

▶9 조폭 저승사자에서 청소년 지킴이로 고행섭 경감
▶19 찬불가 대중화위해 대중가요로 떴다 엘리스블루

법구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됐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법구경〉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청서리 맑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숲 항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 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죽비와 목탁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불교상품, 명품으로 거듭나길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욕조마개 '연지'가 대상을 수상했다. 마개부분에 입욕제를 넣고 욕조에 물을 채우면 물위에 뜬 연꽃 형상이 사찰 연못의 수련을 연상시킨다. 시각적 재미와 동시에 입욕제에 의한 수치요법(水治療法)은 심신의 건강을 도모한다. 세계적으로 마음 치유에 관한 문화콘텐츠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불교사상과 적절히 접목된 아이디어 상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캐릭터 상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비 대상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유통문제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시장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제작된 제품은 사랑받기 어렵다. 소비자의 필요에 부흥하는 제품이 결론적으로 뛰어난 아이디어 상품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위해서는 시대를 풍미하는 유행을 간파해야 한다. 소구대상의 일상을 파악해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제공받는 기능적 측면과 정신적인 가치 또한 부여돼야 한다. 제품의 가격 역시 구매자의 환경에 부합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치밀한 기획력으로 제품의 실용적 가치가 지속 관리될 때 명품 대열에 오르게 된다.

우리 주변의 불교문화명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상 · 광학기기의 선두 브랜드 '캐논(Canon)'이 대표 사례다. 불교의 '관세음보살'을 일컫는 일본어 콰논(KWANON)에서 캐논이 탄생됐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겠지만, 창립이념이 불교라는 사실이 불자들에게 자부심을 준다.

프랑스 파리에 1996년 문 연 퓨전레스토랑 '부다바(Buddha bar)' 또한 불교에 심취한 유럽인들의 명소다. 그곳의 VJ 글로드샬은 '부다바' 앨범을 10집까지 발매했으며 '영혼의 불꽃같은 음악'이라는 찬사 속에 라운지 음악의 문화아이콘이 됐다.

불교는 연기법을 바탕으로 한 지혜의 종교다. 지혜의 근간인 중도(中道)를 가능케 하는 힘은 머무름 없는 실상의 본성을 항시 바로 보는 깨어있음에 있다. 불교문화상품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절제된 욕망의 쓰임이 되는 길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불교적 상생이념이 기반 될 때 가능하다. 일상용품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항시 유념할 때 불교문화상품은 단순 소비재가 아닌 행복의 동반자로 승화될 것이다. 앞으로 불교문화상품이 생활 속의 명품으로 자리하길 기대한다.

"이웃위해 희망·행복·자비나눔운동 펼칠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신년기자회견서 자비행 강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자비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올한 해 보시바라밀을 중점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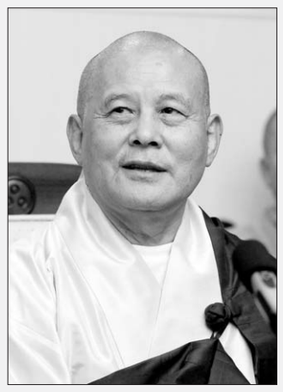
지관 스님은 1월 1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009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 모든 불자와 국민이 힘을 모아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면 능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도의국사 구법기념비를 중국에 세운 것은 매우 뜻 깊었다.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그간 진행해온 일을 잘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새해 5대 종무기조와 사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관 스님은 △전법과 복지의 진흥 △수행종풍의 사회화 △종풍진작과 수행승가 진흥 △한국불교의 세계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어려운 시기인만큼 적극적으로 자비의 나눔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사찰이 중심이 되어 불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비 나눔운동으로 '한 끼 나누기' 운동, '희망의 등 달기' 운동, '이웃을 위한 108배 기도' 등을 제시하고, "실의에 빠진 청년 실업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실직자와 청년 실업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의지나눔(Share will)' 사업 등으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관 스님은 △10 · 27 법난 명예회복과 한국전통사상서



한글본 및 영역본 발간 △국제선센터 및 템플스테이정보센터 연내 완공 △조계사 성역화 사업 진행 △불교규제 국가 법령 개선 △무형문화재 종단 지정 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단과의 1문1답.

-올해는 총무원장 임기 마지막 해다. 취임하시면서 계획했던 10대 공약에 대한 성과를 자평해 달라.

"10가지 공약 중에 그대로 이행이 된 것도 있고 중간에 시작한 것도 있다. 지금 추진중인 것도 있다. 10월 31일까지 임기를 채운다면 9개월 정도 남았다.

가장 뜻깊은 일은, 종조 도의국사의 구법비를 세운 일이다. 종통을 재정립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수행면에서는 결계와 포살을 시행했다. 지금까지 총림에서는 해오고 있는 일이지만 쇠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 의무적으로 제도화 해 작년 여름부터 시행했다. 금년 동안거 해제가 되면 그 명단이 나올 것이다.

포교분야에서는 어린이 포교를 중점 추진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진행 중이다.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템플스테이 정보센터가 조계사 건너편에 2월말 준공된다. 목동의 국제템플스테이센터도 금년 연말께 공사가 마무리된다. 아울러 마곡사 전통문화지원센터는 법장 스님 때 시작한 일이지만 내가 착공을 해서 오는 2~3월 개원한다. 전법회관도 임기 내에 마무리했다. 취임해서 3년 동안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고 느끼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총무원장 퇴임 후 동국대 이사장으로 가신다는 설도 있다.

"나도 그 이야기를 한 달 전쯤에 들었다. 3월쯤이면 간다고 하는데 누가 말도 잘 만들어낸다. 동국대 이사장으로 가려고 하면 종단에서 이사후보로 추천받아야 하고, 동국대 이사회에서 선출해줘야 한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고 물으면 상당히 많다. 말은 자유니까 따질 것은 없지만 아무 근거도 없다."

-이미 종단 곳곳에서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지관 스님 만한 분이 없다'며 재임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도 한다. 총무원장 퇴임 후 활동 계획은?

"사전(가산불교대사림) 15권을 마무리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다. 수행도 해야 하고, 죽기 전에 할 일을 마쳐야 한다. 원장이나 누구나 임기 만료 15일 전에 등록을 하고 10일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다. 선거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것은 시끄럽게 만드는 일이다. 적당한 시기에 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조계종에서 종교편향 문제를 유야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모두 오해다. 8월 27일 범불교도대회에 이어 대구, 광주에서 대회를 가졌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모임을 갖고 대회를 갖고 하면 식상해진다. 일단 매듭을 짓고 종교편향을 방지한다는 의지를 지속해서 가져야 한다는 뜻은 확고하다."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 불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실문제를 회피하지 못하는 만큼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국민 모두가 첫째로 건강해야 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자리이타 원력으로 어려움 극복위해 최선"

26개 종단 및 불교 지도자 신년하례법회 봉행



1월 14일 조계사에서 열린 종단협 신년하례에서 지관 스님은 "자리이타 원력으로 난국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1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국회 정각회 최병국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성 기자

껍데기만 통과된 종교차별금지법, 불교계 우롱?

징계조항 삭제 후 대체입법에 유감 표명

입법통과된 종교차별금지법에 처벌조항이 빠져 불교계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징계조항을 삭제한 대체 법안을 행정안전위원장 명의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13일 입법,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1월 14일 대변인 장적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국가법상 처음으로 공직자 종교차별금지 관련법이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법위반자의 처벌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우며, 개정안 시행과정에서 미반영된 벌칙조항도 더 풍부한 논의를 통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도 13일 논평을 통해 "개정된 법은 종교활동의 중립을 담은 최초 입법으로 의미가 있으나, 처벌조항이 빠져 반쪼가리"라며 "처벌조항 삭제로 생색내기식 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이어 상징적 조문이 종교차별을 막을 보루 역할을 할지 의문이 간다"고 평가하고,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학교에서의 종교차별적 교육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지속적인 종교차별 근절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향후 고위 공무원의 경우, 법적 제재 미비로 종교편향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太古·石屋禪風萬古에 빛나소서
韓中友誼 海東禪宗 中興 太古普愚 顯彰記念碑건립

귀의 삼보 하옵고, 불조의 혜명을 계승하고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밝히며 태고조사의 종지 · 종풍을 선양함으로서 한국불교의 중흥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한중우의 해동선종 중흥 태고보우 현창기념비」를 수법 이후 661년만에 중국 하무산 천호암 사지에 아담한 전각 속에 세우고 12월 15일 오전에는 제막법회를, 오후에는 석옥 · 태고와 차에 대한 한중학술발표회를 개최한 후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제막 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간 태고현창 기념비를 건립하기 위해 발원하며 정성을 모아주신 본 법인 임원제위와, 함께 주관하신 국제선차문화연구회 최석환 대표와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님, 그리고 중국인민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불조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법인 태고연구원 임원 여러분들은 그 지극한 원력과 성금으로 정성껏 세운 태고 현창기념비를 태고법손의 주체 종단인 한국불교 태고종과 태고법손들에게 그 공덕을 모두 회향 하셨습니다. 태고 법손으로서 해야 할 일, 뜻 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크게 감사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태고보우 헌창기념비 건립위원(본 연구원 임원)

大法主 慧草德永(宗正), 證明 理事 雲山大行(總務院長), 南坡定修(僧正院長), 一宇華山(元老會議 議長), 雪峰慧宗(元老會議 副議長), 吉祥德化(元老會議 副議長), 諮問委員 理事 法海度奇(一鵬門徒會長), 普經學鉉(總務院 副院長, 大輪門徒會長), 德山法蓮(京畿北部宗務院 元老), 慧空慧超(法規委員會 委員長), 法藏慧日(少林寺), 研究審查委員長 徐閏吉(東國大學校 前 大學院長), 研究委員 徐輔鶴(慶熙大 敎授), 無相法顯(總務院 交流協力室長), 朴正鎭(漢陽大 敎授), 理事長 無空無上(中央選擧管理委員長), 常任理事 研究院長 圓光大隱(中央布敎院長, 中央宗會 副議長), 太古學會長 保惠靑峰(中央初審院長), 禪林院長 能園慧俊(德菴門徒會 前 會長), 圓融院長 常虛性宗(宗正禮敬室長, 濟州宗務院長), 企劃理事 靑河慧明(中央選擧管理委員, 京畿東部 司正院長), 總務理事 性徹慧惺(德修寺), 敎務理事 妙華光海(金佛寺), 財務理事 龍潭濟民(法藏禪院), 社會理事 眞覺性虛(黃輪寺), 組織理事 法京智常(總務院 企劃部長, 蓮興寺), 弘報理事 建立委員長 鏡忍古眞(金龍寺), 護法理事 覺性性德(修德寺), 研究理事 聖坡慧覺(京畿北部 宗務院長), 道學慧日(正房寺), 法雨英華(前 江北 宗務院長), 慈明慧充(寶光寺), 蔣盛淨忍(龍殿寺), 如初如初(全國比丘尼會 前 會長, 無量寺), 鏡園普賢(海東佛院 總務), 般若喜緖(淸水寺), 佛印智覺(金龍寺), 眞空智雄(祈林寺), 正印慧惺(日本 大光寺), 淨潭慧雲(法規委員, 慧雲寺), 瑞巖法修(京畿中部 宗務院長), 碧波雲松(大邱宗務院 司正副院長), 義法智悟(大邱宗務院 副院長), 蓮湖月檀(德華寺), 和明慧華(普賢寺), 大空幸得(全國比丘尼會 會長), 明悟慈心(廣法寺), 慧眞一志(隱仙庵), 監査 覺夢慧承(三論宗 副宗正), 禹宗坤(영인 이엔씨 代表理事), 韓國佛敎太古宗 太古會, 諸葛妙得(如來聖), 徐輔晟(性陀), 徐庚泰(佛光), 徐永珠(淸淨華), 徐永善(淸淨聖), 徐榮志(淸淨光), 徐兌娟(淸淨覺), 李仙花(金剛海), 李賢淑(淨金海), 朴義鎭(大聖), 朴範埈(慧覺), 朴廷恩(慧覺華), 李海炆(常明), 李忠柱, 李錫柱, 崔仁順(佛成智), 柳命秀(普德華).

주최 韓國佛敎太古宗 太古法孫
주관 社團法人 大輪佛敎文化硏究院.太古學會 理事長 無空無上 徐甲生
서울 강북구 수유4동 584-12(무량사내) / 전화 02)904-0081, 0016 FAX 904-0083 H.P 011-750-0016

'갓바위' 기우는데 삭도 추진?

정부 규제완화로 지자체 관광개발 · 환경파괴 우려

환경부(장관 이만의)가 환경규제 완화를 밝힌데 따라 각 지자체와 추진단체들이 케이블카 건설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구랍 19일 자연공원의 주요문화재 반경 500m 이내에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및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1월 15일 2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돼 있는 국립공원안 자연보존지구의 케이블카 노선 길이를 5km까지 연장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갓바위'(관봉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31호)를 비롯해 전국 국립공원 및 명찰지역이 지자체간 무분별한 관광자원 개발에 멍들고 있다.

#전국국립공원 케이블카 몸살

1980년 내장산을 마지막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환경부 내부적으로도 케이블카의 환경파괴와 효율성저하로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 등 개발위주 정책이 가동되면서 환경부도 변했다.

이에 따라 '팔공산 갓바위지구 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응재)는 1월 7일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대구시(시장 김범일)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했다. 법적 장애물이 없어진 추진위는 "사업 허가를 얻기까지는 5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2011년 가동을 목표로 연말쯤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동구 주민 70여 명으로 구성된 민자사업단이 추진하는 '갓바위 케이블카'는 '갓바위' 왼쪽 200m 지점(해발 840m)~대구동구 시설까지 1269m 구간, 총사업비 124억 원 규모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갓바위 케이블 선착장에는 양 · 한식 및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도 들어서게 된다.

갓바위 외에도 현재 각 지자체가 앞다투어 신청한 지역은 총 11개 지역으로 △제주도 한라산 △울산 신불산 △밀양 얼음골 △강원도 설악산 △목포 유달산 △영암 월출산 △지리산 구례 지역 △지리산 산청 지역 △지리산 남원 지역 △과천 관악산이다.

이중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대표적 사찰환경 침해사례다. 표충사와 통도사(말사 성남사)는 사찰내부가 보이고, 수행환경이 침해되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주경)도 이에 산하 '로프웨이 및 국립공원 제도개선 관련 전문위원회'를 마련해 종단TF팀 구성과 현장답사 등 대응책을 찾고 있다.

#개발 둘러싼 지자체간 알력





케이블카 설치로 훼손위기에 처한 갓바위. 갓바위는 관광의 대상이 아니라, 신행의 대상이다.

'갓바위'의 경우 대구시는 민자사업단의 적극 추진에 관광수입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며 팔공산 주차장에서 도보 30분 거리에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부와 대구시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2011년을 '대구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갓바위 케이블카 관광을 비롯해 △'핫&쿨' 등 각 종 축제 개최 △국제관광선원 △한방웰빙체험관 등 내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는 1월 17일 경산~갓바위 연결노선 신설, 대구~경산 무료환승제도 전면시행 등 기반 준비를 차근히 진행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갓바위축제' 명칭 사용과 시청전화번호 803번(팔공산) 등으로 대구시와 묘한 알력관계인 경산시(시장 최병국)는 행정상 경산문화재인 '갓바위'가 대구시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는 것에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관광문화재를 담당하는 경산시 새마을문화과는 "갓바위는 경산시-선본사-갓바위로 가는 길이 평탄해 경산시로 매년 350만명이 찾는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경산쪽 관광객이 줄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등산로 정비사업 등 지속적 개발을 통해 관광객이 줄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에 훼손되는 성보상징

문제는 이러한 지자체들의 신경전과 과열된 개발에 정작 '갓바위'는 망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갓바위'는 2007년 안정성 논란에 쌓인 적이 있다. 그 당시 전문가들은 "왼쪽 5도정도 기울어져 있는 갓바위의 엉덩이 부분이 깨져 풍화로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문화재청은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화강암으로 된 갓바위 왼쪽 엉덩이 부분은 가로 1m, 세로 1cm 균열이 있으며, 이를 지탱하는 받침석에도 10㎝ 정도의 틈새가 벌어져 여러 돌맹이들로 메워논 상태다. 케이블카를 통한 관광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소중한 불교문화재 훼손은 불 보듯 뻔하다.

'갓바위'를 관리하는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은 "전국의 불자가 찾는 성소(聖所)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의 술과 음식 등으로 신행분위기가 흐트러질 것"이라며 신행환경 훼손도 우려했다.

향적 스님은 "갓바위는 일반 관광지가 아니다. 신심이 없으면 오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관광개발에는 경제수익성도 낮다"고 말했다. 선본사는 이미 무기한 서명운동을 벌여, 갓바위 참배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5만 2000명 서명부 1차로 국회와 대구시 등에 전달한바 있고, '조계종 중앙종회 회원 일동'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설치 저지 운동을 강력 벌여 나가기를 천명했다.

#환경단체들 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정상 부근과 등산로 파괴는 피할 수 없다"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공론화하고 여론수렴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구태우 사무국장은 "주자창에서 2~30분 걸려 올라가 접근성이 어려운 곳이 아니다. 갓바위 200m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문화재 파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사업단의 사업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 환경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발에 갓바위 개발을 추진하던 김범일 대구시장은 1월 13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갓바위 케이블카에 대한 여론수렴 의지를 표명했다. 김 시장은 "갓바위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입장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만간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현장 활동가들은 무리하고 급작스런 개발 사업추진을 정부와 지자체가 임기 내 과시적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꼽는다. 대통령과 시장은 임기마다 바뀌지만, 우리의 강줄기와 명산, 그리고 소중한 문화재는 한번가면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문화재의 개발과 보존은 비전과 엄밀한 조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월운 스님 해임은 무자비한 폭력"

역경후원회, 동대 역경원장 파행인사 비판 성명

"역경불사에 일생을 매진한 월운 스님을 해임한 것은 무례요,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월운 스님을 도와 역경원 불사에 힘을 보탰던 동국역경원후원회 회원들이 '법의 당간을 무너뜨린 동국대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1월 15일 발표했다.

회원들은 "월운 스님의 원력에 감복해 평생을 스님과 함께 역경불사에 동참하리라 발원한 지 만13년을 지내왔다"며 "월운 스님의 역경원장 해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원들은 "월운 스님은 당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상좌스님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창에 검은 커튼을 치며 밤을 지새웠을 만큼 역경에 헌신했다"며 "영담 스님이 종단의 권력을 쥐기 위해 월운 스님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역경원 후원회원들은 △파행적 인사를 주도한 영담 스님(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의 공직 사퇴와 공개참회 △인사를 무례하게 집행한 동국대 오영교 총장과 최순열 학사부총장의 참회 △월운 스님의 명예회복과 역경원 활성화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군종교구, 논산훈련소 수계대법회 봉행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1월 10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육군장병 2000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됐다. 일면 스님, 선정사 영진 스님, 보운 김종봉 법사(연무사 주지), 금강회장 최재권 중령, 불교어머니회 등 군포교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광동학원 여학생 댄스팀이 위문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불교지도자넷 총무원장 종책선거 캠페인

"종헌종법 준수와 후보자 검증, 종책 대결로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자"

올 10월경 예정된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종책선거를 지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지도자넷(www.choice33.net)은 1월 12일 서울 조계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무원장 선거 연중 캠페인' 자료집을 배포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불교지도자넷 운영진은 취지문을 통해 "벌써부터 총무원장 선거에서 편법과 금권선거가 난무할 조짐이 보인다"며 "금년 선거가 종단의 자정과 혁신, 화합을 외면하지 말고 여법한 불사가 되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종단발전안 제안,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 검증, 후보자 검증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며, 이같은 제안이 담긴 캠페인 자료집을 전국 주요사찰 등 3000여 곳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불교지도자넷 운영진 법응 스님은 "사단이 벌어진 후에는 이미 늦다. 진정한 위기는 위기해결의 처방전을 갖는 지도자집단에 있다"면서 "올해는 불교가 국민에게 화합과 희망을 주는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기자

"책으로 알리는 한국의 美" 영문 '반가사유상 도록' 출간

한국불교 미술품의 정수인 반가사유상(국보 제78호, 제83호)을 해외에 알리는 영문서적이 출간됐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은 영문 도록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Eternal Images of Sakyamuni: Two Gilt-Bronze Korean National Treasures)을 1월 12일 발간했다. 영문 도록은 한석홍 작가의 100여 컷 반가사유상 사진 자료를 게재해 박물관에서 직접 관람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두 불상을 살펴보도록 했다. 또 강우방 前 국립경주박물관장과 이정희 교수(미국 포틀랜드주립대)의 반가사유상 관련 논문을 게재해 해외 일반인들의 반가사유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02)2046-8563 조동섭 기자

교계 대학, 등록금 동결

동국대(총장 오영교)와 위덕대(총장 배도순)는 최근 2009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두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등록금 동결조치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학생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공부하다 죽자!

기축년을 맞아 금연,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등 새해 목표를 세우는 불자들이 많다. 불자들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목표는 불교공부지만 이러한 결심은 사흘을 못 버티곤 한다. 이러한 불자들을 위해 전국 불교대학들은 신년을 맞아 결심을 꿋꿋이 실천토록 도울 교양대학과정을 준비했다. 교리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조계종 포교사 응시자격 부여 등 혜택도 다양하다. '작심일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올 한해 죽을 각오로 공부해보자! 노덕현 기자

지역	대학명	모집마감	문 의
서울 종로	조계사불교대학	2월 13일	02)720-1390
서울 종로	동산불교대학	1월 31일	02)732-1206
서울 송파	불광사 불교대학	2월 18일	02)417-2551
서울 강남	봉은사 불교대학	2월 27일	02)516-5652
서울 강남	능인선원 불교대학	3월 3일 개강까지	02)577-5800
서울 강북	화계사 불교대학	3월 7일 개강까지	02)997-6469
서울 용산	대원불교대학	3월 2일 개강까지	02)754-1613
서울 성북	동방불교대학	2월 12일	02)763-0229
경기 남양주	봉선사 불교대학	2월 28일	031)527-1951
경기 화성	용주사 경기불교대학	3월 2일	031)234-0040
인천 남구	경인불교대학	3월 2일	032)427-8400
인천 강화	전등사 불교대학	3월 2일	032)937-0125
강원 속초	신흥사 불교대학	2월 28일	033)635-0106
강원 평창	월정사 문화대학	3월 초	033)334-1817
대전 중구	수덕사 대전불교대학	3월 초	042)222-1159
대전 서구	백제불교문화대학	3월 3일	042) 471-8214
충북 청주	용화사 충북불교대학	3월 3일	043)274-2159
충남 천안	각원사 불교대학	3월 4일	041)561-3545
전남 장성	백양사 불교대학	3월 13일	061)392-7502
전남 영광	불갑사 마라난타불교대학	3월 4일 개강까지	061)352-8097
전남 해남	대흥사 해남불교대학	3월 7일 개강까지	061)534-5502
전북 전주	금산사 화엄불교대학	2월 28일	063)277-3497
대구 중구	동화사 대구불교대학	2월 28일	053)256-3725
대구 남구	한국불교대학	3월 24일 개강까지	053)474-8228
대구 남구	마하야나불교대학	3월 2일	053)629-0408
경북 포항	포항불교대학	2월 28일	054)247-4688
경북 김천	직지사 김천불교대학	3월 12일 개강까지	054)436-6174
경북 영천	은해사 불교대학	3월 5일 개강까지	054)335-2277
부산 진구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2월 28일	051)866-7277
부산 진구	부산불교교육대학	3월 15일	051)711-0700
경남 양산	통도사 불교대학	3월 첫째주 개강	055)382-7182
제주 제주	제주불교문화대학	2월 31일	064)724-6835

"사찰에서 새해 떡국 함께 먹어요"

설 연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마련

민족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새해맞이가 힘겹게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사찰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보는 건 어떨까. 그 어떤 여행보다 뜻 깊고 의미있는 설 연휴 템플스테이를 소개한다.

사찰로 들어가는 오솔길의 소나무 숲이 장관인 영월 법흥사(주지 도원)는 1월 24~26일 '낯설음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새벽예불, 사찰 떡국 먹기, 적멸보궁에서 108배, 108염주 꿰기, 차담, 무관 큰스님과의 대화, 성불도놀이, 꿈 주머니 만들기 등의 새해 맞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님의 침묵과 함께하는 인제 백담사는 1월 24~27일 '참사람 해살림 명상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26일에는 백담사에서 차례를 지내고 설악산 봉정암 중청에서 동해바다해맞이를 한다. 봉정암에서 맞이하는 해맞이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을 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솔내음이 향기로운 서울 삼각산 금선사는 1월 24~25일 새해맞이 준비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서울 도심 속에서 고요한 마음을 돌아보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종이접기 연꽃등 만들기, 새해 소원지 달기, 요가 명상, 참선, 108배, 북한산 산행 등으로 휴식과 전통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주 마곡사에서는 1월 24~25일 상대방 공경기도 프로그램 등으로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한편, 1월 26일에는 화성 용주사, 속초 신흥사, 김천 직지사, 공주 갑사, 영천 은해사 등 대부분의 교구본사에서 설날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이상언 기자

"영어 자타카 암송대회로 자신감 얻어요"

국제포교사회 '제2회 영어 자타카 암송대회' 성료



1월 10일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가 개최한 '제2회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참가자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가 개최한 '제2회 영문 자타카(Jataka) 암송대회' 현장에서 들려오는 어린이들의 암송소리가 목탁소리처럼 울려퍼진다.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한 25명의 어린이들은 직접 만든 다양한 소품과 원어민을 능가하는 발음으로 <본생담(Jataka)>의 이야기 중 하나를 영어로 외워 암송하며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봉은사 정연수 어린이 어머니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차츰 자신감을 얻고 영어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됐다"며 딸아이의 발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이날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이준식(풍동중3) · 박소영(행신중3) 학생은 "비로자나 국제선원 자우스님과 열성적으로 응원해 준 선원 식구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고등부에도 암송대회가 생긴다면 지속적으로 부처님 말씀 암송대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필 회장은 "영어 암송대회에 이어 어린이불교콘서트를 개최해 놀면서 공부도 하고 불법도 익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어린 시절부터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법회 등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전통과 정통 겸비한 수행프로그램은?

동국대 선학과, 교강사 수련회 개최



동국대 선학과 교강사 13명은 1월 8~9일 양평 용문사에서 대중적 수행프로그램과 효율적 교수법을 논의했다.

동국대 선학과(학과장 종호)는 1월 8~9일 양평 용문사(주지 호산)에서 '2008 선학과 교강사 겨울수련회'를 개최했다. 종호 스님을 비롯해 송묵 스님, 정도 스님, 김말환 박사, 황금연, 황수경, 박지숙 박사 등 학과 교강사 13명이 참석한 행사는 마가 스님(만일사 주지)의 자비명상을 위주로 진행됐다.

종호 스님은 "간화선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 대중적 수행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교수법을 고민해 왔다"며 "자비명상을 중심으로 한 강좌당 70~80명에 달하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법을 지도할지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부처님 땅에서 펼친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인도국제협력 활동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파라미타 국제구호단이 구랍 24일부터 13박 14일에 걸쳐 부다가야 고려사(주지 월우)와 사르나트 한국사찰 녹야원(주지 지훈)에서 인도국제협력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국제구호단은 'M세대의 메디컬 캠핑'이란 주제로 펼친 활동에서 약 2천여 명에게 의료진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한국불교전통문화를 전했다. 인도국제구호활동은 행정안전부와 양산 통도사가 후원하고 도선사 등에서 구호물품을 협찬, 보령제약, 동아제약, SH제약에서 의약품을 지원했다. 이상언 기자

우즈벡 불교회, 조주 스님 '중앙아시아에서…' 펴내

우즈베키스탄 불교회 조주 스님(조계종 국제교류위원)이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삶과 중앙아시아 불교문화를 담은 책 <중앙아시아에서 찾아보는 부처님>을 펴냈다.

이번 책은 중앙아시아에서 불법을 전파하며 스님이 직접 겪은 일화와 강제이주로 핍박받은 고려인 초기 세대, 중앙아시아의 불교문화, 현지에 융화되며 민족정체성을 잃어가는 한민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덕현 기자

신행게시판

●나주 심향사 경전 독송회=나주 심향사는 매월 2, 4째 주 화요일 저녁 7~9시 심향사 설법전에서 경전 독송회를 개최한다. 1~4월 <예불문> <반야심경>, 6~8월 <아함경>, 10~12월 <천수경> 독송을 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교재 포함 3개월에 3만원으로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61)334-2880, www.simhyang.or.kr

●남양주 봉인사 '사마타 위빠사나(선정과 지혜수행)'=남양주 봉인사는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봉인사 한길정진원에서 '사마타 위빠사나(선정과 지혜수행)'를 진행한다. 새벽예불, 좌선, 경행, 개인인터뷰와 다도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스님 하루 1만원, 일반인 3만원으로 전화, 현장, 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031)574-5585 www.bonginsa.net

●반야라마 사띠스쿨 수행지도자 양성과정 모집=반야라마 사띠스쿨이 수행지도자 양성과정 제5기 사띠마스터 과정을 접수한다. 서울 · 부산 각 20명 모집하고 불교와 수행을 체계적으로 배워 수행을 사회로 회향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총 4학기 과정으로 진행되며 매 학기 75만원이다. 원서접수는 이메일 접수 (02)597-2841 thepanna@korea.com

●서울 능인선원 입춘철야용맹 정진=서울 능인선원은 2월 3일 오후 11시부터 2월 4일 새벽 3시까지 능인선원 대법당에서 입춘철야용맹정진을 진행하고 2월 4일 오전 10시 입춘 기도를 올린다. 접수는 각 기도처에서 받으며 동참비는 2만원. (02)577-8000(280, 285)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 7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 법. 사십구재 · 천도재 제사 준비등 전과정 지도 (6개월 과정)

■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6개월 과정)

■ **지도교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 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09년 3월 5일(화요일)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 및 학사일정 설명)
모집인원 – 0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범패 · 의식과정 – 화요일 , 목요일 (주 2회), 오후 3시 ~ 5시
작법 · 무용과정 – 수요일 (주 1회), 오후 1시 ~ 오후 3시
• 접수기간 : **2009년 1월 ~ 2009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본교는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 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업장 소멸은 수행 통해 스스로 해야 합니다"

7 생활 속의 간화선수행
안국선원 집중수행기


서울 안국선원에서 재가자들이 '참나'를 찾아 용맹정진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죽을 각오로 들어간 선원

나날이 삶은 꼬여만 갔다. 갑갑하고 힘들어지자 삶으로부터의 도피를 고통의 해결책으로 삼은지 오래였다. 부처님 제자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지만 일시적일 뿐이었다. 언제인가부터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삶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이 날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삶을 산다기 보다는 여기저기에 끌려다니는 삶일 뿐이었다. 또 뭔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다 놓아버리고 싶지만 놓아지지도 않고 뭔가를 할 때는 부담감이 날 짓이기고 있었다.

때마침 서울 안국선원(주지 수불)에서 구랍 12월 30일부터 일주일 간화선 집중수행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깨닫고자하는 의지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과 연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신정 연휴를 서울 안국선원에서 보내기로 했다.

#다리 틀고 5분도 앉지 못해

구랍 30일, 수불 스님은 집중수행에 동참한 150여 대중에게 첫 법문을 설했다. 많은 재가 수행자들을 보니 의아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수불 스님은 간화선 기초반 수행자들에게 "첫째 믿고 행할 것, 둘째 지극정성을 다해 나를 확인할 것, 셋째 간절한 마음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 '나'는 뭔가에 의해 움직이는 괴뢰와 같은 존재다. 지금 눈앞의 일만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또 "망상이 일어나면 없애려 하지 말고 망상과 더불어 함께해야 한다"며 " '탄지(彈指; 손가락을 튕김)' 할 때 누가, 무엇이 손을 튀기는 것이냐?"는 화두를 내렸다.

자리를 잡고 앉자 온갖 번뇌 망상이 미친 듯이 날뛴다. 겉잡을 수 없는 생각의 소용돌이를 바라보며 그냥 즐겼다.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짐, 포부 등 미래와 과거에 대한 생각을 아주 충분히 해버렸다. 하지만 생각의 끈은 한 시도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 망상들이 조금 잠잠해지자 '탄지' 화두를 계속 떠올렸으나 15분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 삭신이 쑤시고,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하면서 다리를 풀어버렸다. 녹초가 되는 것 같았다. 도무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믿고 따르라"고 보살님들이 계속 중고를 해주셨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다 병나겠다 싶어 첫 날 수행을 마쳤다.

#막막함과 인내심

둘째 날 오전 10시, 어김없이 스님의 법문은 시작됐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알아채라"는 스님의 첫 말씀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었다. 이어 스님은 내 맘을 알았다는 듯 "막막한 것 그것이 바로 공부가 되는 것이다. '남들은 뭔가를 느낀다는데 왜 난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시간을 보내보라"며 내 마음에 채찍을 가했다.

오늘은 90분 동안 좌선을 해보자. 그날의 화두는 바로 그것이었다. 온갖 번뇌 망상이 소용돌이 치다가도 50분을 넘기다 보면 다리를 틀고 앉아 있는 고통을 넘기기 위한 인내만이 필요하다. 아침 10시 법문을 시작할 때부터 저녁 9시까지 버티고 또 버티는 게 다였다.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과 알 수 없는 가벼움이 짙고 무거운 겨울바람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됐다.

#먼지를 비추는 빛

"언제 결과가 나올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니 그냥 밀고 나가라. 목적지에 이르러서 되돌아보면 알게 된다. 외통수에 걸려 들어간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새해가 밝아도 수불 스님의 법문은 3일째 변함이 없었다. 법문에 서론 본론 결론도 강약도 없다. 모두 강한 본론이다. 여전히 난 무덤덤하다. 다리를 틀고 또 그 긴 시간을 버틸 생각을 하니 두려웠지만 그냥 해보기로 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 "마음 속 먼지 털어내고 부처님 말씀 따르면 동전의 앞과 뒤도 아닌 동전 그 자체입니다"

선방에 새해 아침 햇살이 강렬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을 것 같은 선방에 자욱한 먼지가 햇빛에 여실히 드러난다. 초보 수행자들은 빈번히 몸을 틀고 움직인다. 먼지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참선에 들어가면 이내 곧 사라질 줄 알았는데 먼지는 계속해서 내 주위를 맴돈다. 빛을 피한 먼지는 자취를 감추고 난 또 그 속도 모르고 깜박 속아버린다.

그 먼지 속에 내가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먼지, 그것이 문제였다. 빛을 비춰주면 그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있는지 알겠지. 마음 속 먼지를 일으키는 저들의 움직임이 날 그토록 힘들게 했구나. 욕심부리지 말고 스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냥 밀고 나가는 거다.

#전시용이 아닌 나를 위한 것

"정신없이 하라. 무수한 상처를 돌보지 말고 죽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워라. 화두가 들리고 안 들리고 상관없이 들라."

수불 스님은 4일째가 되자 채찍질을 가하셨다.

스스로 90분 좌선, 5분 휴식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지켜나갔다. 그때 불현듯 '번뇌와 망상으로 둘러싸인 나, 그것들이 나를 지탱하는 우스운 힘이었구나. 알음알이로 인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난 그냥 살면 될 뿐. 번뇌 망상에 싸인 나와 아닌 나는 종이 한 장 차이구나. 현실은 현실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고 과거도 미래도 아닌 것. 그게 진정한 나도 아니었고 그 무엇도 아니었다.' 이런 느낌이 몰려오는 날 저녁 스님은 느닷없이 화두 공부를 하고 있는 수행자들을 찾아왔다. 드디어 문답의 시간이 온 것이다.

사람들의 질문은 끝이 없었다. 자신의 심적 신체적 변화를 스님께 토로했지만 스님은 "그때 화두를 들고 있었느냐. 화두만 놓지 않으면 된다"라는 답으로 일관하셨다. 뭔가를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또 알음알이로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좀 더 해보자. 깨달아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갖지 말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니까.

#오로지 몰입

"불교 공부를 통해서 누구나 업과 망상으로 싸여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업장 소멸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수행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수불 스님의 말씀에 그동안 반쪽짜리 불자로 지냈던 내 자신을 보게 되자 안타까웠다. 아는 것이 깨달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던 내 과거가 한심스러웠다. 철야를 다짐했다. 좌선의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렸다.

오로지 몰입이었다. 나를 둘러싼 아주 딱딱해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작은 한 조각이 뜯겨 나가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빛이 보였다. 한 조각이 뜯겨 나가자 다 뜯어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 절대 쉽게 벗겨지지 않는 나의 허물들. 힘겨웠지만 그냥 밀고 나갔다.

간화선을 통한 참선과 깨달음 그것은 영화에서나 보여주는 신비체험이나 빛으로 장엄한 그 무엇이 아니었다. 있는 그대로 그 자체였다. 동전의 앞과 뒤가 아닌 동전 그 자체, 너와 나의 구분이 아닌 너도 없고 나도 없음을. 있는 그대로 여여(如如)할 뿐.

새벽이 되자 다리를 틀고 화두를 참구하는 것 자체에서 평안을 찾았다. 그저 그렇게 나를 계속 바라만 봤다.

#스님과의 문답

확인을 하고 싶었다. "보살은 어떤 변화를 느꼈는가" 스님이 물으셨다.

"알음알이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더욱 화두를 들었습니다. 깨달음은 종이 한장 차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동전의 앞과 뒤도 아니고 동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지난 6일간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들을 반추하며 삶에 대한 도피와 회피, 인생은 고(苦)라는 것에 대한 강한 회의감,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기 시작했다. 그것들을 피할 필요도 그렇다고 없애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넘쳐흐를 번뇌와 망상을 가라앉히고 지혜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늘 '나'부터 생각한다. 그 출발점이 어디든 '나'에서 멈춘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이제 '나'라는 부딪침이 올 때 마음의 일어남을 얼마나 잘 제어하는냐가 중요한 것이다. 깨달음의 길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현실과 철저한 부딪침으로 그 부딪침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것, 현상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다. 죽기 전에 죽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 나를 철저히 버리는 수행과 회향의 삶을 모든 이에게 권하고 싶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2009학년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는 2009학년도 불교대학 · 불교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동국대학교 · 중앙승가대학 등에서 강의하시는 스님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여 수행과 실천을 하는 불자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교대학
※특전 - 조계종 종단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졸업생에 한함)
- 매학기 성적우수 및 신행봉사 관련 포상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년 1학기 : 불교의 이해, 불교사, 불교문화 2학기 : 아함경, 대승불교, 조계종사
2학년 1학기 : 금강경, 불교사회복지, 육조단경과 선사상성립 2학기 : 화엄경, 포교방법론, 불교 문화 특강
* 불교 문화 특강(2학년2학기) – 동서문화의 교류, 불교와 환경, 불교와 사회, 웰다잉 등 中 택2

모집분야
주간반 : 월·화 오전 10:30~ 12:30 / 모집정원 60명
야간반 : 월·화 오후 7:00 ~ 9:00 / 모집정원 6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 ~ 6:00 / 모집정원 60명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이수자 및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불교대학원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기 : 유식학, 한국불교사상 2학기 : 법화사상, 불교원전강독
3학기 : 선사상연구, 비교종교학 4학기 : 중관사상, 현대사상과 불교

모집분야
주간반 : 월요일 오전 10:00 ~ 13:00 / 모집정원 40명
야간반 : 월요일 오후 7:00 ~ 10:00 / 모집정원 4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 ~ 6:00 / 모집정원 40명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 신도
조계종 1년제 이상 불교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일한 학력 이수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불교대학 졸업증 사본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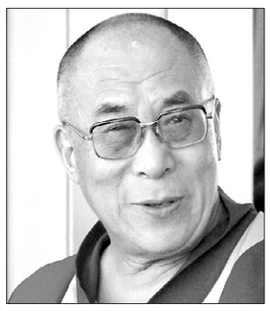
원서배부 조계사 불교대학 건물 1층 및 조계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입학원서 다운로드 : 조계사홈페이지(www.jogyesa.org)
면 접 추후 공지 입학식 3월 8일(일) 개 강 일 주·야간 – 3월9일(월) / 토요 – 3월 14일(토) 접수기간 2009년 2월 20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교무국 전화 02)720-1390 팩스 02) 720-1391

해 외 WORLD

"세계 경제불황 도덕성 위기 때문"

인도 세미나서 달라이 라마 지적


달라이 라마는 1월 12일 인도 바라나시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세계 경제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법문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원인은 도덕성의 위기가 낳은 탐욕과 부패로 인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 유럽 · 중남미 등 전세계가 경제공황으로 고통 받는 가운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입을 열었다. 그는 1월 12일 인도 북부 바라나시(Varanas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세계에 만연한 이기심, 자아성찰과 정신문화부족이 현재 세계를 금융시장위기로 이끈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레프(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최근 2만여 학생들이 모인 티베트고등불교연구원(CIHTS: Central Institute of Higher Tibetan Studies)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재산을 소유하게 됐고 그것이 다른 것들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잊었다"고 말했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자아성찰과 정신문화의 결핍으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으로 변했고 결국 경제후퇴현상을 초래했다"며 "현재 직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을 가치 있게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소비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이기심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의 이번 연설에 대해 대변인 템파 체링(Tempa Tsering)은 "달라이 라마가 '우리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라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AFP통신은 최근 "1월 13일 로마시 정부가 2월 방문예정인 달라이 라마를 로마의 명예시민으로 임명하기 위해 초청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AFP는 로마시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달라이 라마는 명예시민 임명장을 지난 가을에 받기로 했으나 건강상 문제로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다"며 "그가 올지 안 올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달라이 라마는 2008년 "가까운 시일 내 물러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나은 기자

유럽 버스광고 '종교 전쟁' 중

영국 무신론자 모임 '神 없다' 광고해

"아마도 신(神)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지난해 12월부터 영국 무신론자 모임인 '영국인본주의자협회'가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중 800대에 설치한 광고판에 실린 문구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1월 15일 "영국에서 시작된 '종교 반대 버스광고'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으로 확산되면서 무신론자와 종교단체 간 '종교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무신론자들은 1인당 5파운드 모금 운동을 해 모은 14만파운드(한화 약 2억 8000만원)로 버스와 지하철에 광고를 내고 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등 무신론자 단체들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새해부터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반(反) 종교 광고가 유럽에 확산되자 각국 기독교 단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기독교계 신문은 "신은 존재한다. 예수와 더불어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라는 버스 광고를, 영국 기독교 단체는 8일 무신론 버스 광고가 광고법 위반 행위라며 광고심의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나은 기자

벨기에 왕세자 부부 한국불교예술 관람

벨기에 왕위계승 서열 1위 필립 왕세자와 마틸드 왕세자비가 1월 13일 브뤼셀 보자르예술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왕세자 부부는 한국문화페스티벌 일환으로 열린 한국 불교예술 전시회를 관람했다. 특히 마틸드 왕세자비는 국보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에 관심을 드러내며 한국불교예술의 독특함에 찬사를 보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막한 보자르 한국문화페스티벌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종묘제례악 공연, 백남준 비디오 아트전, 불교예술전시회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했으며 다음 달 말 폐막한다. 이나은 기자

"'불교자살방지대책위' 만들어야"

종단협 산하 불교인권위 자살문제 관심 촉구

국내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평균 11.2명, 한국 24명)로, 자살이 사망원인 가운데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다음인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에 따르면 경제비관 자살과 유명연예인을 따른 모방 자살로 2007년 하루 평균 6.5건에서 2008년 9건으로 자살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자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자살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앞장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인권위(위원장 진관)는 1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가 자살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며 '불교자살방지대책위' 구성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연이야 말로 소중한 인연'이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 불교계는 자살방지대책위를 만들어 생명존중의 날 선포 등 전국민적 생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인권위의 촉구는 날로 증가하는 자살에 불교계의 관심이 미약하기 때문에 발표됐다. 반면 타종교의 경우 개신교계는 자살전담상담기구 '생명의 전화'로 기여하고 있다. '생명의 전화'는 1976년 개관, 매년 생명사랑 캠페인, 대학생 전국 자살예방투어를 개최하고, 중 · 고등학교에 '자살예방버스'를 보내 매년 수 천명의 사람을 자살로부터 구하고 있다.

불교계도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 '자비의전화'에서 상담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생활상담으로 인해, 자살문제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1990년 상담센터를 개설하며 자살상담을 준비했지만, 불교상담과 부부 · 이성 · 가정문제 상담이 대부분이어서 자살문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자살 대응에 대해 한 상담분야 전문가는 "자살문제 해결에는 찾아가는 능동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자살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소외감으로 그들이 찾아와 상담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제는 자살방지 캠페인과 각 사찰별 상담결연, '따듯한 문자 한통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생명존중'. 오계의 불살생계(不殺生戒)는 살생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생명경시의 또다른 이름인 자살. 이를 구제할 불교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덕현 · 이나은 기자

사회복지업무 최선 다짐

청와대 사회수석실 승가원서 봉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관계자들은 1월 11일 승가원자비복지타운(원장 묘전)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관계자들은 1월 11일 이천 승가원자비복지타운(원장 묘전)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윤구 수석(청와대 불자회장)을 비롯해 각 비서관들과 수석실 및 비서관실 행정관 및 직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묘전 스님은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만큼 복지타운 식구들에게 큰 기쁨 주고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통해 당부했다.

이어 강윤구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을 서비스, 복지사업에도 도입해 직접 방문했다"며 "복지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땀흘려 일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 함께 참가한 정승봉 이천시 부시장은 "사회복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선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한 적이 있다"며 "그런 각오로 사회복지업무가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자비복지타운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복지타운 식구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시설을 둘러봤다.

오후에는 청와대 수석실 관계자들과 복지타운 직원들이 직접 깍두기를 만들고, 장애가족들을 위해 붕어빵, 어묵, 떡볶이 등 간식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강윤구 수석은 장애가족들에게 후원금(1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복지계 리더 되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009 계획 발표

"다문화 가정과 실업가정 등 소외계층을 끌어안는 복지계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1월 15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 가족 복지사업과 저출산 극복 사업, 불교 사회복지 전문 인재 양성, 사회 안전망 구축 등 2009년 주요사업계획을 밝혔다.

사회복지재단은 올 한해 지역 사찰에서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해 20여 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등 다문화복지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염불봉사단을 호스피스활동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불교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오 스님은 "경제난 속에서 이중고를 겪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실업가정과 청년실업자를 끌어안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항상 베푸는 삶 사는 사람 되길"

고운사 장학금 전달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1월 10~12일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지역 중 · 고등학생 40명에게 작년에 이어 2회째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장학금전달식에서 호성 스님은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꾸준히 학업에 정진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며 "부처님 같이 항상 베푸는 삶을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일 의성 고운사에서 사찰문화체험의 하루를 보낸 학생들은 11일 서울 KBS홀 견학, 공개방송 방청을 했다. 이어 경복궁 등을 관람하고 12일에는 수원 드라마센터에서 문화탐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상언 기자 · 박영애 영주지국장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임원공고

종 정 각암
총무원장 혜일

원로위원 범아
원로위원 해월

사정원장 덕산
호계원장 득선
교육원장 묘각
포교원장 진광
승정원장 적파 지공
문화원장 지도
재정원장 청명
비구니원장 아산
총무원부원장 무심
교육원부원장 혜명

서울종무원장 법륜
부산종무원장 혜오
강원종무원장 지산
충북종무원장 지암
전북종무원장 장원
경남종무원장 일봉

종정예경실장 혜득
교육부장 도도
감찰부장 자은
문화부장 보명
포교부장 월암
규정부장 도천

호법부장 정진
조사부장 대웅
기획부장 동안
복지부장 동법
사회국장 혜각
감찰국장 지오

공보국장 지웅
문화국장 혜천
교육국장 수진
포교국장 지암
규정국장 호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종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종도 사유재산 보호 및 인정서 발급 / 참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할 스님들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2동 1928-13 TEL(직) 0502-666, 5000 / FAX 053)621-6237

"노인문제 해결 위해 불교가 적극 나서야"

박광준 교수 제2차 불교사회복지 심포지엄서 주장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1만명으로 총인구의 10.3%를 차지했다. 통계작성 이후 처음 총인구의 10%를 넘었다. 새해를 맞아 제주도(도지사 김태환)가 2009년을 노인복지 재도약의 해로 지정했고, 충남도(도지사 이완구)가 노인복지맞춤 5개년 계획을 내놓는 등 각 지자체의 노인복지 대책이 줄 잇고 있다. 불교계도 천태종복지재단(이사장 정산)과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회정)이 앞 다퉈 노인복지에 매진할 것을 선언하는 등 불교계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광준 교수(일본 북교대)가 "오늘날 노인문제는 동아시아 문화에 기인한다"며 "동아시아 문화의 근간을 이뤄온 불교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박 교수는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과 동국불교사회복지회(회장 성지환)가 1월 13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관 교육관에서 개최한 <불교사회복지학 개론서> 발간을 위한 제2차 심포지엄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인학대 · 자살 문제 심각

박광준 교수는 "오늘날 노인들은 가족과 동거하면서도 가족 내 역할은 오히려 적은 모순 속에 살고 있다"며 "노인들은 특히 자살과 노인학대 문제로 안정적 삶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원인에 관한 통계청 자료의 최근 특징은 자살자수 증가. 1988년 3057명이던 자살자수는 2007년 1만217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80세 이상 노령인구 자살은 10년간 4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노인학대 문제도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2005년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제정됐고, 중국은 '노년인권익보장법'에 노인학대를 형법으로 다스리게 명시했다. 한국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학대를 방지하고자 했다. 박광준 교수는 "피학대자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대행위가 일어난다"며 "노인학대는 힘의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지출 △부모의존형 성인자녀의 증가 △장년층의 부담과 부양의지 등으로 노인문제를 진단했다. 박광준 교수는 한국의 백수 문제, 노부모의 연금수령일마다 찾아와 용돈을 받아가는 일본의 파라사이트 싱글, 중국의 컨라오족(啃老族)을 예로 들었다. 컨라오족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늙은 부모에게 의지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다.

박 교수는 "장년세대들이 자신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고 자녀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는 관행이 사회에 문제 있는 젊은이를 양산했다"며 "노인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불교를 문화 근간으로 삼은)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광준 교수는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시의적절한 의견표명은 사회의 길잡이가 될 뿐더러 궁극적으로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불교가 동아시아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 현재의 노인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승가의 솔선 중요

박 교수가 제시한 불교적 해법의 원리는 사성제. 박광준 교수는 "노인복지를 포함한 불교 사회복지론에서의 기본원리는 사성제 가르침에 근거해 추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제(苦諦, 인생의 고통에 관한 진리)는 문제의 발견, △집제(集諦,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는 문제의 원인 탐구와 분류, △멸제(滅諦, 고통을 없애는 것에 관한 진리)는 정책프로그램의 시행, △도제(道諦,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관한 진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공적 사회복지 관점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등에 한정하지만, 불교 사회복지의 입장에서는 노인에 대한 배려 여부 등 폭넓게 정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 윤리관 붕괴와 수발 부담 등으로 노인학대 원인을 지목하지만 동체대비를 인식하지 못한 무명으로 고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의 대처로 설명되는 멸제에 있어서도 모든 불자로 신고의 무자를 확대해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제시한 대책은 승가공동체의 모범이다. 박광준 교수는 "노인복지법 등에서는 법적 제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교적으로는 효행에 솔선하는 승가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국 불교계에서는 시방총림(한국의 교구본사에 해당)에는 연수당(延壽堂)을 두고 고령의 승려를 보살피며, 자손총림(말사에 해당)에서는 제자 등이 보살피고 있다"며 "한국 불교계에서도 승가노후복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복지 전문가 양성해야

박광준 교수는 "불교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체계적 불교교리에 앞서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적 태도를 보시(布施, 물심양면 남을 위하기), 애어(愛語, 따뜻한 말 건네기), 이행(利行, 남을 이롭게 하기), 동사(同事, 상대방의 입장에 서기)의 사섭법과 안시, 화안시 등 무재의 칠시(七施)로 제시했다. 사회복지 전문적 지식으로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전문적 지식 · 기술을 설명했다.

박광준 교수는 "불교 사회복지실천가에게는 불교교리를 사회복지 전문적 지식과 대응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교교리에서 사회복지실천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교리를 선별해 불교적인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체계화하는 길이 불교사회복지를 체계화해가는 과정"이라 주장했다.

한편 <불교사회복지학 개론서> 발간 사업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 2007년 초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주제발표에 앞서 경과보고한 이태화 이사장(무난장학회)은 "2007년 12월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등록된 복지시설은 650개소, 종사자수는 1만7000명에 달한다"며 "불교사회복지 전문가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개론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준 교수(일본 북교대)는 1월 13일 열린 '<불교사회복지학 개론서> 발간을 위한 제2차 심포지엄'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Tip 컨라오족은?

최근 중국 사회문제로 대두된 컨라오족(啃老族)은 노인을 갉아먹는 젊은 층을 뜻한다. 한결같이 직업이 없고, 두 사람의 연로한 부모를 갉아 먹고, 세끼 밥은 배불리 먹으며, 사지는 무력하고, 오관은 단정하며, 부모를 알지 못하고, 열에 일곱은 제멋대로 하며, 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오랫동안 앉아 움직이지 않아 십분 쓸모없는 사람을 말한다.

"6세기 제작 기와 출토"

신라 최초 사찰 흥륜사터는 경주工高

신라 최초의 사찰 흥륜사(544년 창건)가 있던 자리가 경주시 사정동에 위치한 경주공고라는 학계의 가설을 뒷받침할 관련 유물이 출토돼 눈길을 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 이하 박물관)은 1월 13일 경주공고 운동장에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박물관은 경주공고 배수시설 설치부지 발굴조사 중 발견된 건물지 기둥 하부에서 적심 7개소, 건물기단 석열, 기와가 깔린 배수로 등을 확인했다.

박물관측은 "현재 교정에 놓인 대형 초석과 새로 발견된 지름 1.3m의 대형 적심 등은 큰 건물이 있었던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경주공고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

이어 "출토유물 대부분이 통일신라시대 것이지만 와당의 경우 6세기 중 · 후엽에 해당하는 연화문수막새가 발견됐다"며 "고식(古式) 수막새 발견으로 흥륜사 추정지에 대한 가설이 힘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에서 말하는 호스피스는?

'복된 임종을 위한 불교적 가르침' 나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죽음만큼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을까? "잘 죽고 싶다"는 웰다잉 바람이 상조회사 등 장례업 호황을 불러온 세태에 죽음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이와 함께 죽고 나서 장례를 잘 치루는 것이 아닌 바르게 죽는 법을 구하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불교 임종행의(臨終行儀, 호스피스)에 대한 서적이 출간돼 관심을 모은다.

일본에서 터미널케어(치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돕는 행위)를 중심으로 불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윤현숙 소장(불교복지연구소)이 번역한 <복된 임종을 위한 불교적 가르침>(솔바람 刊 · 사진)은 은사이며 일본 불교 터미널케어의 권위자인 하세가와 마사토시 교수(슈큐토쿠대학)가 저술했다.



윤 소장은 "불교에서는 서양식 호스피스보다 오래전부터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실천적 지침을 마련했다"며 "임종행의에는 불교의 생사관에 기초한 간호자와 간호를 받는 자의 마음가짐과 작법이 응축돼 나타나있다"고 말했다. (02)720-0824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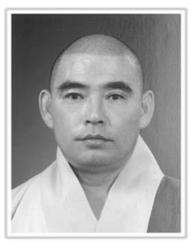
한국불교학회 2008겨울 학술워크숍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는 2월 3일 오후 2~6시, 서울 불광사에서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동물의 생명권'을 주제로 2008겨울 학술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우희종 교수(서울대)가 '한국에서의 동물학대 현황과 실태'를, 안성두 교수(금강대)가 '유럽에서의 동물의 생명권'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조성택 교수(고려대)와 허남결 교수(동국대)가 참여한다. (02)2260-3130 조동섭 기자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 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 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 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임산부 무통분만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숙식가능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HTTP://WWW.JIJANGSA24.ORG

한국 불교의 현주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결정판!

『한국불교총람』 2008년 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1993년 초판 발행과 1998년 개정판 발행 이후 10년 만에 간행된
『한국불교총람韓國佛敎總覽』 2008년 판은 한국 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종합 자료집입니다.
『한국불교총람』은 오늘의 불교 뿐 아니라 미래 불교의 모습을 예견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입니다.

◉ 주요 내용
한국 불교의 현황 – 1998년 이후 한국 불교의 전반적 변화와 특징, 현황을 함축적으로 정리.
종단 – 불교 종단 160여 곳의 현황 정리.
법인 – 불교 관련 법인 390여 곳의 현황 수록.
불교단체/기관 – 불교단체 및 기관 2,000여 곳의 현황 수록.
사찰 – 국내외 사찰, 암자, 포교당 15,000여 곳의 목록 수록.
인명 – 승려 및 재가불자 2,500여 명의 개인 인명자료 수록.
불교도서논문(1998~2008. 상반기) – 1998년 개정판 이후 간행된 불교관련 단행본 및 학위 논문 수록.
한국불교연표(1998~2007) – 1998년 개정판 이후 한국 불교 관련 사건 및 주요 행사 수록.



● 4×6배판 양장제본, 1300쪽, 정가 160,000원

(재)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121-714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전화 02-719-2606, 팩스 02-719-5052
보급 문의 : 도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일주문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정릉 봉국사 주지 월서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설연휴를 맞아 성북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희망 2009! 사랑나눔 축제'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1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구청에서 주관한 '희망 2009! 사랑나눔축제'에 백미 20kg 50포대를 전달했다.



충북태권도협 첫 명예회장

천태종 운덕 대종사는 1월 9일 청주선 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대 충청북도태권도협회 회장 이 · 취임식에서 첫 명예회장에 추대됐다.



고운사 전통강원 복원 기공식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월 15일 옛 강원터에서 전통강원 복원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본사 사회국장 종무회의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은 1월 2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기 2553년 교구본사 사회국장 신년회의를 개최한다.



선원사 연(蓮) 음식 시연회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세계연연구소장)은 1월 21일 선원사에서 연대중음식 시연회를 열어 연음식 및 상품 70여 점을 선보인다. (032)933-8234



대성사 2009선남선녀 인연맺기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1월 17일부터 매월 셋째주 일요일 선남선녀 인연 맺기 특별법회를 통해 1:1 결혼매칭을 해준다. (043)732-5560



천수다라니 49일 정진 입재

일산 덕양선원 선원장 법상 스님은 2월 1일~3월 22일 신묘장구대다라니 49일 기도정진을 입재한다. (031)907-7172

"불교 대사회 이미지 올곧게 정립시킬 터"

혜자 스님 '2009 대한민국 지속창조경영' 사회공로부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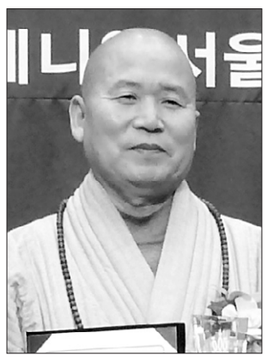
"108산사 순례기도법회를 3년째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동참해주신 5000여 회원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한국일보 주최 '2009 대한민국 지속창조경영' 사회공로부문 대상을 수상한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 · 사진)은 1월 13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이와 같이 수상 소감을 밝혔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이끌며 국민스님이 된 혜자 스님은 "앞으로도 회원을 비롯한 모든 불자들과 함께 불심의 열기를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말하고 "불교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올곧게 정립시키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혜자 스님은 '108산사 기도회'를 통해 매월 5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 기도와 사회봉사를 병행하는 새로운 신행 문화를 선도했다. 또 종교 신행단체의 한계를 넘어 지역민을 위한 우리 농산물 구매, 농어촌 외국인 며느리들의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한 다문화가정 108인연맺기, 군장병들에게 초코파이 전달, 효사랑 캠페인 등 사회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지속창조경영 대상은 높은 가치와 획기적인 변화로 국제 경쟁력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과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상을 혜자 스님은 종교인으로서 처음 수상해 의미가 깊다.

한편, '108 산사 순례기도법회'는 1월 14~23일 충주 선묵원에서 약사여래 108일 일심기도와 방생법회를 봉행하며 방생의 의미를 불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2월에는 구미 도리사에서 30번째 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템플스테이 우수성 인정"

지관 스님 템플스테이 관련자 표창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템플스테이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정부 조직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템플스테이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표창장이다.



왼쪽부터 이태묵, 김춘식, 권오기씨, 지관 스님, 김성경씨, 종훈 스님, 진경 스님.

지관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데 기여하는 바는 크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업무수행으로 2008년에는 '템플스테이' 사업이 서울시의 최우수 여행상품으로 선정돼 한국불교가 가진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치사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권오기 서기관(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김성경 국장(경상북도 관광산업국) △김춘식 관광문화산업과장(경기도 문화관광국) △이태묵 관광축제팀장(충청남도 공주시청) △정진수 전략상품개발팀장(한국관광공사)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상언 기자

김성준·조보라씨 대상 수상

제2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시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을 봉행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성준(사진 왼쪽) · 조보라(사진 오른쪽)씨의 얼굴은 연꽃처럼 빛났다. 대상을 수상한 욕조마개는 물 위에 뜬 연꽃을 표현한 욕조마개로 예상 판매가격이 약 5000원이다. 출품자들은 "공예품 위주의 고가 불교 상품들을 보며 실용적인 제품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김성준(공주대 산업디자인학부 4학년)씨는 "기존 불교문화상품들은 실용적인 면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며 "불교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항상 일상생활과의 접목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자 집안에서 자라온 조보라(공주대 산업디자인학부 3학년)씨는 "부모님께서 '부처님과의 인연이 깊은 것 같다. 앞으로 불공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상용화 할 수 있는 불교문화 상품 디자인에 대해 열심히 연구할 계획이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상언 기자

청암사 승가대학 · 율원 졸업식



김천 청암사 승가대학(학장 지형)은 1월 11일 제23회 졸업식을 열고 15명의 사미니를, 율원은 처음 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0일 운문사 승가대학(학장 명성)과 동학사 승가대학(학장 해주)도 졸업식을 봉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천진불 방학교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1월 6일부터 지역 아동 방학교실을 개최했다. 프로그램은 사물놀이, 난타, 신문 활용교육, 댄스스포츠, 사군자 등 5과목이며 1월 30일까지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이뤄진다. 혜철 충청지사장

원경사 육군항공학교 군불자 위문법회



익산 원경사(주지 자비)는 1월 11일 논산 육군항공학교(교장 배명현)에서 군불자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전주 '우리는선우'(회장 오종근) 회원들과 장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덕사 경제극복 위한 108일 기도 입재



광주 광덕사(주지 우진)는 1월 13일 경제극복을 위한 108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금강경> 독송과 천도재 봉행이 계속되며, 4월 30일 회향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09 인천 세계도시축전 성공 기원법회



'2009 인천 세계도시축전 성공 개최를 위한 신년 기원 대법회'가 1월 12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봉행됐다.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대은 스님, 안상수 인천시장 등 4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진성 기자

인사

동국대 교원 보직 인사 단행

동국대는 1월 15일 교원보직을 인사 발령했다. (유임자 제외)

서울캠퍼스 △이과대학장 유국현 교수(화학과) △행정대학원장 겸 사회과학대학장 정창근 교수(국제통상전공)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유창조 교수(경영학전공) △공과대학장 이의수 교수(화공생물공학과)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이혜은 교수(지리교육과)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대학원장 김인재 교수(경영정보학전공) △교양교육원장 성관제 교수(기계공학과) △사회교육원장 임식 교수(체육교육과) △학사지원본부장 홍성조 교수(산업시스템공학과) △전략기획본부장 이영면 교수(경영학전공) △학생경력개발원장 이준서 교수(경영학전공) △중앙도서관장 신재호 교수(전자공학전공) △동국미디어센터장 김용현 교수(북한학전공) 이상 무순.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장 겸 불교문화대학장 성본 스님(불교학부) △인문과학대학장 김영철 교수(외국어문학부) △과학기술대학장 이갑득 교수(나노소재화학과) △에너지환경대학장 겸 에너지복학연구원장 이중재 교수(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사회과학대학원장 겸 사회대학장 우성기 교수(정치행정학부) △산업경영대학원장 겸 경영관광대학장 김오우 교수(경상학부) △사범교육대학장 백경임 교수(가정교육과) △전략기획본부장 이계영 교수(컴퓨터 멀티미디어학부) △입학처장 권오윤 교수(정치행정학부) △산학협력단장 장익현 교수(정보통신공학부) △정보관리실장 겸 경주도서관장 이태경 교수(컴퓨터멀티미디어학부) △국제교류교육원장 박종희 교수(호텔관광경영학부) △박물관장 전봉진 교수(인문학부) △동국미디어센터장 허상현 교수(조경학과) 이상 무순.

2009학년도 구룡불교대학

전통의식교육 · 신.편입생 모집안내

본 의식원은 불교전통의식을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주권공과정까지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체계있게 교육하는 범음범패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사찰에서 행하는 각종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입학을 바랍니다.

입학안내

- 모집학과 : 범음범패과정
- 입학자격 : 종단 및 승속에 관계없이 배우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가능
- 교육기간 : 2년 과정
- 접 수 처 : 팔공산 구룡불교대학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235-5) 053-982-1417 / 팩스 053-982-1417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 (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기간 : 신입생 3월 ○일까지 (수시접수)
- 강 주 : 상진스님 (현 구룡불교대학 강주/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범음범패과 강주)

※ 강 사 : 혜성스님 (현 구룡불교대학 강사)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08년 3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시현회 - 3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졸업시연회 봉행에 뜻있는 분 동참바람 】
- 강의시간 : 월.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월요일 : 2학년 / 화요일 : 1학년)

강의내용

	1학기	2학기
1학년	기초 과정 · 기초 : 목탁치는법.천수경. 도량석.종성 · 예불 : 향수해례.사성례. 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 불공 : 삼보통청(사시마지). 퇴공.각단불공의식 · 시식 : 관음시식.상용영반. 화엄시식.구병시식.외 · 기타 : 장의편.방생의식. 각종행사의식 등...	상주권공 과정(범음범패) · 할향.등게.합장게. 고향게.개게.쇄수게 복청게(천수다라니) 도량게.참회게. 천수바라. 요잡바라 등 (바라.작법기본 과정)
2학년	천도의식 본과정 (재채비.안채비.사물다루는과정) · 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 상단불공(지장청외) 중단퇴공.관음시식. 봉송회향.공덕게 ※다게작법.요잡바라.관욕바라. 화의재바라.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욕건이. 운심게.가지게	2년 과정 총괄 졸업시연회준비 1.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바라지.목탁.태징.북.요령) 2.작법고급과정 (사방유신.귀경이.법고무.옴남) 3.모든 사물과 작법을 총괄정리 • 특강 : 점안의식.생전생칠예수재 등에 관한 의식준비와 설명

팔공산 구룡불교대학 학장 원봉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9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월 20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월 9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조폭 저승사자'에서 청소년 복지사로 제2의 인생 출발

"佛法으로 위기 청소년 선도하고파"





한겨울에도 눈 한번 내리지 않는 따뜻한 남쪽도시 부산,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운 찬바람이 코끝을 스친다. 동장군의 매서운 기세에 놀란 온몸 가득 긴장감이 감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비단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을 가리킨다. 부산지방경찰청 본관 1층 경승실. 오늘 이곳에서 '대단한 사나이'를 만나게 될 것이다.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게 경승실의 문이 열렸다. 말로만 듣던 조폭잡는 30년 경력의 형사 고행섭 경감은 들어오자마자 가볍게 인사만 건넨 후 좌복을 깔고 불전을 향해 예를 갖췄다. 삼배를 마친 후 그제야 활짝 웃으며 악수를 건넨다. 호랑이처럼 이글거리는 눈빛에 압도당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내 손을 잡은 그의 손이 바위처럼 뜨겁고 단단하다. 아, 진짜 형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관공서 내에 경승실이 생긴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불교수도' 부산의 지방경찰청이며, 이를 계획하고 부처님부터 상단, 후불탱화, 바닥 다다미까지 직접 설계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고행섭 경감이다. 그는 2002년 '부산경찰불자회'를 창립, 2004년에는 부산지방경찰청에 경승실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20평의 추운 방안에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며 "바쁜 대민 업무와중에 외려 불심을 깊게 하고, 친선 교류를 하자는 의미로 부산경찰불자회를 만들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고 경감의 주도로 매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및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경찰불자들에게 수계법회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02년 부산지방경찰청에 최초의 관공서 경승실 창립

佛法 통해 청소년 범죄예방·조직폭력배 없는 세상 발원

고행섭 경감의 별명은 '저승사자'다. 언뜻, 독실한 불심으로 부산지방경찰청 내 불법 홍포에 여념이 없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듯 하다. 1979년 순경공채로 경찰에 첫 발을 내딛은 경감은 26년간 부산경찰청 폭력계에서 뛴 '조폭 잡는 형사'였다. 지역 조직폭력배의 계보를 훤히 꿰뚫고, 웬만한 폭력조직 두목들도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조폭 컴퓨터'라는 별명도 함께 따라다닌다. 폭력 조직간 통합 움직임과 보복폭행 등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 계보도를 활용해, 핵심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범죄와의 전쟁'으로 뜨거웠던 1992년에는 칠성파 등 부산의 4대 폭력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는 "요즘에는 조폭들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데려가 조직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발을 담그면 돌이킬 수 없는 곳이기에, 조직계보를 차단하는 길은 초중고에서 탈선하는 청소년을 조기에 바로잡는 방법 뿐. 5년만 바짝 신경 쓴다면 조직폭력 집단의 인력수급에 공백이 생겨, 그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위기청소년들에게 사랑과 정의, 양보와 배려, 준법정신과 사회봉사를 가르쳐줘야 하는데, 이때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불교"라며 "'그러지 마!'라는 제재보다는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도방법"이었다고 덧붙였다.

조폭들의 저승사자로 26년을 숨 가쁘게 달려온 고행섭 경감을 지탱해준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 가르침이었다. 제주도가 고향인 고 경감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고, 이모님은 제주 한 사찰의 스님이었다. 12월 30일 섣달그믐, 요즘처럼 폭설이 내리던, 10남매 중 아홉째인 그가 태어나던 날 눈길을 헤치고 찾아온 스님이 계셨다. 난데없는 목탁 소리에 고 경감의 외할머니가 스님을 집안으로 모시고, 산모에게 쥴 미역국을 공양 올리게 됐다. 그 스님은 태어난 아기의 손을 잡아준 후 한자로 이름을 적어준 뒤 자취를 감췄다. "그때 적힌 이름이 바로 '행섭(行燮)'인데 보통 이름에 쓰는 행복할 행(幸)자가 아닌 나아갈 행(行)자라서 다들 의아해하고, 너무 강한 이름이라고들 싫어했어요." 그렇게 불연으로 나고 자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모가 계시는 '절 동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늘 배고팠던 시절인 연 탓에 떡과 과일을 주는 절이 마냥 좋았다고 한다. 20세가 되던 해, 최전방 대성산 삼천봉에서 군생활을 보낸 고 경감은 졸병 시절 새벽 보초를 설 때면 두려움을 잊기 위해 눈을 감으면 어디선가 아련히 목탁소리가 들렸다. 군 제대 후 고향으로 내려가 목공소에서 일도 하고, 농사도 짓던 중 친구의 권유로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경찰시험에 합격해 제주가 아닌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떠나온 지 30년 세월이 흘러, 이제는 고향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은 부산이 제2의 고향됐다. 처음 다닌 부산불교교육대학을 바쁜 탓에 수료하지 못하고, 이후 포교사 시험 합격, 부산불교신도회 불교아카데미 1기를 수료하는 등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12월 30일 은퇴로 약 30년간의 경찰생활을 마감했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선현 거사로서의 '제 2의 인생'이 시작됐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불법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조직폭력배 집단을 와해시키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야간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입학해 2년째 보육교사 2급, 사회 복지사 2급 등 공부를 하면서 '진작 알았더라면 더 많은 아이들을 감싸 안아 정상궤도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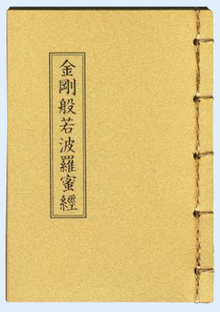
2005년 그가 고안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스쿨폴리스(학교지킴이) 제도'와 '사랑의 경찰교사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가 그것이다. 그동안의 경찰 생활에서 공부해온 것들을 잘 다듬어 위기청소년을 선도하고, 전과자의 재사회화, 학부모 교육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고 경감은 "청소년에게는 충고보다 칭찬받는 법, 슬기롭게 부처님법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직폭력배는 우리 사회에 없어져야 할 존재이긴 하지만 머리에 뿔이 난 외계인은 아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족, 이웃, 친구일 것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다. 불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 별명이 저승사자인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저승사자는 죽을 사람을 데리고 가지만, 재량권이 있어서 할 일이 남은 사람은 좀 있다가 데려간다고 하더라. 나도 그런 저승사자라면 좋겠다."

실제로 그가 선도한 어느 전과자는 18년간 복역한 후 교도소에서 수계를 받고, 불교에 입문해 스님이 돼 지금까지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부처님 전에 잘못한 일들을 참회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사회의 낮은 곳, 어두운 이들을 불법으로 이끄는 고행섭 경감이야말로 우리시대 호법신장이다.

글=박지원 기자hdbp@hanmail.net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몽납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화엄사 전강원 입재식 봉행


1월 12일 열린 화엄학당 각성 스님 전강원 입재식.

화엄사(회주 각성)는 1월 12일 오후 3시 '화엄학당 각성 스님 전강원' 입재식을 봉행했다.

전강원은 회주 각성 스님을 전강법사로 해 <능엄경> <유식삼십송>을 주교재로, 서울 옥수동복지관에서 월 1회 강독하고, 2010년 1월 12일 회향식을 갖는다. 참가자격은 법랍 20년 이상의 강사스님으로, 수료 후 논문을 제출해야 전강 받을 수 있다.

입재식에서 각성 스님은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고 또 해도 새롭고 기쁜 것"이라며 "1~2년간 이어질 긴 여정인 만큼 인내를 갖고 모두가 회향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절에서 6일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통도사 '어린이 한문 · 예절교실'서 배운 예절 실생활 적용도 '최고'

"서예는 뭐라고 했죠?(차남일, 서예 강사)" "점과 선의 예술이에요!(김경모, 중남초5)" 중학교 미술 시간에나 나올법한 진지한 대화가 오간다. 하지만 이곳은 교실이 아닌 법당, 교과서가 필요 없는 실습을 통해, 화선지에 마음을 담아내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의 배움의 열기로 뜨겁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 템플스테이 전용관에서 1월 12~17일 '어린이 한문 · 예절교실'이 5박6일 일정으로 열렸다. 1차 1월 5~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양산, 울산 및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초등학교 3~6학년 남녀 어린이 33명이 참가했다.

5박6일의 모든 일정은 냉난방시설 및 법당, 세면장, 화장실, 샤워시설 등 템플스테이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템플스테이 전용관에서 이뤄졌다.

첫째 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5박6일간 함께할 도반들과 인사한 뒤 수학복으로 갈아입고, 다소 생소한 사찰 예절과 처음 만났다.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예불, 108배, 참선, 발우공양, 도량 운력, 한문 · 예절 · 서예 교실, 전통문화 체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예절 교육의 경우, 혼례와 상례, 제례와 다례 등에 맞는 절하는 방법과 박물관이나 전시관, 음악회에서 지켜야할 예절, 집안에서 정리정돈하고 청소, 식사하는 예절법,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등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 호응도가 높았다.

이번 템플스테이 생활지도를 맡은 연수과장 혜법 스님은 "기존의 1박2일 템플스테이는 가벼운 사찰문화 체험 정도에 그쳤다면, 5박6일은 절에서 배운 예절들이 몸에 배기에 충분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달라진 아이들의 태도에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 전원이 실제 어린이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강사들로 구성돼,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따라 맞춤 지도가 가능해 교육효과가 더 높았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기자



통도사 '어린이 한문 · 예절 교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은 1월 12~17일 열린 템플스테이에서 진행된 한문교실(위)과 서예교실(아래)의 모습.

"여성불교중흥 원년 삼아 노력"

부산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3주년

부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영숙)은 1월 15일 오전 11시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설동근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서울본원장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치사, 격려사, 축사, 감사패 전달 및 제2회 자랑스러운 불자상 시상, 법어, 소원촛불 점등 및 새해희망 발원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영숙 부산지원장은 기념사에서 "올해가 부산불교중흥 원년인 만큼 불교여성개발원도 동참해 여성 불교중흥의 원년으로 삼아 수행과 정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심 깊은 선여인들을 대하니 불교의 앞날이 만장등처럼 밝다"며 "3년의 짧은 역사지만 오직 신심을 근간으로 했기에 여성 인재가 모이는 전당으로 발전할 수 있었듯 앞으로 한국불교를 이끄는 신행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의 2009년 사업계획으로 △여성 리더십 교육 및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 불교 여성활동과 사회참여도 증대 △정기월례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성지순례의 활성화 및 법문, 교리, 교양, 문화순례 등 강좌 강화 △여성일자리 창출, 인격교육, 다문화가족 여성지원, 여성참여활동 증대 등 총 13개 사업을 발표했다.

박지원 기자



1월 15일 부산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3주년 기념법회가 열렸다.

독거노인에게 사랑을…

범어사 나눔 실천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청룡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범어사 사랑의 손길' 행사를 개최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지역복지 행사는 범어사가 위치한 청룡동 일대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고 이웃간의 따뜻한 정과 향토애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기초수급자 100세대에 20kg들이 쌀 1포씩 지원해 청룡노포동사무소 60포, 남산동사무소 40포를 각각 전달했다.

정여 스님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며 서로 돕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범어사는 2006년 2월부터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20세대를 선정해, 야쿠르트와 함께 매일 아침 문안 및 안부를 묻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변고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처해 지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관내 거주 기초수급자 100세대에 쌀을 전달했다.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영축사 회주 · 해운대불교회관 부산포교원장 각문 스님

"불교·문화 접목 신행으로 불법 실천"

"부처님 인연법으로 절에서 나고 자랐으니, 이제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회향해야지요. 하루 빨리 더 많은 대중을 만나고 싶어서 도심으로 왔습니다."

울주 영축사 회주 각문 스님(사진)이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영축사 부산포교원 해운대불교회관을 열고 부산 불자들을 찾아왔다. 스님을 뵙기로 한 날도 울주와 부산을 오가며 해운대불교회관 개원식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앞으로 산세가 영험한 울주 영축사는 기도 수행도량이, 부산포교원은 마음공부를 하는 포교의 도량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해운대불교회관이 위치한 해운대구 중1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개원식 전임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듣고 불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각문 스님은 이곳이 영축사처럼 시가지를 벗어난 산사가 아닌 도심 속 포교당이기 때문에 요일별로 다양한 신행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월요일 합창반, 화요일 서예 · 사군자 · 사경, 수요일 꽃꽂이반, 목요일 교리경전반과 합창, 금요일 다도반 등 날마다 다른 신행활동으로 새로운 즐거움이 있기에 해운대불교회관에는 일주일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게을리하지도 않는다. 매일 새벽 5시 예불을 시작으로 오전 9~11시 참선정진, 이후 사시기도 법회 및 기본교리강좌 등으로 공부 열기 또한 뜨겁다.



스님은 "꼭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교에 문화를 접목한 신행활동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문 스님은 현재 비영리 단체인 영축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울주 영축사 내 본부를 두고, 울산과 부산에 각각 사무소가 있다. 매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고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한국 문화 체험 답사기행,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스님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남방불교국가에서 온 사람들인데 한국에 와서는 참배를 하고 스님을 뵙고 싶어도 낯설고 두려워 찾아오질 않는다"며 "이들이 불법 안에서 한국에 빨리 적응하고 고향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특정 봉사단체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축사 부산포교원 해운대불교회관은 3월 중순 개원식을 앞두고, 신도들과 함께 스리랑카 성지순례에 나선다. 각문 스님은 "특히 이번 성지순례에는 10년에 단 하루만 개방한다는 스리랑카 국보1호 불치사의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으니 평생에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이니만큼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현지 개교 학교를 방문해 축하인사와 함께 학용품 등을 전달해 보다 의미 있는 순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많은 이들이 불법을 만나게 하기 위해 도심으로 내려온 각문 스님의 애창곡은 판소리 '사철가'다. 어려운 법문 중 신도들이 어려워할 때면 이 '사철가' 한 소절을 신명나게 불러주며 그 속에 진리를 담아 깨우쳐주는 스님이야말로 우리 시대 부루나존자임에 틀림없다.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시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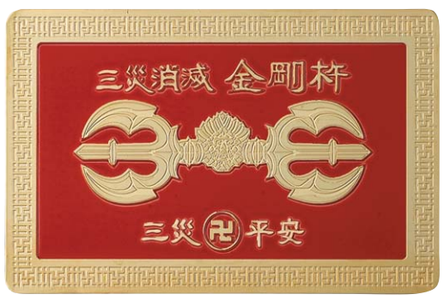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8년 동지달부터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적색글씨에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해당되는 분은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악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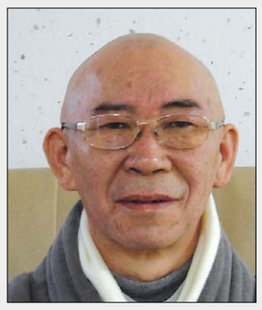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태고종 위상 격상·화합 최선"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종무원장 호산 스님



"태고종 위상을 높이고 종도 간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월 19일 개원식을 열고 새롭게 출발한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종무원장 호산 스님(사진)의 취임일성이다. 개원식과 함께 임기 4년 종무원장직도 시작됐다.

호산 스님은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다"며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종무원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의 종무행정 키워드는 상생과 자비다. 호산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인재육성에 힘쓰겠다"며 자비의 쌀 모금을 통한 장학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어 스님은 "종무원 재정투명화와 함께 솔선수범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종무원이 되도록 전 소임스님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종무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산 스님은 종무원이 안정되는대로 교육원을 개설할 생각이다. 스님은 "승가교육에 중점을 두고 등록사찰의 어려움을 항상 살피는 종무원이 되겠다"며 소속 사찰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스피스 병동에 퍼지는 다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화순병원 茶 공양



1월 14일 전남대 화순병원에서 차 공양 중인 한마음선원 신도들.

매주 수요일이면 전남대 화순병원(병원장 범희승)은 차향으로 가득 찬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등 지역불교계가 펼치는 빛고을 광주만의 차봉사 프로그램 때문.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에 3년째 진행 중인 차봉사 프로그램은 광주지역의 사찰과 불교단체(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증심사, 원각사, 자비신행회)가 동참해 왔다.

1월 14일, 병원 로비와 호스피스 병동 중심의 전통차 잔치에는 환자와 환우가족은 물론 병원 관계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찻잔을 기울이며 차향으로 온몸을 적셨다.

병원 관계자는 "녹차, 황차 등 전통차 뿐 아니라 떡, 다식 등이 장식 꽃과 어우러져 환자에게 큰 위안을 준다"고 말했다.

인생의 마지막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완화병동)에서 진행하는 차봉사는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이영순(59 · 함평)씨는 췌장암으로 6개월째 투병 중인 며느리 간호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씨는 "하루 종일 말기암 환자 병간호에 지치지만 차봉사가 있는 날이면 잠시나마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차 마시는 사람만큼 봉사자도 행복하긴 마찬가지. 매월 한차례 차봉사에 동참중인 박해소(한마음선원 광주지원)씨는 "환자, 환우가족, 의료진들 모두 오랜 병원생활에 지쳐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차봉사에는 박씨 외에도 매주 7~10명의 차봉사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올해는 호남불교 중흥의 해"

광주 직능·포교·신행단체 전법 다짐

새해를 맞아 광주지역 직능 · 포교 · 신행단체들이 호남불교의 중흥을 서원하며 힘찬 정진을 시작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백남용, 이하 포교사단)은 1월 18일 '신년 법회 및 광주전남 포교사의 날'을 시작으로 올 한해 업무를 시작했다.

장송기 사무국장은 "포교사단의 2009년 주요업무는 교육, 포교, 조직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라 말했다. 포교원이 주력할 3개분야 가운데 교육 분야는 예비포교사 교육을 비롯해 팀별 교육과 정기 교육, 지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포교 분야는 빛고을연등축제, 팀별 포교활동 활성화, 개인 포교 활동의 정례화, 사회실천운동 등을 조직적으로 진행한다. 조직분야는 2009년 전국 지도자연수 참석을 비롯해 포교사단 출범 8주년 행사 참석, 팀 활동 활성화 지원, 대외 홍보, 운영위원 회의 및 임시 총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2008년 전국연합캠프를 화순에서 성공적으로 회향했던 **파라미타 광주지부(지부장 도제)**는 2009년을 조직확대와 호남 청소년 포교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동배 사무국장은 "호남지역 간부수련회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중 · 고등학교에 5~10개의 분회를 건설하고 불자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청소년 음악축제로 자리 잡은 '파라미타 음악놀이경연대회'를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제6회를 맞은 대회는 2008년 30여개팀 공연을 1000여 시민들이 관람했다.

광주광역시청 불자회(회장 김상호)는 2009년 신임회장 선출과 함께 회원들의 법회 참여 확대에 나선다. 이은 총무는 "올 해 중요행사로 산사체험, 사찰순례 등 특별행사와 매월 정기법회의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포교의 맏형격인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이순규, 이하 교육원)**도 2009년 신년계획을 통해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효 간사는 "작년 1기에 이어 성보해설사 2기 양성과정을 개설한다"며 "특히 작년 수료자는 전남지역 4개 교구본사(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주지 명의로 임명장이 수여되는 것은 물론 각 전통사찰에 배치돼 답사프로그램의 안내자로 불교를 쉽게 알리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료자 가운데 일부는 광주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에 힘입어 지원금도 받게 된다.

교육원은 어린이 역사문화탐방과 호남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유적답사 프로그램인 '불교문화유적답사'를 76회부터 안동 봉정사를 시작으로 진행한다.

전라남도청 불자회(회장 홍석태)는 2월 5일 신년하례법회를 통해 2009년 계획을 시작한다. 법회에는 4개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남도내 공무원 불자 등 사무대중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매월 정기법회와 수련회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2008년 초 창립된 **광주지방경찰청 불자회(회장 고재엽)**는 정기법회(매주 세 번째 목요일) 활성화와 경찰청내 마련된 법당에서 지속적인 기도와 초청법회를 진행한다. 특히 봄 · 가을에 테마가 있는 산사탐방과 주말을 이용한 1080배, 일만염불 등 특별정진법회도 봉행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공무원 불자회중 가장 활성화된 **동구청 불자회(회장 박종열)**는 2009년을 경전공부에 정진하는 한 해로 만들 계획이다.

노기욱 총무는 "월 1회 정기법회와 함께 경전공부에 매진할 것"이라며 "부처님 법을 바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총무는 "1월 21일 신년하례법회와 수련회, 산사순례를 개최할 것"이라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도 불교인구 감소 중…

가톨릭 성장세, 불교 무주군서 강세

전북도의 불교인수가 감소 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불교, 개신교, 가톨릭 3대 종교 가운데 10년 동안 도내에서 가장 성장한 종교는 가톨릭이며, 개신교와 불교 신도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교는 무주군, 개신교는 군산시, 가톨릭은 전주시에서 강세를 보였다.

2005년말 기준 도내 전체 인구는 177만 8000명. 이 가운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5만여 명(53.47%)으로 10명 중 5명은 종교를 갖고 있다.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10명 가운데 개신교인은 5명, 불교 2명, 가톨릭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 · 군별 조사에서는 무주군이 종교인구 중 50.1%가 불교를 믿는다고 응답, 불교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개신교는 군산시에서 강세였다. 군산시 종교인구 중 57.52%가 개신교를 믿는다고 응답해 14개 기초단체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개신교 인구에 비해 교회수가 많은 곳은 순창으로, 개신교 인구 47명당 1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종교인구 가운데 27.59%가 천주교를 믿는다고 응답해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다.

도내 불교 인구는 1995년 25.74%에서 2005년 23.9%로 감소했다. 개신교도 1995년 55.67%에서 2005년 49.15%로 불교와 같은 폭으로 신자수가 줄었다. 반면 가톨릭은 12.62%에서 21.34%로, 지난 10년간 신자수가 2배 가까이(8.72%) 증가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접한 전북지역 불교계 관계자들은 지역별 · 계층별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포교전략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前 전북포교사단장 · 군산 관음사가족법회 성광문 회장

"지장보살 원력 실천하려 노력해요"

"어제 즐겁고 좋은 하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만 저에게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성광문 거사(前 전북포교사단장 · 사진)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 20여 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눈 뜸과 동시에 지장보살님 전에 예경과 108배, 30분간 지장정근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성 거사는 하루마무리도 지장정근으로 한다.



"새벽에 일찍 '지장보살'을 염하면 하루 종일 정근이 이어지는 듯합니다. 새벽 정근할 때면 하루의 서원을 함께 담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광문 거사는 부처님 법을 만난 후 경전과 스님 법문을 들으며 불교 공부를 했다. 지옥중생을 하나도 남김 없이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대원(大願)에 매료됐다. "나도 그런 실천을 하리라"는 발원을 한 성 거사는 군산지역 불자들과 함께 신행단체 '지장회'를 만들었다.

지장회 초대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거사는 재곤 스님(군산 관음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웃에 대한 봉사,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인욕 등 육바라밀 실천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다.

성광문 거사는 이후 타인을 위한 봉사를 통해 수행하겠다는 발원을 구체화했다. 1995년부터는 군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재소자 교화활동에 나섰다. 교도소 남사 법당에 음향시설 및 비디오 시설을 갖춰줬다. 여사법당은 성 거사가 불사를 추진해 조성하기도 했다.

성광문 거사의 자비실천은 교도소에 그치지 않았다. 매년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고 여름이면 선풍기 30대를 군산시에 보시하고 겨울에는 50여 연탄난방 세대에 연탄 200장씩을 보시하는 등 성 거사의 자비실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또 성광문 거사가 운영하는 아주실업 직원 가운데 20여 명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 고용했다. 신규 인력이 필요할 때도 장애인을 우선 채용해 장애인 복지에도 힘쓰는 등 장애인들에게 새 희망을 줘왔다.

1994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군산역 앞에서 소일하는 어르신들과 노숙자들을 위해 경로식당을 열고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2008년 군산지역 거주 새터민 4쌍이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못하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성 거사는 이들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접 주례를 맡기도 했다.

성광문 거사는 불교의 불모지라 일컫는 군산지역에서 전북포교사단장, 청년회장, 신도연합회장 소임을 맡아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이끌며 군산불교회관이 개관하는데도 많은 공헌을 했다.

최근 성 거사는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게' 열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살피는 성광문 거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그들의 아픔을 지장보살의 자비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베트남, 중국(한족) 아가씨와 농어촌 짝지어 주기 운동 (초혼 · 재혼)

삼보에 귀의하옵고
本 佛院 慈悲會에서는 多文化 家庭을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실비로써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께서 同參하여 주신데 感謝를 드리며 앞날에도 慈悲로써 편달 바랍니다. 베트남 아가씨들과 인연을 맺어 왔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중국(한족)과 인연을 맺어보니 대과없이 여러 쌍의 혼사를 치루어 아들딸 낳고 우리말을 열심히 배우며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한동안은 중국 조선족과 우리말이 통하니까 결혼을 하고 보니 불미스러운 이혼, 도주 등이 난무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도주 이혼 후 한국말을 잘하니까 식당 같은 곳에 취직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
- 현 실정이 중국 국가는 부자라도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엄청나게 격차가 심하여 농촌에 살기가 몹시 빈곤하므로 농촌 중국한족 아가씨들이 타국으로 결혼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베트남 관음사 사찰과 자매결연

① 실비 총 비용 - 350만원 (완납금 – 완전실비 제공)
② 중국 들어갈 때 - 200만원
③ 중국 갔다 와서 - 150만원
④ 베트남 - 총 비용 1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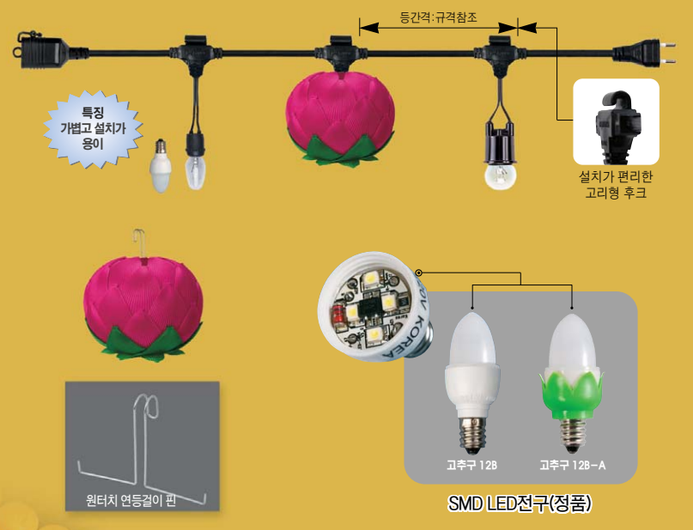
항공료, 호텔료, 서류작성 일체, 신부 한국입국 모든 일체

◆ 담 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1-494-9595 / 전화 032)886-1661

海 成 佛 院 慈 悲 會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인터뷰 – '제2의 현각' 태고종 대일 스님

"미국인들에게 불법 널리 전하고파"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일본의 선과 티베트불교만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불교가 일본과 중국, 나아가 전 세계 불교에 영향을 주고 있는 중심입니다."

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 태고종 비구스님이 된 대일 스님(속명 데이비드 주니치 · 38 · 사진)은 한국불교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대일 스님은 텍사스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계 일원으로 기독교적 전통 속에서 자랐으나, 어렸을 적 태권도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게 됐다.

대일 스님은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것이 내 길은 아님을 깨달았다"며 "대학원에서도 불교와 기독교를 공부했지만 불교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2001년 한국을 찾아 능인선원, 조계사를 방문하는 등 한국불교와 인연을 맺어 오다가, 2005년 법현 스님(태고종 교류협력실장)을 계사로 '대일(大日)'이라는 법명과 사미계를 받고 2008년 수진 스님(선암사 율원장 · 담양 용화사 주지)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 받았다.

대일 스님은 "한국불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며 "한국에서 계를 받고 직접 수행을 경험해 본 결과 한국과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버지니아 커먼웰스대에서 영문학 석사를 받은 후, 하버드대 신학대학원에서 '불교와 기독교 간의 대화'를 주제로 석사 학위를 받아 '제2의 현각'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일 스님은 "현각 스님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훌륭한 스님"이라며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 부처님 법을 전하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일 스님은 미국 텍사스에서 시한부 환자들을 임종 간호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간화선 수행에 전념 하고, '불교와 심리학'에 초점을 맞춘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등 불교 공부에도 여념이 없다. 요가센터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말기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법회를 진행하는 등 불법을 전하기 위한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어렸을적 태권도 배우며 자연스럽게 불교 접해
명상 지도 · 가족법회 진행 불법 전하기 활동

"한국은 태권도, 한국전쟁 등으로 미국 문화와 역사에 큰 역할을 해 왔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텍사스에 태고종 사찰을 건립해 미국인들과 함께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이를 널리 홍포하고 싶다"는 대일 스님의 원력이 미국 전역에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

김진성 기자

해외교류·경제위기 '화두'

각 종단 신년 주요 종책사업

각 종단이 신년하례법회 및 시무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009년 종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고종은 교육 · 문화 등을, 천태종은 조사 헌창 등을, 진각종은 전승원 활용방안 등을, 관음종은 포교 · 해외교류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정하고 경제위기로 시름에 빠진 시민들에게 희망과 안심을 주기 위한 종무행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교육 · 문화 · 해외교류 사업 등의 저변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구 · 사찰 단위별 평생교육제도를 정립하고, 동방불교대학 중앙승가전문강원 등을 통해 종도 자질 향상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국토순례대장정 '호국영령 천도 영산대재' '불교를 빛낼 숨은 명인 발굴' 등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많은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해외 사업도 활발히 펼칠 전망이다. 한 · 중 불교문화교류협정에 따른 양국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공연 등을 통해 영산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화현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승려 · 전법사 연수교육에 힘쓰고, 선 · 강 · 율원 등 수행 공간 재정비를 통한 선암사 성역화 작업에 착수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사회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종단 내실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이 되는 2011년을 앞두고 대조사의 일대기와 어록, 법어집을 준비하는 등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구인사 박물관 · 광명당 불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밀교문화컨텐츠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세계 불교경서를 수집 · 전시하는 등 진각문화전승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전승원 내에는 국내외 불자들이 불교와 보다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밀교 수행 체험 공간도 마련한다.

새로운 포교 · 문화 행사 등도 개최한다. 종도들의 교화활성화와 신교도 교육을 위한 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종단 교학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또 폐사지의 문화적 가치와 보존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폐사지 투어콘서트를 개최하고, 종립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불교교과서 검 · 인정 출판으로 학교현장에서 새로운 교화의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포교 · 해외교류에 중점을 두고 종무행정을 진행한다. 4월 말 봉행위원회를 구성해 내실있는 연등축제를 기획하고, '생전 예수재 및 수륙영산 대재' '군 수계법회' 등 다양한 법회로 포교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동포 한국불교 전통문화체험(8월 예정) 인도성지순례(12월 예정) 등의 해외교류도 준비하고 있다.

총지종(통리원장 원송)은 제3회 국제재가불자대회를 개최해 국제재가불자 네트워크 구성을 확고히 하고, 포교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규집 정비, 종단의식 통일 사업, 총지불교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종단법규 및 교육체계를 확립한다. 또 중앙신정회를 정비하고 각 사원 및 교구 신정회를 활성화해 포교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소득 · 사회소외 계층 지원을 활성화 하고 종단 노인요양시설을 완공하는 등 사회복지활동도 증대한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혼란 수습하고 실추된 종단 위상 회복하자"

태고종 종정 친견 신년하례법회 봉행



1월 25일 순천 선암사에서 봉행된 태고종 종정 친견 신년하례법회.

"지난해 겪었던 혼란을 하루 빨리 수습하고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하길 바란다."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1월 15일 봉행된 '종정 친견 신년하례법회'에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종도들에게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남전열반경>에는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지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법(진리)을 등불 삼고 법에 의지할 것이지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나온다"며 "이 설법만 가슴에 새겨 잘 실천한다면 분명 새해에는 정토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 종단의 화두는 종단 안정과 종도화합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음을 비우고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야심경 봉독 △축원 △종정 · 원로스님 신년하례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는 총무원장 운산스님, 승정원장 남파 스님, 사정원장 월운 스님, 중앙종회의장 인공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김진성 기자

"간다라 유적복원 확답 받았다"

천태종 운덕 대종사 파키스탄 대통령 만나



운덕 대종사(왼쪽 세번째)는 파키스탄 자르다리 대통령(왼쪽 네번째)을 만나 간다라 불교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무산 위기에 처했던 간다라유적 사업 등 한국과 파키스탄의 불교문화교류에 물꼬가 트였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 운덕 대종사는 구랍 15~23일 파키스탄 대통령궁을 방문, 자르디리 대통령을 만나 양국 문화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탁실라불교대학 설립을 포함한 간다라유적 복원 등에 대한 확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운덕 스님은 무샤라프 前 대통령 재임시절에도 대통령궁을 방문해 간다라유적 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무샤라프 前 대통령이 정권에서 물러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운덕 스님은 "자르다리 대통령을 만나 간다라 불교유적의 중요성을 밝히고, 복원이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며 "대통령이 간다라 유적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해 정부가 적극 주도할 경우 한 · 중 · 일 삼국이 복원 · 관광 · 교류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조언 했다"고 설명했다.

운덕 스님은 이번 파키스탄 방문 기간 중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무샤라프 前 대통령도 만나 협조를 재약속 받았다.

현재 이 사업은 간다라예술문화협회장이 수도 인근 신개발 위성도시 예정지에 3만평 규모의 탁실라대학 복원 예정 부지를 기증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덕 스님은 "간다라 유적이 복원되면 한국과 파키스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다라 유적은 대승불교권은 물론 전 세계 불교인들의 성지인 만큼 파키스탄 정부와 불교권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초대종정 정관 스님 취임



1월 15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봉행된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 취임법회.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은 1월 15일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초대종정 정관 스님 취임 및 국가와 민족 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서 종정으로 추대된 정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발전과 화합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그동안 종단발전에 힘써 온 종단임원 및 신도의 감사장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수요일반 개강 : 1월 21일, 28일 오후 1시 •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 책임 교육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9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승이 지면으로 나마 합장하고 큰절을 올립니다. 이제 최면교육은 유마최면 연구소라는 명성이 스님들 사이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더욱 분발하여 책임교육·평생교육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승은 초심을 잃지 않고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자기 최면 완성반 회원모집 ★ ▶ 수련기간 : 20회, 인원 10명
개인 맞춤식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지도! 무의식에서 삼생의 時, 空을 넘나 드십시오!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양자강을 한입에 마셔?

오늘의 禪語 ㊽ 일구흡진 서강수

선의 황금시대는 당(唐) 후반에서 송대(宋代)까지로 약 300년 간이었습니다. 특히 당말에서 송초까지는 선이 한창 꽃을 피우던 시기로 내로라하는 선승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이 시대 중국 선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관념의 벽 · 마음의 문 열면 진리에 합치
'일즉다 다즉일' '사사무애관'과 통하는 가르침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과 석두희천(石頭希遷, 700~790) 선사였습니다.

양자강을 중심으로 마조 선사는 강 서쪽에 있었고 석두 선사는 강 남쪽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선승이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참선자들은 강서와 강남을 오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는 말처럼 훗날 그들의 문하가 중국 선을 쥐락펴락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시 또 방 거사(龐居士, 龐蘊 · ?~808)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이 아닌 거사의 신분이었지만 깨달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명한 선승들과 비교해도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방 거사가 깨닫기 전 어느 날 석두 화상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선사, 만법과 더불어서 짝하지 않는 존재는 무엇입니까(不與萬法爲侶者 是甚麽)?"

그러자 석두 스님은 손으로 얼른 방 거사의 입을 막았습니다. 선의 진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방 거사는 확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강서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던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사,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마조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일구흡진서강수(一口吸盡西江水)"

이 말에 방 거사는 또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일구흡진 서강수'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집어넣다'는 뜻으로서, 만일 그대가 한 입에 양자강의 물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면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강(西江)은 양자강입니다.

아무리 입이 큰 사람이라고 해도 주먹 하나 정도 이상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자강은 커녕 개울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입에 그 많은 물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관념의 벽을 무너뜨리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자들은 많은 책을 읽습니다. 보통 5000권 이상 가지고 있는데 다 읽은 책도 있고 서문과 목차만 읽은 책도 있습니다. 책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많은 책이 어떻게 머리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설사 목차만 읽는다고 해도 양적(量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점만 기억해 둔다면 5000권이 아니라 만권도 가능합니다.

양자강의 물을 정말 한 입에 다 마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는 석두(石頭)입니다. 물리적으로 한 바가지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념의 벽을 무너뜨리면 양자강 물은 딱 한 컵이면 족합니다. 한 컵만 마시면 양자강의 물은 다 마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불교어 중에는 '작은 겨자씨 속에 우주를 다 집어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겨자씨 속에 우주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잘 아는 <화엄경>에는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一卽多), 모든 것이 곧 하나(多卽一)다" 그리고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다(一切唯心造)"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엄경>의 이 말과 같이 하나 속에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다면, 한 입에 양자강 물을 다 넣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면 온 천하도 내 손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획심술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잡으면 그 사람을 갖는다고 합니다.

관념의 벽,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커다란 우주도 내 것이 됩니다. 원수도 용서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거나 관념의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작은 겨자씨 하나도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원수는커녕 약간의 불쾌한 말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용심(用心) 여하에 따라서 이 세상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는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일구흡진 서강수'는 화엄사상의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하나는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곧 하나이다)' 그리고 '사사무애관(事事無碍觀, 사물과 사물 간에도 걸림이 없다)'과 '일체유심조'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양자강의 물을 한 입에 다 집어 넣어도 양자강의 물이 줄어들지 말아야 하고, 또 입이 터진다거나 배가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심(有心)으로 마시면 배가 터지고 강물은 바닥이 나게 될 것이고 무심으로 마시면 물도 배도 모두 그대로일 것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2009 공경캠페인

모두 부처님처럼 섬기면 진정한 보살행 시작돼

최근 조계종 중진스님이 노스님을 폭행하고 강원에서는 치문반 학인스님이 상급반 스님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승풍실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또 극한 대치와 폭력으로 얼룩진 입법전쟁은 국민의 가슴까지 멍들게 했다. 나라밖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해 무고한 시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전쟁은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는 나라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떨어져 우리 마음속에 잠복돼 있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빈 그릇도 차면 무거워진다. 아만은 겸손이란 그릇이 채워지지 않음에서 오고, 경멸은 공경의 이삭이 여물지 않은 데서 온다.

겸허한 자는 자기의 지혜와 덕을 알아 모든 이를 수순할 수 있으므로 꾸미지 않은 겸손한 자세가 몸에서부터 나타나 타인으로부터 신의를 얻게 된다. 또 존재에 대한 감사와 남의 인격을 나의 인격처럼 존중하고, 모든 중생을 부처님 섬기듯 공경심을 갖고 대함으로써 진정한 보살행이 시작된다. 공경과 보살행은 남보다 나은 내가 아니라, 상대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데서 시작된다.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스스로를 낮추고 마음에 빈자리를 남겨 놓아 여유를 가짐으로써 겸허의 인의(仁義)를 생활에서 몸소 실천해 보자.

#부처님이 뼈 무더기에 예배한 까닭은?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삼계(三界)의 거룩한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어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공경하옵거늘 어찌하여 마른 뼈에 예배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마른 뼈 한 무더기는 어쩌면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생을 거치는 동안의 어버이일 것이므로 예배하는 것이다." <부모은중경>

#진리 알면 어떤 견해와도 충돌하지 않아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며 말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대가 아무리 말싸움을 걸어와도 그대를 상대해 줄 사람은 여기에 없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견해를 고집하면서 싸우고 있다. 스스로 '진리를 아는 자'라 자칭하며, 각기 다른 견해를 품고서 "너는 어리석은 자다.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구의 말이 과연 진실한 말인가.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고 상대방의 견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야말로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가 아니겠는가. 만일 상대방이 자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말한 사람 자신도 상대와 함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신을 '진리를 아는 자'라 칭한다면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는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숫타니파타>

지구촌 각종 분쟁 마음속 탐진치로 세상 보기 때문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는데서 공경심 생겨나

#은혜를 몰라 서로 원수같이 대하고

세간의 중생들은 보은할 줄을 모르고 다시 서로 원수같이 대하며, 사견에 집착하여 미혹 · 전도하며, 어리석고 슬기롭지 못해서 신심이 없고 악우를 따르며, 여러 분별심을 일으켜 무명을 탐하는 까닭에 갖가지 번뇌가 다 찰대로 차게 되는 것이다. 온갖 중생은 모두 이같이 열 가지 번뇌에 의해 갖가지 악을 안 짓는 것 없이 짓고 있는 것이니, 그러기에 각기 서로 공경하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지 않으며, 서로 따르지 않으며, 서로 겸손하지 않으며, 서로 이끌지 않으며, 서로 아껴주지 않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 서로 살해까지 해 상호간에 원수가 되어있다. <화엄경>

#욕하고 비방하고 때려도 노하지 않으며

"만약 어떤 사람이 욕하고 비방하며, 몽둥이로 때리고 살을 도려내어 그 몸을 괴롭게 하여 목숨이 끊어지기에 이른대도, 이 일 때문에 어지러운 마음이나 노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뜻이 물러서지 않아 대비홍서(大悲弘誓)를 더욱 강화해서 휴식이 없어야 한다." <화엄경>

"사람이 있어서 칼을 들고 노하여 여래(如來)를 해하려 한 대도, 여래께서는 기쁜 마음을 잃지 않으사 노하심이 없으시다." <열반경>

#억울함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고, 그는 내 것을 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법구경>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보왕삼매론>

#겸손으로 살피고 공경으로 존중하라

"사람들이 바라는 것에는 무릇 세 가지가 있으니, 건강 · 안온 · 장수가 그것이다. 이를 성취하는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부처님께 귀명하고, 법에 귀명하고, 승에 귀명하는 일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으로써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고 공경성으로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십이인연경>

#보살은 자신 낮추고 은혜 베푼다

"보살은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되 겸손과 공경으로 스승을 따르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터득하여 보존케 한다." <수호국계주경>

#진리 생각하는 마음으로 중생 보호하라

"성내고 해치려는 생각을 없애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라. 연민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돌아보고 자비로운 생각으로 눈물을 흘려라.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닦고 익혀 스스로가 얻은 것처럼 기뻐하라.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보호하면 그게 바로 보살의 행이니라." <현우경> 이상언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大韓佛敎 曹洞宗 任員公告

宗 正 : 智明. 德瓚　　僧正院長 : 怛帝. 德周
總務院長 : 大隱. 德牛　中央監察院長 : 德性. 行性　中央宗會議長 : 海倫. 行峰

中央敎育院長 : 光 慧	忠北宗務院長 : 日 長	僧正委員 : 圓 峰	監察部長 : 慧 明
中央護法院長 : 慧 泉	忠南宗務院長 : 法 空	僧正委員 : 法 空	布敎部長 : 素 圓
中央布敎院長 : 優 潭	嶺東宗務院長 : 慧 空	僧正委員 : 慧 空	文化部長 : 月 峰
禪 院 長 : 眞 一	慶南西宗務院長 : 法 光	僧正委員 : 淸 潭	總務局長 : 惺 云
中央律院長 : 雲 潭	慶南中宗務院長 : 慧 山	副 院 長 : 眞 法	敎務局長 : 月 光
中央宗會副議長 : 雲 性	嶺南宗務院長 : 淸 潭	總務部長 : 古 牛	財務局長 : 淸 淨
中央宗會副議長 : 知 遠	慶北宗務院長 : 雲 鶴	財務部長 : 法 蓮	社會局長 : 圓 光
서울宗務院長 :	南海宗務院長 : 淸 雲	敎務部長 : 海 權	糾正局長 : 松 潭
京畿宗務院長 : 法 空	釜山宗務院長 : 道 一	糾正部長 : 道 弘	文化局長 : 平 潭
江原宗務院長 : 慧 覺	僧正副院長 : 心 明	社會部長 : 慧 山	監察局長 : 道 賢

불기 2553년(2009년) 1월

바로 잡습니다
현대불교신문 (714호) 6면 대한불교조동종 임원공고 문안에서 승정원장 恒帝를 怛帝로 바로 잡습니다.

출강 및 통신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8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제18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제주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9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사무국(우편 · 팩스 접수가능)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부처님 마음 알고 법 설해야 깨달아”



일오 스님(태안사 선원장)

‘내’가 없음을 바로 알고 보는 것이 정견
청정한 마음 쓰기 위해 정진해야

동리산 태안사로 가는 숲길은 적막하였다. 포장되지 않은 숲길은 자연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계곡을 타고 흐르는 낮은 물소리는 동리산의 얕은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세월의 흔적인 듯 푸른 이끼를 이고 있는 정심교(情心橋), 반야교(般若橋), 해탈교(解脫橋)를 지나면 마음은 알 수 없는 고요함으로 가득 찬다. 세 개의 다리를 건너 능파각(凌波閣)에 다다르면 ‘이 곳을 건너면서 세속의 번뇌를 던져 버리고 불계에 입문하라’는 글귀와 마주하게 된다. 누각이자 다리인 능파각은 보기 드문 건축 양식이라 눈길을 끌기도 하지만, 능파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예사롭지 않기에 그 곳에서 깊은 심호흡을 하게 된다. ‘능파(凌波)’란 미련도 욕심도 없이 가볍고 우아하게 걷는 걸음걸이’를 뜻한다. 해탈교에서 미처 버리지 못한 탐진치가 있다면 능파각에 내려놓고 가볍게 피안(彼岸)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의미일 듯 싶다.

태안사는 우리나라 선종이 처음 열린 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이며, 적인선사 혜철 스님이 창건하였다. 혜철 스님은 당나라로 건너가 서른 해 가량 그곳에서 공부하였고, 혜능 선사의 법을 이은 지장 선사로부터 심인(心印)을 이어 받았다. 신라로 돌아와서는 태안사에 동리산문을 열고 임제 선풍을 일으켰다. 조선 시대를 거쳐 근대까지 혜철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등을 밝혀왔으나 6.25전쟁으로 대부분의 당우가 불타버렸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청화 큰스님께서 새롭게 중창하여 오늘날의 사격을 갖추게 되었다.

1200년 동안 이어져 온 태안사 법등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있는 일오 스님은 40년 넘게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한 선사이면서도 초기경전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보기 드문 분이다. ‘교외별전 불립문자’라 해서 경전 공부를 도외시하는 선가의 풍토에서 어떻게 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출가하여 2년 넘게 화두를 들었어요. 은사 스님으로부터 ‘초발심자경문’을 배운 것이 전부였는데, 이것만 알고 수행해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화두참선을 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참선해서 깨치면 그만이니 글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경전 공부를 게을리 한 탓이지요. 부처님 말씀을 좀더 깊이 알고 싶어 동국역경원에서 나온 <아함경> 한 질을 구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을 읽어나가면서 너무 감동해서 수건을 옆에 두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읽었는데, 지금도 그때의 감격이 오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신 후 ‘내가 증득한 것을 지금 설해야 할 필요가 없다. 탐욕과 성냄에 패배한 자들은 이 법을 잘 깨닫지 못하리라. 탐욕에 물들고 암흑에 덮여 있는 자들은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범천 사항파티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법을 설하지 않으면 살아 있는 자는 타락하지만 설하면 깨닫는 자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부처님께 권청하였다. 일오 스님은 특히 ‘범권청설’ 대목에서 부처님께서 만약 법문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도리를 어찌 알겠는가 싶어 눈물이 절로 흘러나왔다.

“무아, 연기만 제대로 이해하면 초기 경전과 대승경전과 선어록이 딱 들어맞음을 알 수 있어요.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 그리고 선어록이 표현만 다를 뿐 그 의미는 같습니다. 조사어록 또한 부처님 가르침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초기경전을 꼭 보라고 권합니다.”

일오 스님은 팔만대장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라고 했다. 사성제란 고집멸도(苦集滅道)를 가리키는데, 고(苦)란 생로병사를 비롯하여 세상의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생로병사 속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끝없는 고통 속에 있기에, 부처님은 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출가수행을 하였다. 고의 원인을 말한 것이 집(集)인데, 고의 발생 원인은 갈애(渴愛)로 인한 집착이다. 멸(滅)은 고의 소멸을 말하는데 번뇌의 근원인 집착과 갈애를 여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고를 멸하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였다. 팔정도란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明)·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을 말한다. 초기경전에서는 수행의 덕목을 팔정도로 요약했다면 대승경전에서는 육바라밀이라 했다.

“팔정도의 첫째 덕목이 정견인데, ‘내’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혼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상주론(常住論)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단멸론(斷滅論)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존재에 관한 가르침을 펴신 것이 무아연기(無我緣起)입니다. 연기의 근본은 상견(常見)과 단견(斷見)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두 극단에서 벗어나야 만이 ‘나’라는 존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초기경전에서는 무아(無我)라고 했는데 대승경전에서는 진아(眞我) 또는 ‘주인공’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승경전의 ‘진아’란 ‘깨어있는 순수 의식 다시 말하면 분별을 여읜 청정심’을 가리키기에 부처님 당시 인도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아트만(ātman, 영혼)과는 다른 것이다. 불교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교리 중 하나는 무아 곧 자아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아인데 무슨 윤회가 있으며 ‘나는 누구인지’ 탐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지요. 태어났다고 하지만 조건과 인연에 의해서 잠시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을 태어난 것으로 보지 않으니 불생(不生)입니다. 물에서 물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죽는 것 또한 없으니 불멸입니다. 이처럼 나 자체가 조건 따라 인연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것이니 불생불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가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여기에 집착하여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생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지가지 업을 쌓아서 끝없는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업(業), 업보(業報)라는 말일 것이다. 일오 스님은 “업보라고 하지만 업이 무슨 보물처럼 창고에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업 또한 실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나도 공한 것인데 업이 어디 있겠는가? 대승에서는 본래 부처라고 하여 중생도 부처도 없다고 하는데 선악을 따질 업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란다.

“나도 공하고 업도 공한 것으로 보고 닦아 들어가야 업이 소멸됩니다. 만약 업이 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업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스님의 말씀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다.

‘나’라는 것은 끝없이 변해가고 있기에 그야말로 ‘찰나생 찰나멸(刹那生 刹那滅)’인 것이다.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부처님은 반복해서 가르쳤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찰나생 찰나멸이란 강물은 찰나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지만, 강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다. 만약 밤새도록 타고 있는 등불이 있다면 초저녁에 타는 불과 밤중에 타는 불과 새벽에 타는 불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나의 체질을 알아야 맞는음식.맞는과일.맞는차를 알고 먹어야 내 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든다면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간 얼굴생김새.목소리 체형.살갗을 만져보고 연구노력하여 스스로 터득하여 얻어낸좋은분을 만나서 체질을 알고 병을 고쳐보세요.체질을 알아야 맞는 처방으로 병도 고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연구 · 노력하여 터득한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꾸어지는 행운이열립니다.지금바로 전화주세요!
무료로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특혜를 드립니다
연 락 처 011-9373-3778

“마음 잘 쓰면 곧 성불해”

은 같은 불인가 아닌가? 앞의 불꽃은 사라지고 뒤의 불꽃이 타고 있으니 똑같은 것이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는 중생의 분별심에 의해서 살고 있기에 있는 그대로 보아내지를 못한다. 먹을 때는 먹기만 하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볼 때는 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망상을 하게 된다. 오랫동안 익힌 습 때문에 분별심을 쉽게 버리지 못하기에 수행이 필요하단다. 일오 스님은 순간순간 마음을 관찰하고 챙기는 사띠(Sati, 알아차림)수행을 강조하였다. 용광로에서 금을 뽑아내듯 혹독하게 집중적으로 수행하면 도를 이룰 수 있단다.

일오 스님은 다음과 같은 법문을 들려주셨다.

부처님 당시 ‘바이아’ 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배를 타고 가다 조난을 당하여 어느 마을에 이르렀다. 바이아는 그 마을에 자리를 잡고 걸식을 하였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지라고 생각하였지만 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바이아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떠돌았다. 급기야는 바이아를 두고 아라한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진짜 아라한과를 얻은 어느 수행자가 그를 만나러왔다. 수행자는 아라한이 아니면서 아라한 행세를 하고 있는 바이아를 꾸짖었고, 그제서야 바이아는 부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바이아는 부처님 이야기를 듣고서는 신심이 솟아났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삼일주야(晝夜)를 걸어서 도착하였다. 아침에 대중들과 함께 걸식 나가시는 부처님을 만나 뵙고 간절히 가르침을 구했다.

“바이아, 네가 사물을 볼 때는 보는 것에 집중하라. 소리를 들을 때 듣는 그 마음에 집중하라. 냄새를 맡을 때는 냄새 맡는 그것에만 집중하라. 단지 그것이 마음의 대상임을 알아서 분별하거나 집착하지 마라.”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이아는 그 자리에서 깨쳐 아라한과를 얻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언제 그렇게 수행을 하였는지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에 따라서 깨달음은 찰나이다. 깨달음하고 상관없는 백 마디 게송을 듣는 것보다 한 마디 게송을 듣고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일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볼 때는 봄뿐이요, 들을 때는 들음뿐이요’ 이것이 사띠 수행법”이라면서 <육조단경>의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그 마음만 잘 쓰면 곧 성불한다(菩提自性 本來淸淨 但用此心 直了成佛)는 구절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분별심이 붙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닦을 필요도 없단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 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화두 참선 외에도 방편으로 염불 · 주력 · 기도 등 여러 가지 수행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 한 가지를 정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그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집착을 여의게 되겠지요. 마음이란 것도 연기에 의한 것이지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이란 것도 불꽃과 강물처럼 흐름에 지나지 않아요. 전부 다 조건에 의해서 순간순간 이루어진 것이고, 흐름의 과정으로 한 순간에 있습니다.”

40년 넘게 선방에서 화두참선을 하셨기에 어떻게 하면 화두를 잘 참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순수한 의심이라야 올바른 화두참구를 할 수 있어요. 화두에 큰 의심을 일으켜 나아갈 때는 알음알이로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언설이 끊어져야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 뭣고’입니다. 그러나 화두를 참구할 때는 알려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깨달으려는 마음도 내지 않아야 합니다. 화두를 챙긴다는 것은 따로 찾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버립입니다. 과거 · 현재 · 미래 · 시비 · 선악 일체를 화두 하나로 녹여 없애야 합니다. 화두 하나에 몰입되어 모든 상념이 끊어져 없어지고 허공처럼 텅 비어 깨끗하고 고요하면 거기서 명명백백하게 일체를 아는 지혜가 열리는데, 이것을 무심(無心) 혹은 본래청정심(本來淸淨心)이라 합니다. 우리가 정진을 하는 것은 이 청정한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쓰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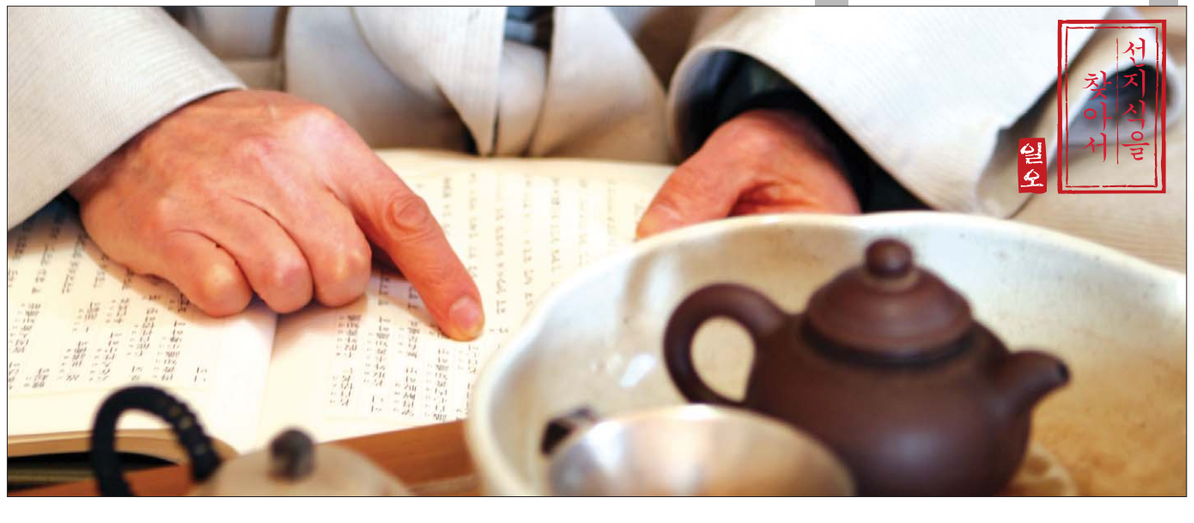
일오 스님은 세상사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우고 올바르게 수행하여 모든 중생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의 경계에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법답게 바로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 자신을 점검하고 수행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수행했으면 한 달 수행한 만큼, 일 년 수행했으면 일 년 수행한 만큼 달라져야 합니다.”

태안사에 어둠이 내리고 어디선가 솔가지 타는 향이 코끝에 와 닿는다. 저마다 각기 다른 화두를 품고 있다는 정심교 · 반야교 · 해탈교 · 능파각을 뒤로 하고, 피안의 세계를 벗어나 다시 차안의 세계로 걸어 나왔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일오 스님은 1965년 백운산으로 입산. 월인 스님을 만나 출가. 40년 넘게 제방선원에서 수행 정진. 전남 부안 월명암 선원장 역임. 지금은 곡성 태안사 선원장을 맡고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27〉 뇌허 김동화 박사

뇌허 김동화(1902~1980) 박사님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불교,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불교, 누구나 전할 수 있는 불교”를 가지고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실천하신 분이다. 대부분의 불교학자들이 불교를 철학, 과학, 문학이란 제목에서 그치는 경향이 많은데, 박사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실천하여 사회 대중으로 하여금 동참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2의 석가가 출현하신 것이다” 칭찬하기도 하였다. 실로 박사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면에서, 사상적인 면에서,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도 그것을 교육적인 면에서 응용하여 일생을 후배양성에 혼신을 다했다.

박사님은 1902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11세에 동해사에 출가, 남장사에서 계를 받고, 상주보통학교, 남명중학, 금룡사 지방학림을 거쳐 26세에 일본 릿쇼(立正)대학 종교학과에 유학하였다. 졸업 후에는 본교에서 전임강사를 하다가 대구 · 경북불교협회의 초청으로 귀국, 오산불교학교 초대 교장을 지내고 41년 혜화전문학교에 들어와 학생과장, 교무주임, 교수, 학장, 대학원장을 2 · 3회씩 연임하면서 평생 불교학자로서 생을 마쳤다.

동국역경원에서 경전을 번역하고, 연구소에서 불교소장을 맡으면서도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 · 강사로 나가 강의하는 것으로써 포교사 임무에 충실하기도 했다.

필자가 처음 박사님을 뵌 것은 돈암동 자택에서였으나, 뒤에 번동으로 이사하면서부터는 다달이 한 두 번씩 찾아뵐 기회를 가졌다. 혼자 계시면서도 아침 저녁 예불을 거의 빼지 않고 하셨는데, 특히 만년에는 선삼매(禪三昧)에 드실 때가 많았다.

예불문은 “참회게 · 개경게 · 반야심경 · 화엄경 야마천궁게찬품 · 법화경 방편품 · 보문품 · 십대원 · 연명십구 · 십계 · 자성청정원대타이익회향문 · 사홍서원”을 주로 하였으며, 예불 후에는 반드시 입정(入定)하였다. 입정하실 때는 언제나 불을 끄고 캄캄한 방에 앉아서 하셨는데, 부처님 머리 뒤에 두광이 나타나듯 둥근 광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람들이 보고 놀래면, “놀랠 것 없어. 누구나 구름이 걷이면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한 이치야” 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



“산중 사찰 관광지 전락될까 염려”

너무 오래 앉아 글을 쓰시고, 꿀과 설탕을 많이 드셔서 당뇨가 생긴 뒤에는 크게 힘을 쓰지 못하셨으므로 걸음은 항상 땅이 꺼질세라 조심조심 걷고 천천히 주위를 살펴보았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 눈에 소 걸음)라 하였다.

법문을 청하면 언제나 원고를 작성하고, 원고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히 새겨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서론 · 본론 · 결론이 분명하였다. 설사 어색한 장소에서 법을 청하면 본래 생각했던 것과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역사적인 배경을 더듬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였으므로 무당 판수도 정법으로 돌아온 사람이 많다.

특히 신행을 통하여 가정이 화합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면 극구 칭찬하였다.

박사님의 이 같은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제자 광우 스님이 삼선교에 정각사를 짓고 20여년간 법회를 이끌어 왔으며, 동료 황성기 교수님은 종로5가 통일예식장을 빌려 매주 토요법회를 열었다. 또 서울대, 연대, 고대의 강의는 원의범 박사님께서 계승하였고, 동국대에서는 분야별로 각기 그 학문을 계승하였으며, 특히 오형근 박사님께서 유식학에 일가견을 이루었다.

불교통신대학과는 1976년에 인연을 맺었으나, 우납이 시골 벽촌에서 농사지으며 포교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도와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국대 학장 · 대학원장을 두 번씩이나 지내고, 학술원 종신회원이 되신 분이 어떻게 이 시골 학교, 보잘 것 없는 학원을 맡아 주신단 말인가.

우리는 돌아가시기 3개월 전 도봉동 자택에서 마지막 공양을 올렸다.

“산중불교에 대한 애착을 갖지 말고, 잡된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사원이 관광지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잘못하면 귀한 수행지가 문화관광소로 전락할 염려가 있다. 6바라밀을 생활의 지표로 삼고 계 · 정 · 혜 3학을 잘 닦으라. 그리하면 불국정토는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다. 내가 자네를 사랑하는 것은 학자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자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생활불교에 충실하여 일선포교에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 또한 일생동안 불교활동을 하여 학술원 일까지 보아왔지만 그것은 부처님에 대한 보답이지 나의 욕망이 아니다. 포교하다가 돈과 명예, 사랑에 빠지면 부처님까지 욕먹이게 되는 것이니 후배들을 기를 때, 이 점 꼭 명심하기 바라네.”

이것이 마지막 법문이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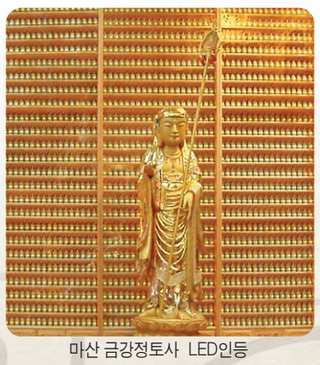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9>
(修習止觀坐禪法要)

제9장 치병(治病) ③

지관은 병을 치료하는 가장 훌륭한 약

復次 有三種得病因緣不同 一者四大五藏增損得病如前說 二者鬼神所作得病 三者業報得病 如是等病 初得卽治 甚易得差 若經久則病成 身羸病結 治之難愈

다음으로 세 종류의 병을 얻는 인연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밝히겠다.

첫 번째 지수화풍 사대와 오장이 증가하고 감소하여 균형이 맞지 않아서 얻은 병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두 번째는 귀신의 장난으로 얻은 병이고, 세 번째는 전생의 업보로 얻은 병이다.

이 같은 병은 처음 얻었을 때 바로 치료하면 쉽게 고칠 수 있으나 시일이 오래 경과되면 몸이 수척해지고 굳어져 치료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로 귀신 병에 대해 밝혀보기로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대 오장에서 일어난 병은 귀신병은 아니고, 귀신병은 사대 오장병이 아니라는 점이다. 귀신병이 없다고 하면 무당 무리들은 한결같이 귀신병으로 치료를 하여 낫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또 사대오장병이 없다고 하면 의사들은 한결같이 탕약으로 치료하여 낫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이 두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귀신병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옛날에 사리불존자가 기사굴산에서 금강삼매에 들어있었다. 그 때에 두 귀신이 허공을 통과하였는데, 한 귀신의 이름은 가라이고 또 한 귀신의 이름은 우바가라였다. 사리불이 결가부좌하고 선정삼매에 들어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는 가라귀신이 상대방 귀신에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 내 주먹의 힘으로 사문의 머리를 후려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우바가라귀신이 가라귀신에게 말하였다.

"사문의 머리를 후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문은 세존의 제자 가운데서 총명한 지혜가 가장 으뜸이기 때문이다."

가라귀신은 거듭 말하였다.

"나는 사문의 머리를 후려칠 수 있다."

선한 우바가라 귀신은 말하였다.

"그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여기에 머물러라. 나는 너를 버리고 떠나겠다."

악한 귀신인 가라는 대꾸하였다.

"그대는 사문을 두려워하는가."

착한 귀신은 말하였다.

"나는 실로 그를 두려워한다. 그대가 사문의 머리를 후려친다면 대지가 두 쪽으로 나뉘고 거센 비바람이 일어나 천지가 진동을 하면 모든 하늘나라에서도 놀라고 두려워하여 사천왕까지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처소마저 불안해진다."

악귀가 말을 듣지 않자 선한 귀신은 그곳을 떠났다.

업보로 생긴 병은 수행 · 참회해야 나을수 있어
귀신병 등은 오래 경과하면 치료하기 쉽지않아

악귀는 바로 사리불에게로 가서 머리를 후려쳤다. 그랬더니 천지가 크게 진동을 하고 사방에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닥쳐 대지가 두 쪽으로 나뉘어 악귀는 즉시 지옥에 떨어졌다.

그 때에 사리불은 삼매에서 일어나 옷을 여미고 가란타죽에 계시는 세존의 처소에 나아가 머리로 부처님 발을 향해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고하셨다.

"그대는 지금 아픈 곳이 없느냐."

사리불은 답변하였다.

"저는 평소에 병이 없었는데 지금은 두통 때문에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라라는 귀신이 만일 수미산을 후려쳤다면 수미산이 두 쪽으로 나뉘었을 것이다. 요행이 그대는 금강삼매에 들어서 이 삼매신통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머리를 맞았어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극도로 위험했을 것이다."

이 인연은 '증일아함경'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귀신이 장난을 하면 역시 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업보로 일어난 병을 설명해본다면 오로지 전생의 죄업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고, 금생에 계율을 파괴하여 이로 인해 전생의 죄업이 발동하여 병이 생기기도 한다.

업력으로 이뤄진 병은 오근을 통해서 범한 죄업을 알 수 있다. 가령 살생의 죄업은 간과 눈에 병이 생기고, 술을 마신 죄업은 심장과 입에 병이 생기고, 음욕으로 지은 죄업은 신장과 귀에 병이 생기고, 허망한 말로 지은 죄업은 비장과 혀에 병이 생기고, 도적질을 한 죄업은 폐와 콧구멍에 병이 생기고, 오계를 파괴한 죄업은 오장과 오근에서 병이 일어난다. 이러한 병은 업보가 소멸하면 자연히 낫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금생에 금계를 근엄하게 지녀야만이 전생의 죄업이 드러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전생의 무거운 죄업을 지었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아야만 하지만 금생에 금계를 근엄하게 지키면 인간세상에서 단지 두통 병만으로 그 무거운 죄업이 소멸되는데, 이는 업이 뒤바뀌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다.

二明治病方法者 卽深知病源起發 當作方法治之 治病之法 乃有多途 擧要言之 不出止觀二種方便 云何用止治病相 有師言 但安心止在病處 卽能治病 所以者何 心是一期果報之主 譬如王有所至處 羣賊迸散

두 번째로 사대 오장병과 귀신병과 업보로 생긴 병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병이 일어난 근원을 이미 알았다면 갖가지 방법으로 다스려야만 하는데, 그 갖가지 병을 대치하는 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가령 수행자가 노동이나 음식으로 인해 병이 났다면 이는 반드시 약으로 치료해야 하고, 좌선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병이 났다면 좌선을 통해 수식관을 잘 조화해서 치료해야 하며, 귀신과 마군의 두 병은 반드시 수행력과 대비주력으로 치료해야 하며, 업보로 생긴 병은 내적으로 수행력을 사용하고 밖으로는 삼보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해야만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경률론에서 밝히고 있는 병을 다스리는 방법은 한량이 없지만 그 요점만 말해본다면 '지' '관'이라는 두 종류의 수행방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 '관'이라는 두 법은 병을 치료하는 가장 훌륭한 약이고 만병을 총괄하는 대다라니이다.

무엇이 지 수행으로 병을 다스리는 모습인가.

옛날 큰스님은 말하기를 "오직 병이 일어난 곳에 마음을 두고 의식을 집중하면 바로 치료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든 병이 일어난 처소를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병난 곳에 마음을 머물고 밖으로 치구하지 않기를 삼일동안 계속할 수 있다면 일체 모든 병이 낫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마음은 우리 생명의 주재자이다. 비유하면 마음은 왕과 같고 병은 도적과 같다. 이는 마치 왕이 도달한 처소에선 모든 도적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도 같다. 만일 왕과 같은 마음이 병이 있는 곳에 편안하게 안주해있다면 도적과 같은 병은 자연히 소멸하게 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사제법문(四諦法門)

②집제(集諦)

'집'은 무더기[集] 결집(結集) 초인(招引) 또는 조성[成]의 의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과(苦果)의 원인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세간 고통의 과보는 무엇을 따라 불러들이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집제가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소재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명의 어두움 때문에 갖가지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혀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신 구 의라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갖가지 행위[業]을 조성합니다. 그 업이 무더기로 집합하면 하나의 업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업의 세력이 결집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 업에 대한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선업(善業)은 선과(善果)를 부르고 악업(惡業)은 악과(惡果)를 부르는 게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는데, 악과가 바로 고제로서 고과(苦果)입니다. 그러므로 현실고통의 근본원인을 추구해 본다면 최초의 일념무명의 어두움을 따라서 망상이 일어나고 그 망상을 따라서 악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괴로움의 과보라고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고통스러운 과보는 과거에 이미 지은 악업의 소산물이며, 현재의 악업은 다시 미래의 고과를 생산하는 원인입니다. 이처럼 무명망상과 악업은 고과를 부르는 원인이 되는데 이를 두고 집제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집제는 고의 원인이 되고 고제는 집제의 결과가 되어 이 둘은 혹업고(惑業苦)라는 삼세간(三世間)의 인과율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세간생사의 인과관계가 단절 없이 상속되는 실상입니다. 여기에서 '혹'과 '업'은 집제에 포섭되고 '고'는 당연히 고제에 섭수됩니다. 이상의 고집이제(苦集二諦)는 미혹한 세간의 생사유전인과입니다.

③멸제(滅諦)

'멸'은 세간의 일체고뇌를 제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뇌를 소멸시킨다는 의미인 고멸제(苦滅諦)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해탈론(解脫論)에 해당됩니다. 앞서의 고집이제가 현세의 고과(苦果)와 그 고과가 생기하는 집인(集因)의 관계를 밝힌 것이었다면 멸제는 고인고과(苦因苦果)를 제멸한 상태에서 얻어진 상주안락(常住安樂)의 열반을 밝힌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관찰에 의거하면 고과를 일으키는 근접한 원인이 업이며, 그 업은 미혹을 의지하여 있게 됩니다. 미혹을 분류하면 그 근본원인인 무명이 있고, 다시 무명을 의지하여 일어난 망상이 있게 되고, 그 망상을 의지하여 일으킨 집착과 욕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혹의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멸제'는 다음호로 이어집니다)

■정리=張如舟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늘리세요



발 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랗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뻣뻣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정규 제1기 학인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남부종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설 경기불교대학 정규 제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교수과목 :

	14시~16시	16시~18시	18시~20시
화요일	컴퓨터 강좌 ◇기본사용법 ◇종무관리 ◇인터넷강좌 ◇홈페이지제작,관리		태고종사 기본교리 법회설법
금요일	내 전 ◇사미과목 ◇사집과목 ◇사교과목	의 식 ◇사물다루는법 ◇상용의식 ◇범패	명리학 육임

◆모집대상 :
① 한국불교태고종 및 타종단 스님
② 불심이 돈독한 재가불자

◆교육기간 : 2년 (정규반 1년, 연구반 1년)
◆전 형 : 면접 ◆수 강 료 : 월 10만원
◆접수기한 : 2009년 2월 20일
◆접수방법 : 전화하시면 입학원서, 세부사항을 보내드립니다.
※연 락 처 :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262 원광사
☎ 031)353-2877 / 전송 031)353-2854

한국불교태고종 설립인가제2009-1호 경기불교대학
학장 임경순(보광) 부학장 이정석(보명)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年支)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 주역(周易)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다.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흉명(凶名)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大邱에서 많은 후학(後學)들에게 작명법(作名法)을 강의하고 있으며, 본서(本書)가 참다운 작명(作名)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 382쪽 (정가 : 30,000원)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會長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전통사찰 불사 대출
(기채승인부)
사찰 매매 잔금 대출
기타 대출

재무부인가 제 9-205호

▣ 문의전화 : 053)428-1133
▣ 전문상담 : 徐一永 전무
C.P 011-527-1037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
대구시 중구 남산동 665번지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밤낮으로 부질없는 번뇌망상 일으키기에 괴로워”

정찬주 구도 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3〉

제1장 봉갑사 가는 길 3


그림 · 최문정

각안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면불을 한 분 한 분 참배하는 동안 함박눈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다. 허공을 가득 메운 함박눈의 군무(群舞)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너무도 순식간에 연출된 광경이었으므로 대연 거사는 함박눈이 꿈과 현실을 넘나든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했다. 함박눈이 허공에서 나풀거렸다기보다 한 순간 변화무쌍한 사건으로 지나쳤다는 느낌이 들었다. 함박눈의 출현과 소멸이 사건이라면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직 드러나고 사라진 실상을 받아들이는 것만 가능할 뿐이었다.

“거사님, 무얼 그리 골똘하게 생각하십니까.”

“장자의 호접몽(胡蝶夢)을 생각했습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를 보고 꿈에서 깨어난 뒤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몰랐다는 그 얘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사라진 함박눈이 장자의 나비와 같았습니다.”

봉갑사 맞은편 산의 중앙에도 봉정교 입구에서 보았던 붉은 깃발이 하나 꽂혀 있었다. 풍수가들이 말하는 봉황의 머리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봉갑사는 봉황이 응시하는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셈이었다.

“저는 봉(鳳) 자와 인연이 깊습니다. 태어난 고향은 보성군 복내면 원봉이었고, 혜암 큰스님을 15년 동안 시봉한 해인사 원당암도 비봉산 자락에 있었으며, 지금 살고 있는 봉갑사도 천봉산 품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잿빛구름장이 살얼음이 깨어지듯 갈라지고 있었다. 움직이는 구름장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빛기둥처럼 뻗치더니 잠시 후에는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봉황의 머리에 꽂힌 붉은 깃발이 더욱 선명하게 펄럭였다.

그러나 적멸보궁 아래 7여래 4보살이 자리한 곳까지 달려온 햇살이 계속 머물 것 같지는 않았다. 겨울 날씨는 세상의 일처럼 시시각각 종잡을 수 없었다. 비가 내리더니 눈이 오고, 눈이 흩날리는가 싶더니 햇살이 비추고 바람이 불었다. 출현과 소멸을 파도치듯 반복했다.

“거사님, 이 사면불 밑에도 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혜암 큰스님 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말입니까.”

대연 거사는 비로소 변덕스러운 겨울날씨가 던져준 상념에서 깨어나 물었다.

“아닙니다.”

“어떤 분의 사리입니까.”

“부처님 진신사리 100여 과가 모셔져 있습니다.”

대연 거사는 믿기지 않았다. 각안 스님에게 잘못 들은 것 같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처의 진신사리가 봉갑사 적멸보궁에 봉안돼 있다니 금시초문이었다. 대연 거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투로 다시 물었다.

“스님, 부처님 진신사리가 이곳에 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1백여 과나 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모신 것이 아니고 봉갑사 큰스님의 상좌 분 중에 천일기도를 여러 번 하신 스님이 계십니다. 금산사 백운암에 계시는 우성 노스님인데 그분의 뜻에 따라 이곳으로 모신 것뿐입니다.”

“그 노스님은 왜 당신이 모시지 않고 스님께 기증한 것입니까.”

“미얀마 불교성지를 순례하시다가 그곳의 고승으로부터 받은 진신사리라고 합니다. 봉갑사 복원불사를 보시고 마음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인연 따라 진신사리가 오고간 것이지 제가 욕심을 낸다고 될 일입니까. 하하하.”

각안 스님은 크게 소리 내어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대연 거사는 문득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2500년 전에 열반한 부처의 몸에서 나왔다는 저 100여 과의 진신사리가 어떤 연유로 미얀마로 옮겨졌다가 다시 우성 노스님에게 전해졌고, 또 지금은 봉갑사로 왔다는 것인지 그 경로가 몹시 궁금했다. 그뿐 아니었다. 저 100여 과의 사리가 부처의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그러한 사실을 기록한 명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호기심이 솟구쳤다.

“이곳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니 놀랍습니다.”

“거사님이 놀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 이곳으로 부처님 사리를 모셔올 때 봉갑사 대중들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부처님 진신사리일까 하고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확신한다는 말씀이군요.”

“진신사리를 모시는 날 하늘이 답을 내려주었습니다.”

대연 거사는 각안 스님이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여 답답하기조차 했다. 하늘이 답을 주었다니 그것은 답변이라고 할 수 없었다.

“하늘이 어떻게 답을 줍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답을 주었다고 할까요.”

“부처님 진신사리라고 생각하면 진신사리가 되는 것이고, 진신사리가 아니라면 진신사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진실은 하나일 뿐이지 두 가지의 견해로 갈리지 않습니다. 불법은 시비를 초월합니다. 그대로 여여할 뿐입니다. 혜암 큰스님께서는 마음을 내지 말라 했습니다. 일어나는 내 마음을 없애는 것이 도(道) 공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밤낮으로 부질없는 번뇌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대연 거사는 궁금해 견딜 수 없었다. 어떻게 하늘이 답을 주었다는 것인지 각안 스님의 시원한 대답을 듣지 않고는 적멸보궁을 내려가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각안 스님, 하늘이 무슨 답을 주었는지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제야 각안 스님이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러더니 수첩 앞장을 폈다. 수첩 속에는 적멸보궁의 사진이 한 장 끼어 있었다.

“사진을 보시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면불을 찍은 사진이군요.”

“그렇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둥근 무지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에는 사면불 위로 달무리 같은 둥근 무지개가 떠 있었다. 순간, 대연 거사는 부처의 진신사리에 대한 의혹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의혹이

> “일어나는 내 마음을 없애는 것이 道 공부
> 진신사리 의심하니 하늘이 무지개로 답해”

해소됐다기보다 진신사리라는 믿음과 진신사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하나가 돼버린 듯했다.

“하늘에 둥근 무지개가 홀연히 나타나자, 진신사리일까 하고 반신반의하던 스님과 재가신도들 모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아! 하고 환희심을 냈습니다. 그 순간 진신사리에 대한 진실은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스님, 진신사리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일이 부질없다고 느껴집니다. 좀 전에 혜암 큰스님께서 망상을 일으키니까 괴로워진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새삼 가슴을 칩니다.”

적멸보궁을 내려올 때는 대연 거사가 앞서 걸었다. 가파른 산길이었지만 눈이 쌓이지 않고 녹아 미끄럽지 않았다. 봉갑사에서는 지장전에 망자의 위패를 만년 동안 봉안할 모양인데, 각안 스님이 그 계획을 의욕적으로 말했다. 망자도 불법의 인연을 지어 생사윤회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봉갑사를 안내하겠다고 따라 나섰지만 대연 거사는 결과적으로 스님의 짧은 법문을 들은 기분이 들었다. 하늘은 다시 낮게 가라앉고 있었다. 먹물이 번지듯 칙칙하게 변했다.

“스님, 해인사로 언제 떠나실 겁니까.”

“오늘 중 아무 때라도 가면 됩니다. 승용차로 해인사까지는 여기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큰스님 제사는 내일 아침 사시(巳時)에 지내니까요.”

“저는 봉갑사에서 좀 더 머물다 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방을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방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제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대연 거사는 법당 쪽으로 돌아와 각안 스님에게 고개를 숙여 합장했다. 각안 스님이 베푼 호의에 대한 답례이자 다음에 또 뵙자는 인사였다. 그러자 각안 스님이 물었다.

“아참, 원당암에서 노스님을 뵙고 출가의지를 꺾었다고 했는데, 그 스님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안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스님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스님께 법명을 여쭤보지 못했으니까요.”

“큰스님과의 인연으로 원당암에서 며칠씩 머물다 가십니다만 그때 계신 노스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노스님이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큰스님 속가 동생 분 같기도 하지만 누구라고 단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속가 동생 분도 출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태호 스님이지요. 큰스님 제삿날이 되면 원당암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키는 어땠습니까.”

“큰스님처럼 작달막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닙니다. 태호 스님은 큰스님과 달리 키가 크신 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스님과 같이 정진하셨던 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솔명 동자가 다가와 원당암 감원스님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알렸다. 아마도 내일 치르는 혜암 스님 제사 관계인 듯했다. 각안 스님이 요사채로 가는 동안 대연 거사는 솔명 동자에게 물었다.

“각안 스님이 은사스님 같은데.”

“여섯 살 때 뵀지요. 원당암에서 살다가 스님을 따라서 봉갑사에 들어왔어요.”

“원당암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럼요. 제가 좋아서 절에 남았어요. 여러 절을 엄마와 같이 다녀보고 나서 해인사 원당암으로 제가 결정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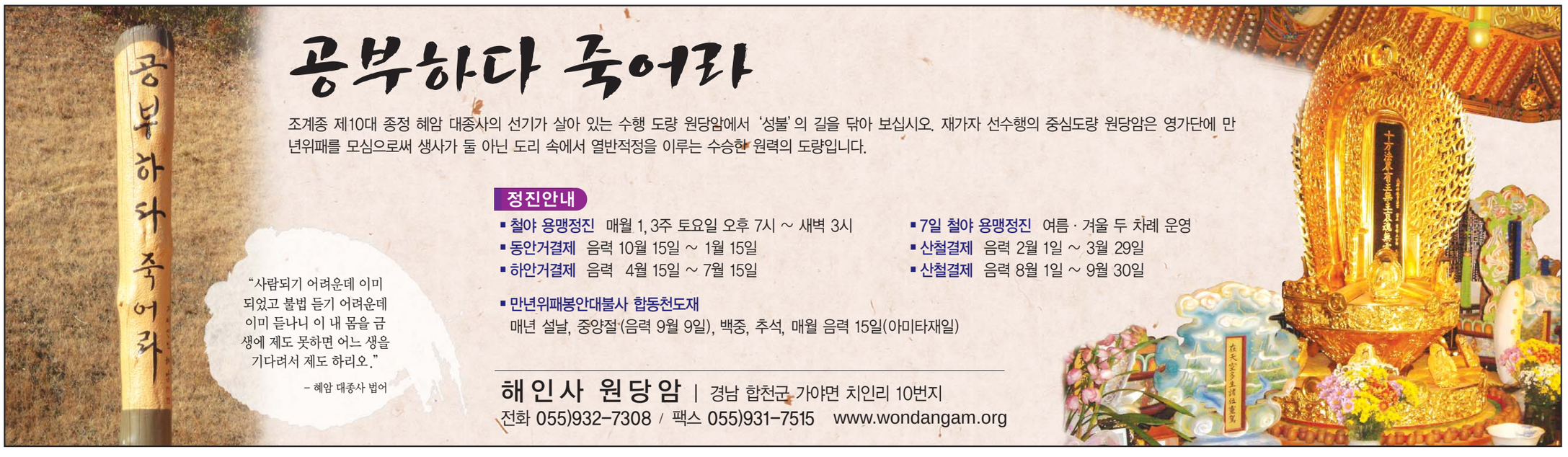
“여섯 살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후회해 본 적은 없는지 궁금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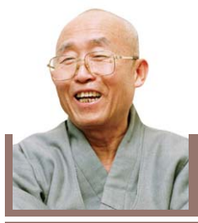
“절에 들어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오지 않았으면 큰 일 날 뻔했어요. 절이 편하거든요. 송광사에서 계도 받았어요. 주지스님이 안 계시면 제가 법당에 들어가 혼자 예불도 해요.”

“학교는.”

“오늘은 노는 토요일이고 전 문덕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나를 많이 따라요. <천자문>에 나오는 한자를 가르쳐주기도 하거든요.”

삭발한 머리가 활짝 핀 수국 한 송이만 했다. 앞니는 유난히 하얗고 컸다. 대연 거사는 솔명 동자가 귀여웠지만 머리를 만지지 않았다. 계를 받은 사미승이기 때문이었다. <계속>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2>

"정업 쌓으면 정토에 날 수 있다"

(이어서)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서서 외치기를 "월운아, 그대는 이런 시기에 불자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한다면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의 세계관이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는 여행자에게는 안내서(案內書)와도 같고 집을 지으려는 이에게는 설계도(設計圖)와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화제(話題)를 '경전속의 세계'로 잡았다.

그간 내가 아는 바로는 경전 속의 세계를 대충 세 유형(類形)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삼천대천세계설(三千大天世界說)이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現實世界)와 가장 많이 비슷한 예토화신불토(穢土化身佛土)요, 둘째는 향수해설(香水海說)이니, 화엄(華嚴)회상(會上)의 노사나불(盧舍那佛)께서 시현(示現)하신 법보신불토(法報身佛土)요, 셋째는 정토설(淨土說)이니, 타방불(他方佛)의 원력으로 화현(化現)하신 정토화신불토(淨土化身佛土)여서 삼신이 구족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불국토설이 있으나 모두의 공통점(共通點)을 찾는다면 국토의 형식은 정토(淨土)와 예토(穢土)요, 그 국토들이 생겨나는 원인으로서는 불보살님들의 원력과 중생들의 업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세 종류의 불국토 중 삼천대천세계는 예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순전히 정토니, 예토에 태어난 우리들도 정업을 쌓으면 모두가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불국토설의 근본취지이다.

이들 중,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의 구조를 설명하려 한다.

삼천대천세계의 기초단위는 동불바제주(東弗婆提洲), 남섬부주(南贍部洲), 서구야니주(西瞿耶尼洲), 북구로주(北俱盧洲) 등 사주세계(四洲世界)와 일월(日月)과 수미산(須彌山)과 칠금산(七金山) 팔향수해(八香水海)와 위로 육욕천(六欲天)까지를 묶어서 욕계(欲界)라고 하니, 오욕락(五欲樂)이 치성(熾盛)한 곳이란 뜻이다.

이 욕계 위에는 범중천(梵衆天) 범보천(梵輔天) 대범천(大梵天) 등(等)이 있으니 이 세 하늘을 초선천(初禪天)이라 하고, 그 위에 소광천(少光天) 무량광천(無量光天) 광음천(光音天) 등이 있으니, 이 세 하늘을 이선천(二禪天)이라 하고, 그 위에 소정천(少淨天) 무량정천(無量淨天) 변정천(遍淨天) 등이 있으니, 이를 삼선천(三禪天)이라 한다.

다시 그 위에 무운천(無雲天) 복생천(福生天) 광과천(廣果天) 무상천(無想天) 무번천(無煩天) 무열천(無熱天) 선견천(善見天) 선현천(善現天) 색구경천(色究竟天) 등 아홉 하늘이 있으니, 이를 사선구천(四禪九天)이라 한다. 위의 초선(初禪), 이선(二禪), 삼선(三禪)의 각 삼천(三天)을 합하면 구천(九天)이요, 이 구천과 제사선천(第四禪天)의 아홉 하늘을 합치면 이른바 색계십팔천(色界十八天)이 되니, 이들은 오욕락(五欲樂)을 벗어났음으로 용모가 편안해 보이는 미색(美色)이 되었다는 뜻에서 색계(色界)라 한다.

경전속의 세계 삼천대천세계·향수해·정토로 설명

일사천하(一四天下)의 면적(面積)은 색계(色界)초선천(初禪天)과 같은데 그것(一四天下+初禪天)을 천 곱하면 소천세계(小千世界)라 하고, 그 넓이는 색계(色界)이선천(二禪天)과 같다. 소천세계를 천 곱하면 중천세계(中千世界)라 하니, 그 넓이는 색계(色界)삼선천(三禪天)과 같다. 중천세계를 천 곱하면 대천세계(大千世界)라 하니 그 넓이는 색계(色界)사선천(四禪天)과 같다. 이렇듯 세 차례를 곱씹어 천 곱을 했기 때문에 삼천(三千)이라 하고 마지막이 대천세계(大千世界)이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라 한다. 이 삼처대천세계를 단순히 대천세계, 또는 세계라고도 하고, 일불세계라고도하니, 이것이 한 부처님이 교화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이요, 백억(百億)세계(世界)라고도 하니, 천을 세제곱한 수치(數値)는 십억(十億)이 되어야하지만 고대(古代) 산법(算法)으로는 백억이 되기 때문이다.

봉선사 조실



禪 :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라 김성우 지음|무한 펴냄|1만5000원

禪은 끝없는 초월과 자기혁신의 길

'없는 곳이 없으며, 또한 없고 없더라.'

삶이 머무는 곳 어디나 '무무당(無無堂)'으로 삼아온 저자는 일상의 선(禪)을 한 권의 책에 보듬는다. <禪: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라>는 '분별 않고 머무름 없는 텅 빈 충만으로 살라' 고 읊조리며 일상의 삼매를 구현한 수행일기다. 현재 현대불교신문 취재부장으로서 한국불교 현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먼저 관통하는 위치에 서있는 저자(김성우 · 사진)가 2년 전 부천 원미산의 또 다른 무무당에서 마음의 파랑새와 대화 나눈 문답을 펼쳐 보인다.

'한 생각 일으킬 때가 수행할 때다.'

저자는 참선이란 결코 좌복 위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24시간을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24시간을 부리는 당당한 대장부가 되라고 말한다. 순간순간 한 생각 일으킬 때 비로소 일생은 깨어있는 삶이 된다. 마음 도리를 모르면 백보를 뛰어도 종종 걸음에 불과하지만, 그 도리를 알면 앉은 자리에서 한 생각에 천리를 드나든다. 마음이 주인이자 부처이므로 한 생각 일으키면 문수요, 움직이면 보현인 것이다.

책 속에는 저자가 운영하는 넷선방 구도역정(cafe.daum.net/kudoyukjung) 회원들뿐만 아니라 절에서 만난 스님과 거사, 보살들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구도자들이 등장한다. 25년여의 구도여정 중 철야정진과 일상 속 선수행 속에서 체험한 저자의 법열(法悅)은 세상이 행복보다 불행이 많다고 여겨온 세간인들에게 감인(堪忍)이 아닌 환희의 불야성(不夜城)을 선사한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자들의 생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 저자의 배려 깊은 경험담이 마치 맛좋게 비벼진 한 그릇의 비빔밥을 연상케 한다. 지난해 발간된 <선답>이 한국의 선문답을 저자 나름대로 해설한 것이라면 <禪: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라>는 공안의 깊고도 깊은 깨달음의 향훈이 가득한 원만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선(禪)의 의미를 알지만 행(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禪)을 바로 체득하지 못한 것과 같다.'

저자는 내가 살아 숨 쉬는 이곳이 바로 '극락'이라고 말한다. 일체가 마음에서 드러난 것임을 확신하는 기쁨으로 자다가도 웃는다. 불혹(不惑)의 여정에 선 선재동자는 선(禪)이야말로 끝없는 초월이자 자기 혁신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서서히 보현행의 관문을 넘어선 선재는 '자기계발과 선(禪)'을 화두로 집필중이다.

'앎 또한 알음알이가 되면 안돼.'

저자는 일체가 자심소현(自心所顯)임을 깨닫는 환희심에 대해 '100% 믿지 않으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하는 전도몽상된 현재의 나를 돌아볼 때 비로소 실체는 드러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 한 권에 농축된 저자의 끊임없는 행입(行入, 실천행)의 갈무리는 독자로 하여금 여실지견(如實知見)의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각 지방 특색 살린 사찰중심 답사



'대동지리지' 충북 · 충남대전 편

박성현 지음|겨레출판사 펴냄|각권 1만8000원

20년 간 전국 사찰 3만여 곳을 순례하며 1만 2000여 곳의 자료를 수집, 그림지도와 그곳에 얽힌 절집이야기를 모은 <대동지리지> 충북 · 충남대전 편이 출간됐다.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가 환생한 듯 저자는 사찰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 특색, 문화, 관광 등을 두루 답사했다.

한 때 세상사 되는 일이 없다 여기며 하는 것마다 실패의 연속이던 저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저 죽음자리로 찾아 들었던 지리산에서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고 회상한다. 오직 걸어서 전국 산속에 산재된 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한 그는 작은 사찰까지 상세한 그림과 조감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마치 거역할 수 없는 운명처럼 20여 년을 산속 유명사찰에서부터 작은 토굴에까지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제야 깨달은 바가 있어 되돌아보니 스님들의 청정한 마음자리만이 부족한 마음을 채워줍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시대의 역사를 그려보고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현대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성과 근본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저자는 작은 절들일 수 록 맑고 청정하며 도가 높은 스님들이 많다고 강조한다. 일일이 산과 들을 떠돌며 절들을 표시하고 '전국사찰지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려 노력했던 여정이 오롯이 담긴 <대동지리지>에는 20년간 인연 맺은 스님들의 마음자리도 알알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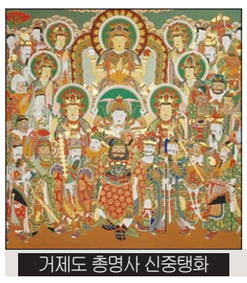
혜철 충청지사장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4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6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	일아 역편	민족사
7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8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9	인과경	현담	선
10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대행	한마음선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각권 15,000원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걸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011-743-5167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우담바라 [신묘장구 대다라니 만독]
정진기도

귀의 삼보 하옵고,
경주 남산 천선사 에서는 매월 둘째, 네째 주 토요일 철야법회를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천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천선사 신도님들께서는 많은 기도정진 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불보살님에 가피력으로 각 가정마다 공덕을 길이길이 쌓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천선사 주지 정관 합장
전화 054)748-0462 / 휴대폰 016-509-0462
FAX 054)771-6606

소와 함께 한 세상 이야기

국립민속박물관서 3월 2일까지



'화조도' 8폭중 1폭에 그려진 목우자.

기축년 한해, 우직한 소의 심성을 닮아보자.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신광섭)은 소띠 해를 맞아 3월 2일까지 '소와 함께 세상이야기, 우행(牛行)' 특별展을 연다. 한국의 생활 문화 속에 나타나는 소의 친근한 이미지와 일상에서의 다양한 기능 및 역할을 소와 관련한 자료 전시를 통해 조망한다.

불교에서 소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동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조계종 중흥조이자 <초발심자경문>을 쓴 보조지눌 스님의 호가 '목우자(牧牛子)'였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말년 동안 머물렀던 자택의 호 또한 '심우장(尋牛莊)'이다. 사람의 진면목을 소에 비유해 마음 닦는 과정을 10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십우도(十牛圖) 역시 수행자의 구도행장을 잘 묘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1년 주기 농경생활 풍경을 그린 12폭 '경직도(耕織圖)'를 비롯해 풍요를 기원하는 민속학적 농경의례인 황해도 소놀이굿의 소탈 및 각종 공예품 등 소의 모든 것을 총 망라한다. 온순하고 성실하며 끈질긴 소의 기질을 시간과 공간에 투영된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접근했다. (02)3704-3152 가연숙 기자



무채색 도시에 푸른 연두빛 감성음악 전하고파
불교계의 보아 앨리스블루 싱글앨범 'To U' 발매

"찬불가 현대화 위해 대중가요 불러요"



"제 후원자요? 든든한 모니오빠죠~."

BBS불교방송 '붓다의 노래' 녹음 스튜디오에서 만난 앨리스블루(aliceblue) 강혜윤(25)은 해사한 미소를 지으며 재기발랄한 입담을 선보였다. 매주 일요일 새벽 1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불교음악 감상실' 코너를 2년째 진행하고 있는 그는 불교음악계의 아이돌스타 '보아'로 통하고 있었다. 든든한 '모니 오빠'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컫는 그만의 애칭. 최근 싱글음반 'To U'를 발매하고 서서히 대중음악의 바다를 항해 할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의 일상을 엿보았다.

"찬불가 가수로 2006년도에 데뷔했어요. 지허 스님(천수사 주지)과 '패랭이꽃과 나그네' 음반을 발매하고 5000장의 음반이 절판되기까지는 물심양면으로 관심 써 주신 지인들 도움이 큽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능분야에 유감없이 재능을 발휘했던 그가 찬불가와 인연을 맺은 것은 풍경소리 이종만 선생의 권유때문이었다. 채플을 배워야하는 예술고등학교 학생시절 "왜 불교음악은 찬송가만큼 재미가 없을까?"라고 항시 의문을 품어왔다. 인도불교를 전공하고 찬불가 마니아이기까지 한 어머니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교음악감상실(sambori.com)을 통해 접한 찬불가 역시 명상음악이나 동요, 트로트와 같은 한정된 장르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웠다. 이로써 청년불자가 부재한 한국불교의 침체 원인을 알게 된 이상 누군가 해야만 했던 찬불가의 현대화를 선도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군포교 활동하잖아요. 군부대에서만큼은 효리 선배님보다 인기가 많을 걸요?"

공군교육사령부를 비롯해 연주사, 백마사, 봉화사가 위치한 각 육군사단에서 위문 공연을 펼치는 그의 의지는 열성에 가깝다. 포기라는 단어를 싫어해 고려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재학중인 학생 본분에도 충실하면서, 정규앨범 제작뿐만 아니라 방송활동까지 펼치는 그는 하루 24시간도 짧기만 하다. 부족한 잠을 줄여서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는 발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진의 불꽃을 태우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부처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고 계신 것이 틀림없어요. 도신 스님은 지금의 찬불가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걸음마 떼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에 비하면 저는 2년 만에 뛰어 놀고 있는 셈이죠."

이번에 발매된 싱글앨범 'To U'는 모던락과 서정적인 팝발라드 곡으로 완성된 총 4트랙으로 구성됐다. 앨범 타이틀 곡 'If U Luv me(만약 나를 사랑해 준다면)'는 前 럼블피쉬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김성근 곡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영원히 즐겁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정적인 감성으로 회색빛 무채색의 도시에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감성을 전하고 싶다는 앨리스블루. 대중음악 시장에 첫 싱글 음반을 내놓은 그의 포부는 당차기까지 하다.

"음반 시장이 어렵고 가수 활동도 우여곡절이 많다고들 하지만 저는 대중가수로 유명해질 거예요. 그래야만 찬불가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찬불가를 부르는 젊은 가수로서 무대에 오르며 음향의 열악함이나 홀대 속에 단 한 번도 절망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해야만 했던 일에 도전했고 그 길을 걷는 이상 최고가 되고 싶다고 발원 해본다.

"저녁 시간에 조계사에 들러 부처님 전에 기도하며, 저는 사실 가수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고 물음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 때마다 부처님은 항상 같은 답을 주셨죠. '모든 것이 잘 될 거다~'라구요"

때때로 어르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찾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앨리스블루 강혜윤. 청년 불자들에게 향기 가득한 연꽃의 소리를 전함으로써 마음의 안식을 나누는 일이라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02)322-2194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불교TV서 만나는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3월 14일까지 초기불교-정신의학 총 망라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에서 구랍 13일 주최한 학술연찬회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가 불교TV에서 총 27회에 걸쳐 방영된다.

△초기불교에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 △중관 · 유식불교에 허인섭 교수(덕성여대) △선불교에 김진무 교수(동국대) △서양철학에 박찬국 교수(서울대) △정신의학에 김종주 원장(김종주신경정신과의원) △심리학에 권석만 교수(서울대) △생물 · 면역학에 우희종 교수(서울대)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학술연찬회에 맞춰 교재로도 발간된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는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이미 방영된 주제는 불교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02)720-3629

가연숙 기자

회차	방영일시			내용
1	1. 12(월) 24:00	1. 15(목) 19:30	1. 17(토) 14:30	초기불교
2	1. 19(월) 24:00	1. 22(목) 19:30	1. 24(토) 14:30	유식 · 중관불교
3	1. 26(월) 24:00	1. 29(목) 19:30	1. 31(토) 14:30	선 불 교
4	2. 2(월) 24:00	2. 5(목) 19:30	2. 7(토) 14:30	서양철학
5	2. 9(월) 24:00	2. 12(목) 19:30	2. 14(토) 14:30	정신의학
6	2. 16(월) 24:00	2. 19(목) 19:30	2. 21(토) 14:30	심 리 학
7	2. 23(월) 24:00	2. 26(목) 19:30	2. 28(토) 14:30	생물 · 면역학
8	3. 2(월) 24:00	3. 5(목) 19:30	3. 7(토) 14:30	종합토론
9	3. 9(월) 24:00	3. 12(목) 19:30	3. 14(토) 14:30	종합토론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02-2004-8200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하늘의 기운, 신의 숨결, 조상의 지혜
부적! 이제 대용품으로는 안된다
槐괴 黃황 紙지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제품 괴황지는 홰나무(일명 귀신나무)의 꽃과 열매(콩같은것)을 당년 7월7석(전삼일, 후삼일에) 소승이 직접 채취(강원도 영월)하여 그늘에 잘 말린후, 동지날(전삼일, 후삼일)에 즙을 내어 그물로 9번 순수 한지에 물을들여 건조시키는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작업시에 발생하는 역한 냄새와 건조시키는 과정때문에 일반인들의 가정에서는 제작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대용품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치자물들인 창호지로 그 용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승은 옛 선사님의 비법 그대로 순수 닥나무로 수작업한 전주한지를 엄선, 정확히 9번 물들여 건조하였음을 부처님의 제자로서 함장하며,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제작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시어 미리 주문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주문처: 전북 장수군 계북면 농소리 589번지 몽련암
관봉 함장 (063)353-1232 / 010-6229-0108
농협: 507079-51-012924(예금주:이창주)
E-mail: m3531232@hanmail.net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 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⑫ 윤삼촌네 밥이야기 3

겨울별미, 굴 – 밥은 배움

정신분석학 수업을 들으러가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더욱 설렌다. 지난주에 계획한 대로면 오늘은 수업 후 '굴 잔치'를 하기로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원실 언니 조카가 멀리 바닷가마을에서 보내준 통영 산지의 굴로 말이다. 그러니 설레는 것이 어찌 발걸음뿐이랴. 바다향을 가득 머금은 굴을 초장에 찍어 입속에 넣는 장면을 상상만 해도 오감에 육감까지 설렐 지경이다.

삼촌이나 언니들이나 나의 속사정과 다를 바 없을 터.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살림계의 지존인 왕언니와 요리하기 좋아하는 원실 언니가 각기 보따리를 헤친다. 워낙에 정이 넘쳐 남의 뱃속 마음속까지 다부닐게 챙겨주는 원실 언니는 굴전에 필요한 부침가루와 파를 집에서 미리 다듬어 준비해왔다. 왕언니는 보따리에서 굴보쌈에 곁들일 봄동과 물미역을 꺼내 손질하고, 오늘의 밥상주인인 굴은 전날 택배로 일찌감치 도착해 삼촌네 목욕탕에서 대기 중이다.



겨울별미 굴을 봄동과 물미역에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된다.

"내가 어젯밤에 보다 못해 살짝 먹었잖아. 한 칠팔십 개는 먹고 잤나봐."

칠팔십 개가 '살짝'이라니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 산수법이나, 도둑이 제발 절인 냥 이실직고를 하니 까짓 이해 못할 게 무엇이랴. 그래도 못내 미안한 윤 삼촌, 남아도는 겸연쩍음을 전환해보고자 제자들을 위해 준비한 새해카드를 공개 낭송한다.

"우선 김 여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넓게 넓게 하늘을 담아라' 그리고 우리 이 여사님은 '생각을 키운 만큼 발로 차라.' 발로 촬게 너무 많은데도 못 차잖아. 영이는 '깊은 곳에 앉았으나 하늘이 작으니 별을 많이 봐라.' 그러니 영아, 새해엔 별 좀 많이 보고 살아…"

"그런데 나는 그냥 넓게도 아니고 넓게 넓게네. 따블로 넓어야하네."

언니들의 입심에 힘입어 막내인 나도 질 세라 "폭으로 가나 깊이로 가나 결국 하나로 통할 건데 굳이 별을 많이 봐야 해요?"라고 한마디를 보태니, "쪼개봐. 쪼개면 또 달라져"라는 응수가 돌아온다. 왕년 목사님의 이력에 강사의 말발을 누가 당하랴.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말발을 제압할 임자가 나섰으니, 노릿한 파전 위로 탱글탱글하게 물오른 굴들의 향연이 상위로 펼쳐진 순간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어진다.

"굴전을 할 땐 전이 다 익을 때 굴을 올려야 굴 맛이 사는 거예요"

원실 언니가 비법을 일러주는 사이, 왕언니는 봄동과 물미역을 곁들인 생굴 보쌈을 두 접시나 내왔다. 며칠 전부터 봄동 타령이던 삼촌은 봄동과의 해후에 더욱 감복하여 굴 보쌈을 제대로 먹는 부산식 비법을 공개하며 시범까지 보인다. 일단 봄동 한 이파리를 손 위에 올리고, 싱싱한 물미역을 한 아름 안긴 다음 굴을 초장에 듬뿍 찍어 올리는 것이다.

"이런 걸 많이 먹어야 건강한 거야. 자, 교양 떨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 '아' 해봐요. 쌈 먹을 땐 교양 떨면 들어가지도 않고 맛도 떨어지니까 교양은 절대 금물이야."

평소 밥맛이 부실한 하경 언니를 위해 특별히 윤 삼촌의 쌈 서비스가 이어지고, 시댁이 부산인 원실 언니는 시어머니의 어깨너머로 본 다양한 물미역 요리법을 설명한다.

"시댁에 가면 물미역을 데쳐 나물을 하는데 한 여덟 가지는 되나봐. 홍합에 굴을 넣어 무치기도 하고, 톳에 두부를 부셔 넣고 나물도 하는데 정말 맛있다니까."

왕언니는 봄동에 된장을 올려 쌈 싸먹는 재미에 빠져 "아구 맛있어"를 연발하고, 입이 짧은 하경 언니도 오늘은 밥맛이 절정에 달해 "어째 우린 공부보다 밥 먹고 수다 떠는 걸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라며 소감을 털어놓는다. 그새 굴전 세 판에 굴 보쌈 두 접시가 동이 나고, 굴의 비릿한 향기로움이 배속 그득 머금어져 입맛과 수다에 더욱 힘이 실린다. 하기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무언들 맛나지 않을까.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⑭



침향은 부처님 복장의 대명사

침향은 복장 공양물로 반드시 올려야 되는 첫 번째 물품이다. 불상은 조성을 마친 후 복장의식과 점안식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예불을 받게 된다. 이때 복장의식을 행하는 중에 침향은 복장의 가장 높은 곳이나 명치 부분에 안치하게 된다.

그 이유는, 침향의 본래 의미인 향공양으로의 뜻도 있지만, 침향이 지니고 있는 기운과 항균작용으로 인해 경전이나 다른 복장물이 상함이 없이 지켜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또한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배어 나오는 침향의 기운이 불상전체에 미쳐 항상 법당을 청정하게 지켜 나가기를 바라는 이유도 있다.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과 복장으로 나온 침향.

실례로 1100년 전인 신라시대에 조성된 해인사의 법보전 비로자나불은 중화3년(883)에 조성된 신라시대의 목불로 현존 최고의 목조불상으로 밝혀졌는데, 지난 2005년 개금 시에 복장물에서 침향이 발견돼 화제를 모은 일이 있다. 천 년을 넘는 시간에도 복장물은 하나도 상함이 없이 보존이 잘돼 있었다고 한다. 오직 원력만으로 오늘날에도 구하기 어려운 침향을 복장물로 구해 올린 그 불심에 새삼 가슴이 벅차면서도 감동으로 가슴이 저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침향은 향과 그 약성으로도 훌륭하지만, 일면에는 벽사의 의미도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사악(邪惡)한 기를 침향이 물리친다는 뜻이다. 중동지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초상집에 다녀온 후에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침향을 불살라 그 향을 맡는 전통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풍속에 상문(喪門)을 예방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침향의 강한 항균, 소염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공기 중에는 으레 많은 전염성 병원균이 존재한다. 몸이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허해지면 양명경(陽明經)인 코와 입으로 악기(惡氣)인 병원균이 쉽게 침범 하게 된다. 천태지성의 극강한 기운을 지닌 침향의 기운은 이러한 악기를 살균하고 소멸시키기에, 흔히 음기(陰氣)로 불리는 사기(邪氣)를 물리치는 벽사(辟邪)와 부작(符作)의 상징으로 대변된다. 이는 불가의 호신부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최고의 향으로, 약재로 인정 받아온 침향은 더욱이 불가에서 가장 성스러운 신물로 부처님 재가 시부터 공양의 대명사로 불리어왔다. 이러한 기운과 상징성이 있는 침향이, 항상 청정하고 맑음을 지켜가는 불가의 최고 공양물이 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02)3663-6777 (계속)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⑲ 향기요법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심신의 건강과 깨달음 선사하는 향기요법

 # 향기로 건강과 깨달음을?

향기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불교경전 가운데에는 향(香)에 대한 언급이 다수 거론되어 있으며 향내를 맡는 것으로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유마경(維摩經)> '향적품(香積品)'에서 이야기한다.

유마힐 거사가 중향 보살에게 묻기를 "향적부처님께서는 어떤 법문을 말씀하였습니까?"하니, 보살들이 답하길 "저희 국토에서는 문자 없이 설법합니다. 단지 중향(衆香)으로써 모든 천인(天人)들을 율행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각각 높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 미묘한 향내를 맡으면서 즉시 일체덕장삼매(一切德藏三昧)를 얻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향은 더러움을 벗어남을 뜻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향을 사르면서 마음을 정화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좋은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거북한 향을 맡으면 마음이 불쾌한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처럼 인간의 후각을 자극하는 향은 몸과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치료까지 해주는 힘을 지닌다.

 # 향기요법(Aroma Therapy)이란?

향기요법이란 향기가 지닌 바로 이러한 힘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향기를 의미하는 아로마(Aroma)와 치료를 의미하는 테라피(Therapy)의 합성어로 아로마테라피 또는 향기요법 등으로 불린다. 이 향기요법은 다양한 천연 식물인 허브의 꽃, 잎, 뿌리, 줄기, 열매 등으로 추출한 100% 천연 에센셜오일(essential Oil)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각각의 특성을 이용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치유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 유지 및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체 요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 향기요법의 적용방법 및 효과

가장 쉽게 일반인들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램프확산법, 흡입법, 목욕법, 마사지법, 로션이나 크림에 섞어 쓰는 법등이 있다. 보통 램프확산법은 아로마 버너(burner)나 램프 등을 이용해 실내에 향이 퍼지게 하는 방법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자 주로 분위기 전환이나 공기정화 등에 사용된다.

▷ 흡입법은 임상적으로 볼 때 코막힘이나 콧물, 감기, 호흡기 계통에 효과가 좋다.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해당 에센셜오일(페파민트나 유칼립투스 등)을 4~6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증기를 쐬어주는 방법이다. 코의 점막을 통해 직접 흡입하므로 코나 머리는 물론 목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은 물론 증세도 크게 호전된다.

▷ 불면증에는 라벤다, 캐모마일 오일 등을 베게에 뿌려두거나 티슈 등에 2~3방울 떨어뜨린 후 흡입하면 효과가 있다.

▷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등이 심할 때에는 일랑일랑, 클라리세이지 등을 뜨거운 물을 부은 머그잔에 떨어뜨린 후 흡입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다.

▷ 운전 중 졸음을 방지하거나 상쾌한 기분, 두통 등에는 레몬이나 유칼립투스 등을 사용하는데, 봉제인형 등에 떨어뜨려 차안에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만성피로에는 라벤다, 쥬니퍼 등의 오일을 이용해 족욕을 해주면 스트레스와 피로가 확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근육통에는 페파민트를 호호바 오일 등에 섞어 마사지 해주면 통증이 완화된다.

 # 향기요법의 주의사항

향기요법은 임산부나 혈압이 높거나 낮은 사람, 천식환자 등은 주의를 요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오일은 순수하고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만 치료효과가 좋다. (02)576-7575 (계속)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운명을 바 꿔 주 는 "기도의 비밀"

한 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 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 성취 기도 법이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훼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기도의 비밀이 자신의 인생과 가족평생의 길흉화복을 좌우합니다.
관음정사에 오시면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 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 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296-7806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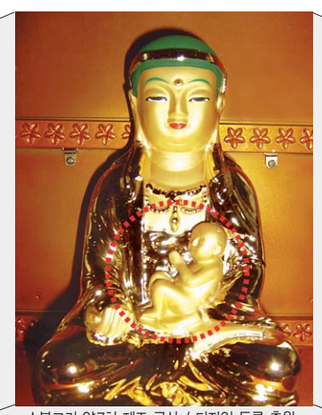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 록 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주지스님께 권합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아래 태아영가를 정성과 사랑으로 품에 안고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장보살님(소불)을 법당에 모셔두고 낙태영가 천도대신 지장보살님을 한 佛씩 모시도록 권장하시면 쉽게 동참하시여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불크기 약7치 제조 국산 / 디자인 등록 출원

문의전화
051)336-9922 / H.P 011-567-2626

부산 북구 법정사 주지 합장

계좌번호 : 농 협 177467-51-075633 법정사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새마을 1615-09-045513-6 법정사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CBC108.TV 연합불교방송
•법문, 법회 촬영 •방송
•홈페이지 제작/네트워크구성
•DVD 제작 •이미지 사진 촬영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 천도재 · 점안법요식
사찰노래자랑 · 음악회 기획
www.CBC108.co.kr
02)837-2003/011-356-3427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뮤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6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염불,불공해드립니다
49재(입재,회향),천도재,
점안,예수재,수륙재,
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 승무춤)
016-238-6215
선 연 화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근불교전통의식근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역학 빙의 퇴마법전수
1.역학 실제감정위주로 1주일 비법전수
2.내용:명리학,주역,매화역수, 풍수지리,성명학
3.빙의 퇴마법 속성 비법전수
4.귀신들린병 퇴마 잘해드림
관음정사 도통스님
010-7443-3060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근 금 명 사
원인불치병 · 산소처방
혼사지연 · 영통부적
시험각종비법
하루전 예약상담
농협 071-02-217956(이민혜)
010-4185-8853
010-2037-8857

퇴마심령기(氣)치유
빙의,신병,두통,치매,우울증
정신질환,알콜중독,환청,불면증등
•불안공포,악몽,위장병,우환,만성질환,부인병등
•각종치료나 천도재를 해도 효과 없는분
※나쁜기운을 빼면 팔자가 바뀝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큰 법력으로 사물 · 바라 · 살풀이 무,극락무,지전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불화 점안 각종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도서관 추진위원회
010-7625-4455

총무원에서
비구니스님
모집 교육(45세 이하)
063)353-1232
010-9991-2671

불사금 발원
불사금으로 소승에게
1억원을 쾌척하실
불자님을 찾습니다
010-3116-1992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계룡산 묘광사에서 노후의 삶을 함께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산세좋고 물좋은 깨끗한 도량
일부 시주금을 받고 종신제.1인1실
전화 041)857-5828
010-2303-7176
정현스님

최단기 숙직교육
수료후 포교사, 법사,
비구,비구니스님
되실 분
한국 불교의식대학
011-789-747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북구
053)313-5908

비어있는 사찰
관리하여 드립니다
비구입니다
011-850-017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의령(조계종 산중 사찰)
055)573-5228

老母 모시고 사는
比丘僧입니다
▷아담한 암자(절)
지극한 효심으로 보시 할 분
기다리는 전화
010-7281-2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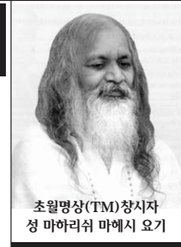
행 자 모 집
스님 되기를 원하는 분
수행하면서 공부하실 분
죽림선원
010-3047-0233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1/7(수) 18:30 • 개강 : 정도형 선생
•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수료증 자격증
사주 전과정 45만원.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02)2264-0258

새 벽 소 리 茶
30여종의 한방원료로 발효 추출 과정을 거쳐 인체에너지 활성에 유용한 40여종의 성분을 뽑아내어 성분검사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풀잎뿌리식품 새벽소리茶
◆구입문의 041)673-8860
※판매금액은 불사금으로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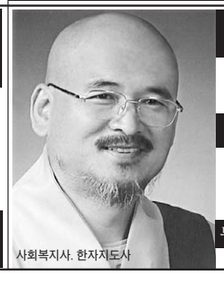

초월명상(TM)창시자
성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견성 체험 / 쉽다, 빠르다 - 이미 세계 6백만 애용!
초 월 명 상 (TM)
"깨어있는 휴식이 곧 깨달음이다" - 능엄경
하버드 의대, 일본 노동성 등 600여 연구 효과입증
잠보다 3배 깊은 휴식 / 삼매경, 자아완성(깨달음)
두뇌의 질서성, 집중력, 창의력 증가 / 노화역전 / 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우울증 퇴치
〈지도자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www.초월명상.kr
한국초월명상센터 ☎02)598-3152 지방 010-7443-1296 (예약제)

한국불교불광종 입종안내 행자 모집
종단 민속철학협회소속없는 스님법사 보살 철학사입종환영
법당 철학신당에빌어도천문이열리지않아 신을 띨까 법당 폐문할까 고민하는분
상단불공·신장불공·지장불공·산신불공·불명짓는법
용왕불공·조상천도·칠성불공·관음시식·구명시식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제작
(농협계좌) : 150022-51-167171(예금주 : 한국불교불광종)
국제역술협회입회환영주소 : 대구시 서구 내당 2,3동 923-142
전화 : 053-561-4440, 011-9422-1885 F.524-3644

대방등 대집경 개인지도
• 어떻한 문제점도 28숙 기도로 다 해결됩니다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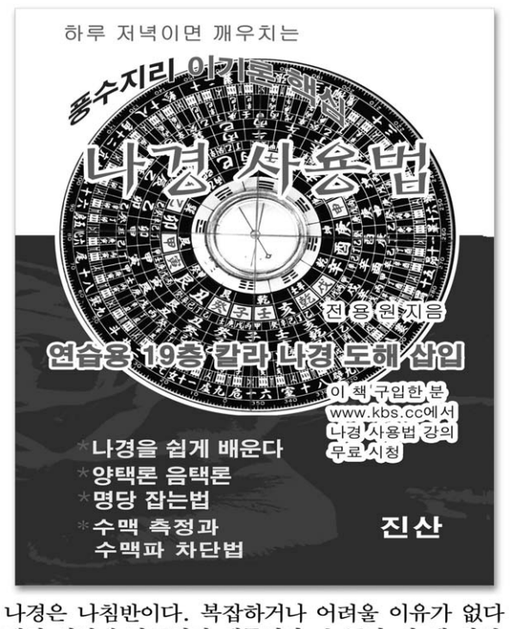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사주프로그램CD
명 리 보 감
命 理 寶 鑑


Best!!!
최고의
프로그램
정확한 용신
사주, 육효, 대정수, 자미두수
양택, 궁합, 작명, 택일, 고객관리
www.goodcycle.com
네이버, 다음에서 "명리보감"이라고 치세요.
Tel. 02-3472-5933
명리보감 역학연구소

패철 보는법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괜히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천 이상 구입시 천당 2천원 추가 할인.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 주문전화: 1688-1137 한국역학협회 명당탐지기 관룡자, 심룡척도 있습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자리에서 정확하게 옆으로 회전합니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잡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룡자는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해드리고, 케이스(2만원)+월간역학 1년분(10만5천6백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 등 푸짐한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

구입방법: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 - 1137

효사 육임·CD 최종 완결판 출시·교환 안내
- 고도의 적중도와 효과성이 담보된 활인천역자 用 매우 쉬운 임상 활용 실기서

曉 史 六 壬 刪 策 육임비법 정리 최종판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 1권,6권,60권 · A5,A4,A3中 선택주문교환가능
◎ 시보 · 내정 · 형이상(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 침범여부 및 그 해소지침 · 연명(띠별)운세(귀인 · 직녹 · 상매승진 · 병재 · 관재 · 빈궁 · 불성 · 산기자 여부) 1년신수 · 육임사주감정활용편(대 · 세 · 월 · 일운 및 병 증세, 육친길흉 사상 등) 배우자 궁합 등... 名品출시 · 교환중!

- 원 터치 기능에 의한 간편성으로 기선제압이 제고된 상담용 CD 프로그램

曉 史 活 人 天 役 集 I II III 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출시중) 분개(分個) 판매 중
◎「효사활인천역집」에 종합 장착된 내용 및 분개 판매 CD 프로그램들

■효사육임산책	CD	250만원	■효사숙사주	CD	70만원
■육임대계전서	CD	400만원	■성명학	CD	50만원
■육임1년신수비결	CD	100만원	■부적보감	CD	30만원
■육임길흉성부단정	CD	50만원	■동의보감	CD	10만원
■도사에게물어봐	CD	50만원	■매화역수	CD	30만원
■출산길일길시비법	CD	50만원	■월영도	CD	30만원

위 의 CD프로그램들은 최근 최정련판 서책활용서로도 주문 판매하고 있습니다.

- 최종 개편 · 증보된 八版本 학습 · 활용 육임학 총서

曉 史 六 壬 講 論 上 학습용 下 임상용
정가 45만원 · 교환 35만원 · 上권 25만원 · 下권 25만원
◎ 上권 : 육임학습에 한하여 더이상 의심이 없게함. 下권 : 임상실기서 임

- 인생의 命 · 運 복분과 미래사가 한 눈에 보이도록 구성시킨 임상용

曉 史 六 壬 四 柱 鑑 定 法
정가 20만원 · 교환불가
◎ 본인 · 배우자 · 육친 · 대 · 세 · 월 · 일 운세 및 발현질병을 한 눈에 보고 판단하게 한 육임학에서만 가능한 육임 사주법! 학습 · 활용편으로 구성시켰습니다.

서울지역 02)833-8683 담당 정용철 |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 부산지역 051)908-8683 담당 진민경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 부지 : 80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기
● 법당 : 24평
● 요사 : 24평
● 부지 : 560평
● 가액 : 6억

● 위치 : 서울
● 법당 요사 : 160평
● 부지 : 62평 (역세권)
● 가액 : 15억

● 위치 : 인천지역
● 법당 요사 : 125평
● 월:1억 / 300 ● 양도가 1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아주 급한 대사찰 산내
● 위치: 경북지방 시내(15분거리)
● 총대지:4000평
● 법당(단청):30평(목조 3포 5포)
● 지장전(단청):30평(목조)
● 삼성각(단청):20평(목조 3포 5포)
● 요사채:60평, 2층 방6칸(스라브)
● 주지실 및 공양간:약 45평
● 좌불 13자 노천불(옥불 108위)
●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 산세최고
● 사계절 계곡물, 12m도로접.평지 복지시설 용지 2500평 공대지
● 약 30억불사
● 가액 : 3 분의 1값 (개인사정으로 급매도)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삼방동 신어산 기슭
● 부지 : 약 2000평
● 법당 : 50.4㎡ ● 요사채 : 87.7㎡
● 납골당 : 99.0㎡ ● 지장전 : 53.0㎡
● 종교단체 납골당 허가 있음
● 가액 : 16억원

055)337-0111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에서 5분거리
● 아늑하고 아름다운 바위와 산이 어우러진 영동에 최고의 위치, 상권을 가지고있고 영동을 지나가는 길목에 항상 차량통행이 많으며 사찰,토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입주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리지역 : 평당 85만원평수300평 주변에는 약 200만 국유지땅

010-4046-663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전세만가능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사 찰 안 내

● 위치:전북 김제시 순동 127-1 (전주, 군산, 익산 20분거리)
● 대지 : 416평, 요사채 약 50평 (옛날구옥 : 문화재급) 2층 벽돌기와집(총 60평) 1층 40평 법당 20평, 2층 20평
● 경관이 수려하고 조경수 좋은 정원있음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63)547-8895
016-9231-535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내
● 대지 80평, 법당 15평
● 요사채 방 4개,주방 2, 거실 1,욕실 1
● 가액 : 2억 3천만원 (절충가능)
● 전세, 월세 가능함
● 주인직접

011-792-8969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얼음골 근교
● 평수 : 약 1만평
● 명산 계곡절경, 경관수려
● 가액 : 8억

010-4876-5535
011-877-7677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 법당 25평, 삼존불,
● 대지 600평,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8천만원 (융자 가능)

010-9798-1091
영주불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거리
● 평수 : 약7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0-6332-911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 평수 : 71평(3층건물 중 2층)
● 구조 : 법당46평, 방3, 주방1, 화장실2, 욕실1
● 보증금+시설비 : 3200만원 월 62만원
● 타지역 불사 관계로 급 양도 시설 A+급. 천일기도중

011-9906-03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 평수 : 24평 (법당, 방2, 거실 : 공양간)
● 보증금 : 1500만원,월65만원 시설비 : 상담후 절충
● 즉시법회가능, 모든 시설 완비

010-2082-8497

도 심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부 산 대 사 찰

● 한옥법당1동, 한옥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16억

051)862-0108
011-563-154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양산의 중심지
● 4층건물중 3층
● 평수 : 54평
● 법당 1개, 방 4개 시설 특 A급
● 전세3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품비 확인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개인사정상

055)365-3562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문현동 중심가 (지하철 서면역과 2정거장 거리)
● 평수 : 약 20평, 임법당 외 방 3개(큰방1,작은방2)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450만원(절충가능)
● 역술인, 법사님, 보살님 환영

010-4303-169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전철역 인접 4차선 대로 2분. 산밑 앞이 트임
● 대지 350평, 방2,주방,욕실,거실
● 주차 여러대 완비. 텃밭 용이
● 전세 : 2,000만원
● 위치 : 서울 은평구
● 전세 : 3,000만원
● 공부하는 비구니 스님에 한함

011-9128-206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 2동 (초량시장 내)
● 3층 건물 중 3층(50평) 법당, 삼존불 거실, 방 2개(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1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51)466-7237
010-5493-337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2분거리
● 최근 개원, 사정상 급매
● 상가 3층 중 2층 50평
● 법당,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시설특A, 냉난방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5천만원

010-3116-1992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 큰방2, 작은방2 거실, 욕실, 화장실2 구조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평수 56평, 법당, 방 3,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0-6739-6426

평생토굴분양

자격 참선수행에 득력한자로서 마음껏 공부하다 죽을 각오가 정리 되신분
● 분양가 : 3천만원 (1인1실 방93개 선착순)
● 대상 : 사부대중 종단불문
● 위치 : 서울시 삼각산 남향명당혈에 위치함
● 교통편 : 버스 110번,143번, 162번,1113번,1020번 종점에서 5분거리
● 자가용 소지자는 절대분양못함

02)914-4235
주지 대우 합장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광안 4동 대로변 위치
● 4층 건물 7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완벽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시설비 절충

010-8606-7918
051)767-031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율하역 5분거리
● 평수 : 3층 건물중 2층 60평
● 법당1, 방3, 주방, 욕실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시설일체

053)965-8793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37-658번지 (인천 도심포교 최고요충지)
● 인연있는 스님기다립니다
● 법당 20평,방大1,방小2개, 부엌,화장실2,심야보일러실1개
● 시유지 600평사용 가능
● 가액:1억 5천만원

032)428-0523
011-891-2933

사찰(급)안내

● 위치 : 천안 IC에서 5분거리
● 가액 : 싯가 8억 → 5억으로 사정상 급안내하오니 사실분만 가격 절충 없슴 전통사찰 인수하실 스님
● 가액 : 35억(가격절충가)
● 위치 : 전라북도

011-657-7529

사찰안내 (불사하며 분할가능)

● 위치 : 경북 고령, 국도변 대구~30분
● 대지 : 약 800평,건75평(복합건물)
● 법당 : 약 25평, 삼존불, 방 7개, 주차장, 텃밭약 500평
● 요양원,영옥사리불(납골), 5000불 안치계획
● 양도가 : 융자(9천 7백)안고 1억 5천입주(시세절반값)
◆ 위건물과 별도 : 대142평, 건30평 신축(암자가능 7천입주) 융2500만원

017-501-2315
053)471-3123

사 찰 안 내

● 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대원정사 극락원
● 총대지: 378평,
● 법당목조단청32평, 산신당 용왕당,종각, 칠층석탑, 석조약사여래입불상
● 요사채 30평,반지하 100평
● 성산일출봉이 보이며 관광일 주도로변에 위치
● 급 양도가 : 3억 3천

064)702-9982
011-858-88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
● 평수 : 200평 모든시설완벽 (황토방,심야전기보일러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전세가능 5천만원(절충가)

017-805-67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 법당 삼존불
● 보증금 5백만원 년 3백만

010-9349-551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성북 길음동 전철역 바로 앞 2층
● 평수 : 37평(실평수)
● 점안식 안했음.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산신탱화
● 방2개,공양간,욕실,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별도 2500만원

010-2665-239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평수 : 대형 재래시장 주변 2층 50평
● 법당, 방3, 주방, 각종탱화
● 보증금 2500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약간(절충)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1-9342-9794

토 굴 안 내

● 위치 :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 2리 518번지
● 시설 : 집 외부는 적벽돌 이중으로 황토를 입혔고,집 내부는 심야전기, 기름보일러,온돌로 황토바닥이 되어 있음
● 부처님과 탱화가 모셔져 있음. 비구니스님이면 좋겠음.
● 트튼하고 아늑하며, 우풍이 없고 공기와 물이 좋음.
● 평수 : 대지 102평, 건물 35평
● 특징 : 세간도구 다 갖춰져 있음.
● 양도가 : 9,500만원(절충가능)

011-9235-07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7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진주에서 30분 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용왕당 각 1평, 요사 3채 75평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11-9571-171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기장대변입구 주공 아파트앞 2층 건물중 2층 옥상사용
● 평수 : 35평 시설 A급,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7223-5677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확장 이전 관계로 임대합니다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 3층 50평 / 전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전철 1분 (빙의 · 퇴마 · 최면 전수 후 임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연세 빌딩 후문
● 3층 30평 / 전 1000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전철 1분 (최면기술 전수 후 임대)

010-4444-785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무자년 동안거 12월 보름 법문

“부처님 말씀 바르게 실행해 깨달을지니”

법 사 : 진제 스님(대구 동화사 조실, 부산 해운정사 조실)
일 시 : 2009년 1월 10일
장 소 : 대구 동화사 대웅전

온 천지가 의심으로 가득 차면 홀연히 보고 듣는 찰나에 화두 깨치지요

동화사는 요즘 정진 열기로 뜨겁다. 스님들은 동안거 결제에 임한지 석달째에 접어들었고, 신도들은 120일간 약사여래 12대원의 원(願)을 좇아 하루에 1000배씩 12만 배 정진에 들어갔다. 이들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억만년 다하도록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의 스승이 되는 견성법(見性法) 성취를 발원하며 수행정진하고 있다. 이미 절반 이상 지난 시점이지만 어느 한 사람 조급해하지 않는다. 누구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두를 지극한 마음으로 붙잡아, 간절한 의심만 지속 되면 천 사람 만 사람이 한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제 스님의 법문 덕분이다. 스님의 법문을 옮긴다.

상당(上堂)한 뒤 주장자를 들어 대중에게 보인다.

天地同根(천지동근)이요 萬物一切(만물일체)라.

心外無法(심외무법)이요 法外無心(법외무심)이라.

種種計較(종종계교)가 夢中(몽중)에 說夢相似也(설몽상사야)라.

천지가 뿌리를 같이함이요, 만물이 하나로다.

마음 밖에 법이 없음이요, 법 밖에 마음이 없음이로다.

가지가지의 계교가 꿈속에 꿈을 설함과 같음이로다.

우리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 진리를 밝히는데 여생을 바칠지니,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밝히지 못하면 또 만나기가 어려움이로다. 그러니 이러한 좋은 법을 만난 김에 어떻게 하던지 심혈을 기울여 화두가 밤낮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게끔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천지가 의심천지가 되면,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고 자기의 참 모습을 보게 됨이니, 이로써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부처님의 국토에 이르러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식의 법문을 지극정성 잘 듣고 바르게 실행에 옮겨서 바른 깨달음을 얻을지니, 이로써 사사시주(四事施主)의 은혜를 다 갚게 됨이요, 육도윤회를 보려야 볼 수 없는 부처님의 열반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석일(昔日; 옛날)에 무착(無着) 스님이 남방을 떠나 북방 오대산(五台山) 문수(文殊)보살님 친견의 원을 세우고 일보일배(一步一拜)하며 출발했습니다. 수년을 걸려 오대산 입구에 도착하여 어느 숙소를 찾아가니, 한 노승(老僧)과 시자(侍者)가 무착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노승이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고?”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의 불법은 머물러 가지는 것이 어떠한가?”

“말세의 비구가 계율을 조금 받들고 있습니다.”

“대중은 얼마만큼 모여 사는고?”

“혹, 삼백의 대중이나 오백의 대중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무착 스님이 이렇게 답하고 노승께 물었다.

“여기는 얼마나 머물고 있습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머물고 용과 뱀이 혼잡(混雜)하니라.”

“대중은 얼마만큼 모여 살고 있습니까?”

이에 노승이 대답하시기를,

“前三三 後三三(전삼삼 후삼삼)이니라.”

하시고는 유리찻잔을 들어서 무착 스님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남방에도 이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다면 무엇으로 차를 마시는고?”

이에 무착 스님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잘 곳을 구하니, 노승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이 집착하니 여기에서 잘 수 없다.”

“저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는 수계한 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십하(二十夏)입니다.”

라고 하니, 이에 노승께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크게 좋은 것이니라” 하시고는 균제 동자(均提童子)에게 객을 내 보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에 무착 스님이 가면서 동자에게 묻기를,

“조금 전에 화상께서 前三三 後三三(전삼삼 후삼삼)이라 하시니, 이 얼마나 되는고?”

하니 동자가 무착 스님을 불렀습니다.

“대덕(大德)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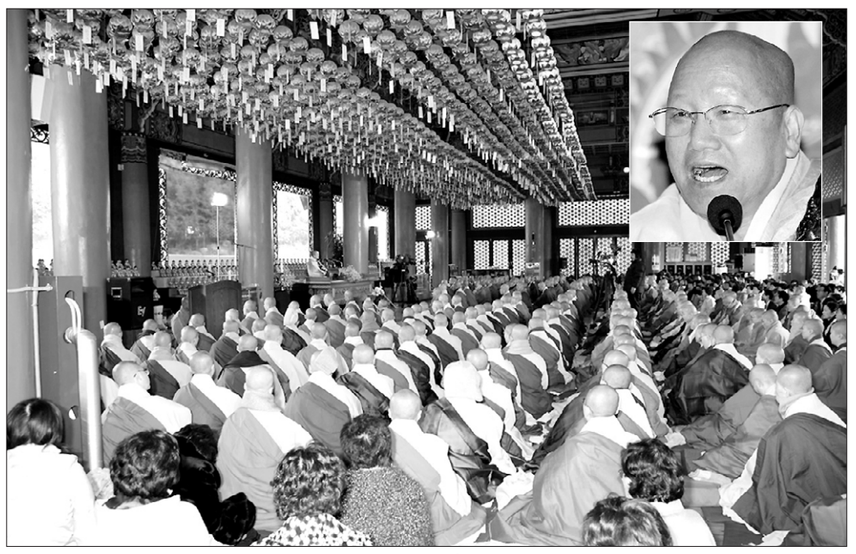
이에 무착 스님이 고개를 돌리는 찰나에 동자가 묻기를,

“얼마나 되는고?”

했습니다.

무착 스님이 다시 보니 화사(化寺; 문수보살이 신통으로 나툰 절)에 편액(扁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동자에게 묻기를, “이 절 이름이 무엇인고?”하니, 동자가 손으로 금강신(金剛神)의 등 뒤를 가리키면서, “보고 보라!” 했는데, 무착 스님이 고개를 돌려 보니 절도 없고 사람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월 10일 동화사 대웅전에서 열린 무자년 동안거 12월 보름(음력) 법회에서 법문하는 진제 스님과 청법 대중.

동화사, 스님은 동안거, 신도는 12만배 정진 열기 뜨거워
간절한 화두 의심 지속되면 진리의 문에 들 수 있어

훗날 무착 스님이 오대산에서 수 년을 기거하면서 전좌(典座) 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지일(冬至日)에 가마솥에 팥죽을 젓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팥죽 속에서 솟아오르니, 무착 스님이 팥죽 젓는 주걱으로 문수보살의 뺨을 때리면서 말하기를,

“문수(文殊)는 스스로 문수요, 무착(無着)은 스스로 무착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남방에서 북방 만 리를 지극정성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절하는 그 훌륭한 신심에 문수보살이 감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착 선사가 문수보살을 두 번 친견하여 불법안목(佛法眼目)을 갖추어 멋진 중노릇을 한 것 입니다. 그러니 금일 모든 대중도 무착 선사와 같이 이러한 신심을 내어 백천 불보살을 친견하고 만 가지 소원을 성취하길 바랍니다.

석일(昔日)에 우두(牛頭) 선사가 사조 도신(四祖道信) 조사를 친견하기 전에 좌선삼매(坐禪三昧)에 들어 있으면 천동(天童) 천녀(天女)가 내려와서 공양을 지어 올리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와 수북이 주위를 쌓아놓았습니다.

이에 우두 스님이 도신 선사를 친견하니, 선사께서 “모든 천상 사람과 모든 조수(鳥獸)들이 엿보는 그러한 공부를 어디에 쓰겠는가. 네가 그러한 삿된 견해를 가지고 어찌 불법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시며 꾸짖으시니, 그 후로는 더 이상 우두 스님에게 천동 천녀들이 공양을 올리거나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전(南泉) 선사는 124명의 도인제자를 배출한 위대한 마조 도인의 제자들 중 가장 날카롭고 바른 지혜를 갖춘 상수(上首)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학인이 남전 선사께 우두 선사의 법문을 들어 묻기를,

“우두 스님에게 천동 천녀가 공양을 지어 올리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는 것은 어떠합니까?”

하니, 남전 선사께서 “걸음걸음이 부처님 계단을 오름이니라” 하고 답하셨습니다.

이에 다시 학인이 묻기를

“도신 선사를 친견한 후로, 천동 천녀들이 공양을 지어오지 않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아니한 때는 어떠합니까?”

하니, 남전 선사께서 “설사 그렇게 공양을 올리지 않고 꽃을 물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승의 한 실오라기 만큼의 도(道)에도 미치지 못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말 태고 보우(太古普愚) 스님이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끊어진 부처님의 심인법을 이어오기 위해 중국 원(元)나라로 들어가 1년여 동안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석옥 청공(石屋淸珙) 선사를 만나 법이 상통되어 법맥을 이어왔으니, 이로써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선법(禪法)이 유전(遺傳)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해탈법인 바른 참선법을 만나 정진에 임할 수 있음이라, 그래서 조사의 은혜는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음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선의 종조는 태고 보우 선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태고 보우 스님이 석옥 청공 선사를 찾아가 친견하니, 선사께서 태고 스님에게 우두 선사의 법문을 들어 물으셨습니다.

“우두 스님에게 천동 천녀가 공양을 지어 올리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부귀는 만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태고 스님이 이렇게 답하니, 선사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신 선사를 친견한 후로, 천동 천녀들이 공양을 지어오지 않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아니한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빈한(貧寒)하면 자식도 멀어집니다.”

태고 스님이 이렇게 답하니, 다시 석옥 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우주 허공이 태고(太古) 앞에 생겼는가 뒤에 생겼음인가?”

“태고로 좇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산승(山僧)의 스승 향곡(香谷) 선사께서 우두 선사의 법문을 들어 산승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두 스님에게 천동 천녀가 공양을 지어 올리고 백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삼삼(三三)은 구(九)입니다.”

“그러면 도신 선사를 친견한 후로, 천동 천녀들이 공양을 지어오지 않고 100가지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아니한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육육(六六)은 삼십육(三十六)입니다.”

시회대중(時會大衆; 여기 모인 대중) 여러분, 남전 선사, 태고 선사, 산승 이 세 분의 답 처를 잘 가릴 줄 아는 눈을 갖추어야 염라대왕에게 잡혀감을 면하고 천상 · 인간의 진리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필경(畢竟)에 진리의 한 마디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掬水(국수)에 月在手(월재수)하고 弄花(농화)에 香滿衣(향만의)로다.

물을 움켜쥐니 달은 손바닥에 있고, 꽃을 만지니 전신에 꽃향기가 가득함이로다.

정리=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탈 종 공 고

법성(대원사)	본자(연화사)	대현(화남정사)	원광(심원사)	서연(백련사)
승선(마하정사)	송봉(관음사)	설운(관음사)	무공(성암사)	무성(성암사)
정도(용혈사)	법신(법계사)	법천(법천선원)	광월(일광사)	혜명(혜명정사)
혜진(화남정사)	혜공(약수사)	혜공(약수사)	혜선(법화사)	백암(백룡사)

위 사찰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수요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웃음보살 불등거사 〈31〉

구성 : 김흥인



떡 반 개에 배부른 사람

[백유경(百喩經)]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 일곱 개의 떡을 먹으려 했으나 여섯 개 반을 먹자 벌써 배가 불렀다. 그는 화를 내며 "내가 지금 배부른 것은 이 반개 때문이다. 이 반개로써 배가 부를 줄 알았다면 그것을 먼저 먹었어야 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원래부터 즐거움이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어리석고 뒤바뀐 생각으로 제멋대로 즐겁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떡 반개에 배부르다는 생각을 내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로 즐거움을 삼지만 부귀란 구할 때 매우 괴롭고 간수하기도 괴로우며 잃어도 또한 괴롭다.

옛 판화의 세계

죽은 황후를 위해 참회문을 짓다 양황참법(梁皇懺法)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양황참법(梁皇懺法)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본문을 살펴보면 "황후 치씨가 죽은 후에 황제는 항상 그를 추모해 낮에는 바쁜 정무 속에서도 즐거워하지 않고 밤이면 황후를 잊지 못해 잠을 자지 못했다. 어느 날 황후 치씨가 구렁이로 나타나 자신을 구원해주기를 황제에게 간청하자, 이튿날 황제는 궁전의 뜰에 스님들을 모아 그 사유를 말하고 고통 받는 죄를 갚을 최선의 방책을 물었다. 이때 지 스님이 대답했다.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불하고 참회해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황제는 곧 그 말을 따르겠다고 수긍하고 불경을 찾아 그런 경우에 맞는 부처님의 명호를 기록하고 몸소 생각을 가다듬어 성한에 먹물을 뿌려 참회문을 지어 모두 10권의 책을 엮었다. 그 내용은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에서 꺼낸 것으로 긴요하지 않는 말은 삭제해 그것을 예참문으로 삼았다. 어느 날 방 안에 기이한 향냄새가 물씬 풍기더니 한참 후에는 그 향냄새가 더욱 아름다워졌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모르던 황제가 위를 쳐다보니 곧 하늘나라 사람이 나타났는데 용모와 거동이 단정하고 고왔다. 그가 황제에게 말했다. '이 몸이 곧 전날 구렁이의 후신입니다. 황제 폐하의 공덕을 입어 이미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마치자 곧 보이지 않았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양무제의 지극한 불심과 죄업의 고통을 씻는 참회의 근본이 간절한 마음과 정성임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마음 經 55

첩첩이 모여 놀던 저녁구름들 뿔뿔이 흩어져 제 집 돌아간다.
성긴 빗낱에 씻긴
먼 산 뒤통수
환한 쪽빛 속에 둥글둥글 돌출했구나

마음 밖인가 마음 안인가
내 가고 난 뒤 여느 때 역시 저와 같으리

–홍신선/<현대시학>2008년 12월호에서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주 청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존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서 천
김기업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영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사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지사	충 주 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고 양 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 천 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 주 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한경업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장효근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충 북
정경택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충 북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사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무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육 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사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사원	전 주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준공무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천 원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업인	경 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사원	울 산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영업	전 북
박정은	1972년생	168	고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사원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육 직	울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무원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경	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사원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사원	울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사원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무원	울
김왕회	1971년생	162	고 졸	회사원	북
고선식	1969년생	170	고 졸	사	충
강석일	1971년생	170	고 졸	사	서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안 산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산 구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울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리사	울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사원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약사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경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부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서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인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사원	대
오귀석	1958년생	170	고 졸	군 인	충
이진용	195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청
안명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여인석	1971년생	183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박홍철	1974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청
임재환	1970년생	173	고 졸	부동산	대
최우준	1971년생	167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정태	1957년생	16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성민수	1976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퇴	공무원	청
정현제	1965년생	174	대 졸	제과점	청
김호준	1970년생	166	고 졸	버스기사	서
이기종	1971년생	175	대학재	회사원	서
최성욱	1973년생	190	대 졸	도예가	경기도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사원	서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서
박경하	1952년생	177	대 졸	무역업	서
전준석	1957년생	167	고 졸	회사원	천
박천호	1975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충
김 천	1974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
김병준	1973년생	170	대 졸	자영업	서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오영일	195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강태욱	1975년생	169	고 졸	자영업	서 울
김용진	1968년생	160	대 졸	영업사원	인 천
이경술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심명길	1971년생	170	대 졸	영업사원	경기도
이연재	1974년생	169	대 졸	회 사	서 울
배덕열	1976년생	168	대 졸	자영업	경기도
배복열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최병덕	1968년생	170	고 졸	자영업	경기도
장보배	1973년생	176	고 졸	회 사	아산시
유돈석	1971년생	167	고 졸	회 사	서 울
유정환	1974년생	162	고 졸	회사원	대 전
김광범	1970년생	183	전문대	무원	서 울
조경정	1945년생	171	대졸자	영업	경기도
한 균	1963년생	174	고 졸	영업원	서 울
소무영	1961년생	175	전문대	원 원	경기도
지상훈	1971년생	180	고 졸	회사원	서 울
이종필	1974년생	174	고 졸	은행사원	충 북
남상복	1967년생	175	전문대	원 원	김해시
최치원	1976년생	165	대학원	원 원	대 전
김성진	1979년생	171	고 졸	원 원	울산시
백선기	1976년생	167	대학원	원 원	서 울
김창일	1973년생	180	대 졸	사	경 북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마음의 불은 온통 천둥 번개가 쳐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아수라를 좀 보세요. 사기범, 강도, 깡패들이 모두 모여 있는 각 집단을 한번 보세요. 그게 아수라장이죠. 아수라 세계요. 인간계에는 우리 보통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인, 하늘 사람도 여기 살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마음공부를 하셔서 하늘 사람으로서 사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늘 사람으로 사시는 분들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내 집착을 다 버리고, 이 몸의 모든 거를 집착을 안 하고 모든 거를 함이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래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으나 과거로부터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이 자꾸 자기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작동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습이 있습니다. 습! 습을 떼지 못하면 다시 미(迷)해져서 인간으로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만한 것 하나도 다 거기에다가 맡기고 살아라. 그럼으로써 그것이 다 녹아 버린다. 하나에다 모든 거를 맡기면….

시봉 스님 스님, 마이크가 지금 안 나와요.

큰스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잘됐네요, 뭐. (대중 웃음) 아, 캄캄한 속에서 볼 줄을 알아야 되고…. 나도 예전에요, 참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춤도 출 수 있고 무술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요. 그런 것도 그렇고 '글씨도 쓸 수 있구나. 그림도 그릴 수가 있구나.' 하는 거요. 이거 매사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보통 인간이고, 심안으로 보는 분은 조금 공부한 분이고, 법안으로 보는 분은 단계가 조금 더한 분이고, 또 불안으로 보는 분은 아주 부처님 단계까지 점점 가는 분이고, 혜안으로 보는 분은 아주 부처님 자리에, 다보탑에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남이 '너는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부질없는 말로 듣고 그냥, 그걸 탓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게. 크고 작고 이런 것도, 때로는 아주 작게 들어가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크게 들어가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조금 작게 들어가야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두서가 없는 것이 진리인데, 이 공부인데 어떻게 정해 놓은 게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정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부처라고 부른 겁니다. 부처님은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거지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그건 부처가 아니죠.

지금도 안 나옵니까, 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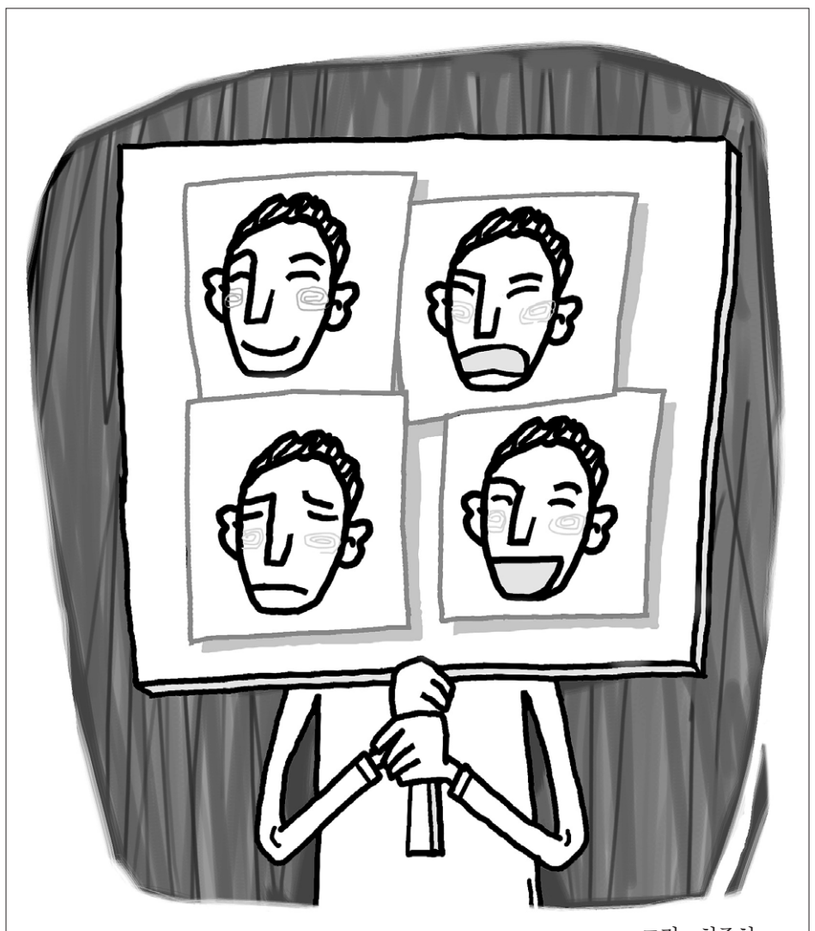
대중 예.

큰스님 예, 그러면 이런 데서 또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신도들이 말입니다, 어느 신도는 와서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어느 신도는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그냥 있다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천차만별이죠. 어떻게 하고 가느냐는 그런 문제들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말한 분보다 안 한 분이 말을 다 하고 가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다 듣고 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요즘은요, "예수재래요!" 하면서 봉투를 갖다가 주고는 합니다. 그게 나한테 오면요, 그러니까 성도 주소도 이름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 것만 알죠. 인간은 그런 것이 없이는 안 되지만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보살이 응신으로 화해서 간다면 주소고 이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주 멋진 공법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저 보이는 것만 제일인 줄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안 보이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마음속으로 한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안 보이는 데서 내 마음속으로 한 건 누가 모르니까 모르는 줄 알고요. 내 마음을 넉넉히, 보이지 않는 데서라도, 자기 혼자라도 넉넉히 써야 바깥으로 넉넉해진단 말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넉넉히 쓰질 않고 그냥 쥐어짜고 있다가, 남이 보는 데서만 돌아서서 허허 웃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중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버리세요. 한 철 살 놈의 거, 이래도 한 철 저래도 한 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그냥 버리고 사세요. 버린다면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도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도 사람이니까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건 가르쳐 드려서 안 되는 건데 내가…. 이 마음이 그 강도와 둘이 아니게 될 때 비로소 강도도 회개를 하기 이전에 벌써 몸부터 조아리게 되는 겁니다, 달려들기 이전에. 그러면 선처를 베풉니다. "나 이거밖에 없는데 가지고 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밤중에 왔어? 낮에 좀 와서 의논하지." 하고요. 난 그런 예가 여러 번 있었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내 그 마음 아닌 마음이 그쪽 마음으로 결부가 되면요, 이제는 그런 짓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서 벌써 그렇게 하는 걸 거부하고 나가는 걸요.

영계성이나 암이나 이런 종류도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고 검토를 계속 했거든요. 검토를 해 보니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인과성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유전이 되는 거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악한 인연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 몸에 주둔해 있다면 그 몸에서 발작을 일으키죠. 모두 잡아먹고 이렇게 되니까 굳어지고 암이 되죠. 그런 거와 같이 몸속에 붙어 있더라고요. 아주 뭐, 거죽으로 나타나지도 않게. 그거를 떼어 내니까 병원의 의사도 그것을 맘대로 조치해서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걸 떼어 내지 않는다면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공부가 모자라니까 못하지.' 이런 생각도 마세요. 이거는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마음이 그렇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자기가 믿어야 되죠. 믿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남이 자기 대신 아파 줍니까, 죽어 줍니까, 또는 먹어 줍니까, 잠을 자 줍니까, 똥을 눠 줍니까? 자기가 꼭 해야 돼, 그건. 자기가 움죽거리는 거 자기가 해야지 대신 움죽거려 주는 법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죽거리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얘기죠. 움죽거리게 되는 동기가…. 자기의 근본, 그 생명의 근본이 아니라면 바로 자기가 움죽거릴 수도 없거니와 속의 인연들도 모두 같이 멸종하죠. 그렇기 때문에 움죽거릴 수가 없는 거죠. 엽렵하시다면 이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어떠한 의심이 가는 점이 있으면 그냥 자꾸자꾸 그렇게 차단을 해 버리고, 또 둘 아니게 그냥 껴안을 건 껴안고, 또 보낼 건 보내고 자꾸 이렇게 하세요. 그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개별적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나를 이끌어 가는 나와 지금 이끌려 가는 나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수레바퀴 돌듯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전선줄을 말했는데, 줄 속에 알맹이하고 껍데기하고 같이 돌아가지 어떻게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이렇게 켤 수 있고, 또는 따뜻하게 해 줄 수가 있고, 또는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이 모두가 전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무수하게 살리고 있는 그 줄 하나가 말입니다. 하나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되지만 각각 집집마다 그 하나의 줄이 끊어져서 없으면 그 집은 하루 종일 추워서 살 수도 없죠, 원 근본 줄이 끊어지면요.

그렇듯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거는 체가 없고 어떤 개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하늘을 덮고도 남고, 들고도 남고, 이건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건요. 그래서 마음이 좁쌀 알갱이 같은 집을 지었다 하면 이 허공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생명들이 그 좁쌀 알갱이한테 다 들어가도 또 남아요. 삼라만상을 다 한 주먹에다 쥐어도 쥐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공부를 잘해서 재주가 있다면 여기 이 지구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죠? 선신 세계에 가서 살 수도 있죠. 즉 말하자면 허공에 큰 문제가 생겨서 뭐, 혹성이 날아왔다 이럴 때도 그 혹성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혹성으로 인해서 부딪치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죽으니까 내가 그 혹성이 된다면 내가 바로 딴 데로 피해 가죠, 해치지 않게. 그렇게 무엇이든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본다면 어디고 가서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도….

옛날에요, 형제처럼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스님들이 있었는데, 한 스님이 저녁이면 나가는데 그 스님의 몸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스님은 그 스님이 어디를 갔는지 알아요. 아, 그 스님이 구름을 타곤 그냥 바짝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

☞26면으로 계속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친목회

비 구 니 회

회 장 혜 연 (불곡사)

총 무 법 천 (불연사)

재 무 주 연 (연화사)

■ 연락처 : 연화사 043)213-3230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호명리 106-2번지

謹賀新年

한국불교미륵종의 대덕큰스님들에게
새해인사 올립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일기도 정진도량

연 화 사

주 연 (미륵종 비구니회 재무)

■ 주소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호명리 106-2번지
(초정 광천수 입구)
TEL 043-213-3230 / H.P 010-8803-1198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한국불교태고종
전북특별교구종무원

종무원장 호 산
자문위원장 향 산
부 원 장 도 일
종무국장 무 능
규정국장 원 공
사회국장 혜 연
교무국장 유 정
재무국장 단 정
호법원장 정 명
호법부원장 명 산
운영위원장 일 허

전북 전주시 인후동 1가 16-13
한국불교태고종 전북특별교구종무원
☎ 063)246-1666 / Fax 063)246-1667

buddhanews.com

지금 한 찰나 공부하는 동안에 세세생생을 얻을 생각을 하세요!

☞25면에서 계속

러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지켜보다가 가는 걸 그냥 중간에서 딱 잡아서 도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스님이 열 개도 됐다가 하나도 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지만, 그것도 함이 없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한테 얘길 해 줘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고선 왜 만날, 그게 뭐가 궁금해서 여자를 찾아가느냐고 그랬거든요. 그걸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를 찾아갈 수 있는 거나 어느 딴 세계에 갈 수 있는 거나 뭐가 틀린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 속에 들어가면 남자예요. 여자 속에 들어가면 여자가 되는 거고요. 부부지간에 사는 데로 들어가면 부부로 그냥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걸. 그런데 자기가 재주가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아주 그냥 치도곤을 안긴 거죠.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냥 막 빌고 나서 다시는 안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무술이나 축지법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지경에 처했을 때, 어쩔 수가 없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거지 아무 때나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몸을 감춘다거나 이런 것도 말이에요. 축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비행기보다 더…, 비행기에다 댈 게 뭐 있습니까? 빛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속도가 빠르니까 뭐, 뭐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저 하나의 모습밖에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공부들 하세요. 하나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모습으로 수많은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급하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에도 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도 맞는 공부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했지만 말입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안 해 놓으셨지만 『화엄경』에도 그렇고 『법화경』에도 그렇고, 보면 그 말 자체에서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한 것이 나타나요, 뜻으로.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즉 말하자면 함이 없이 한 거죠.

예를 든다면, 아주 무지한 업보를 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항상 시끄러운 집안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부딪고 부딪히고 그냥 모두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네 집안을 하나 고치려면 그 과거에 작성해 놓은 서류를 다시 다른 서류로 꾸며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 앞서 있던 서류가 없어져야 그 집안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원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법원이 여기 법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 죽은 세상의 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심부름할 땐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해야,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될 걸 어떤 어려운 집은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일곱 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영령들에게 빚을 진 그런 뜻이라면 내 마음으로 돈을 만들어서, 큰 바다를 정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집을 지어서 거기 데려다가 천도를 해요. 그래야 그 마음이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해서 돈을 조금 가져온다고 걱정도 하지 말고, 또 돈이 있어서 좀 넉넉히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돈이 빠듯해도, 요렇게 모아서 갖다 드려도 우리가 살만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다면 그건 더더욱 좋고요. 우리가 살 때에 남한테 꾸러 가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냥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쌓아 놓고 살면

불 하나 켜 놓는 데 얼마나 자기의 앞뒤가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나 미래의 자식들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촛불입니다

그게 외려 도둑 들어오고 강도 들어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외려. 나 편안하고 식구들 편안하고, 꾸러 다니지 않고 헐벗지 않고 굶지 않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누구도 부럽지 않죠. 평생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드세요. 그냥 발버둥이를 치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양으로 애를 쓰면 자꾸자꾸 멀어져요. 그렇게 발버둥이 치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 산 보고 구경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 있죠? 그렇게 걸어가듯…. 요다음에는 윤회에 대해서 얘길 좀 할까요? 아귀 축생, 그걸 거론만 하고선 얘길 못해서 시원치 못한데요.

하여튼 나는 경전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안팎을 보고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처님 말씀과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거, 사는 사람들도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거, 말씀해 놓으신 팔만대장경이 바로 그 진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저 여러분과도 요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게끔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나지 못한다면 요다음에도 또 못 만납니다. 지금 만날 줄 아셔야 됩니다. 육체로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이 만나야죠. 나뿐이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가고 오면서 나무하고도 같이 만나고 또 좋은 돌이 있으면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돌 속에서 사람 나오는 거 모르시죠? 허허허….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죠. 상원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을 한 가방을 줬어요, 세 사람이. 그래서 한 가방을 짊어지고 밤중에 길을 걷는데 말입니다, 어쩌겠어요? 나는 지금 금방 죽는다고 해도 두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가다 보니까 살얼음이 얼어 있는데, 개천을 건너뛰다가 그 살얼음을 딛는 바람에 개천에 발이 푹 빠지면서 털신 한 짝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 아니에요? 맨발로 가려고 보니까 이 얼음에 살이 붙어서 도저히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셨어요? 얼음에 살이 붙으니까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수건에다가 대나무 잎새를 갖다가 척척 놔서는 그것으로 발을 쌌더니 그때야 걸음이 걸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인데 말입니다, 그냥 이런 걸 덮어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오는데, 숯가마가 있으니까 그 숯가마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지 누가 그런 줄 알았나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이 가방을 착 채요. 내가 무슨 돈을, 꼴을 봐도 돈 가진 사람 같지 않을 텐데, 거지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말이에요, 옆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거길 지나가는데 거기서 그냥 쑤욱, 돌 틈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그 사람네들을 다 쫓았죠. 나오니까 기겁을 해서 달아나갔죠.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서 인사를 받았는데,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런데 나는 줄창 산에 다니면서 인사를 받고 하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걸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말로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미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있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이, 또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마음속으로만 그냥 하고 다녔죠. 그랬는데, 그게 참 많아요. 모두 살아 있다는 걸 증명해요. 모두가 살아 있어요. 목신도 살아 있고요. 그래서 목신이든지 석신이든지 해신이든지 산신이든지 모두가 있어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세생생을 얻을 생각을 하세요. 지금 한 찰나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세세생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 우주를 다 주고 바꾸래도 못 바꿔요. 아주 극난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 공부한 사람을 쓱 보고만 지나갔어도 그거는 좀 사해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에도 벌써 그 사람은 괜찮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항상 무주상 보시를 하고 다니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저 누구나가 다 그럴 수가 있다는 점, 더하고 덜함이 없다는 점을 아셔야죠. 그리고 축생들은 인간으로 등장을 해야, 한번 인간으로 굴러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닭도 얼마나 영악한지요, 신발을 알아봐요. 이 사람의 신발인지 저 사람의 신발인지. 나 별것 다 봤어요, 하여튼. (대중 웃음) 닭을 그냥 쫓고 싸리 가지로다가 때리고 이런 사람의 신발에는 오줌을 싸 놔요. (대중 웃음) 그리고 아주 그냥 모이도 잘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발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 추운데도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그 주인이 나오면 얼른 비켜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못된 거보다 낫지요. 그래서 그 닭이 얼마나 됐기에 저러나 했더니 닭이 180번이나 죽어서 또 닭으로 나오고 닭으로 나오고 그래서, 180번이나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닭은 제창 그냥 사람으로 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한 생 찰나에 이렇게 도리를 알고 진짜로 믿고 그대로 아주 천진하게 잘 사신다면 그거는 '왔다' 죠, 시쳇말로.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 고만두겠어요. 옛날에 말입니다, 왜, 부처님이 계신 데는 등을 켜 놓죠? 불을 다 켜서 이렇게 모두 등을 달아 놓는데, 옛날에는 기름으로 켰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요런 접시에다 기름 조금 해서 심지 만들어서 이렇게 켜는 사람도 많았었지요. 그렇다면 접시에 심지로 켜 놓은 그 불하고 그냥 이런 통에다가 기름을 많이 넣고 켠 등하고 이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신도1(남) 같습니다.

큰스님 고정되지 않다고 만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작고 큼이 없이 똑같긴 똑같은데, 똑같다면 똑같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까닭에 똑같다고 하느냐 하는 이유요. 그런데 그 이유인 즉슨, 말이 길어서 그건…, 지금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신도1(남) 예.

큰스님 누가 그랬어요?

신도1(남) 제가 그랬습니다.

큰스님 그럼 그 이유가 어떻게 돼요?

신도1(남) 같이, 똑같이 불을 붙였기 때문에요. (대중 웃음)

큰스님 허허허…. 분명코 이건 작고 이건 큽니다.

신도1(남) 그런데 큰 거고 작은 거고 없습니다.

큰스님 그런데 물질로 볼 때는 이게 작고 크고가 있죠. 그러나 마음을 깨닫고 불을 켠다면 이것은 등이 아니죠. 등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그냥 등불은 비바람이 치면 꺼지는 불이거든요. 어떤 것이 같습니까?

신도1(남) 그 마음이요.

큰스님 네?

신도1(남) 마음이라고요.

큰스님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을 안 한다면 삐뚜로 나가죠. 마음의 불이라는 건, 불씨라는 건 온통 천둥번개가 쳐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마음의 불과, 그냥 등불이 있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이 등불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는 불이니라." 하고요.

이 중에도 마음의 불이 켜져서 지금도 훨훨 밝히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촛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다 미생물이 있고, 날아다니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다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내 인연으로 인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없다면 없는 거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하나 켜 놓는데 얼마나 자기의 앞뒤가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나 미래의 자식들,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촛불입니다. 이 마음의 촛불, 마음으로 그렇게 켜셔야 되겠죠. 자기 주인공은 꼭 잊지 마시고요. 세세생생에 내려온 주인공이고 지금도 주인공이고 미래에도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 죽는 법 봤어요? 허허허…. 감사합니다.

사회자 큰스님, 감사합니다. 노구를 무릅쓰고 이렇게 자비의 법문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스님 감사하긴요, 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감사하죠. 모두가 감사하죠. 감사 안 한 분들 하나도 없어요.

※위 법문은 1999년 2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한국 대승 불교 조계종

종 정 김봉진
총무원장 윤화봉

원로원장 관능 / 서울시종무원장 혜정
총무국장 운고 / 교육원장 등정
경남종무원장 등정 / 감사부장 약산
경북종무원장 지영 / 감사 사우
부산시종무원장 운고 / 감사 대진
울산시종무원장 혜관 / 호계부장 법경
강원도종무원장 해운 / 비구니원장 덕산
광주시종무원장 법장 / 비구니총무 용주
경기도종무원장 총해 / 비구니재무국장 덕심

■ 총본산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105번지 TEL 055)521-1236 , H·P 011-9528-4026
■ 총무원 : TEL 055)351-0562 , H·P 010-8331-0320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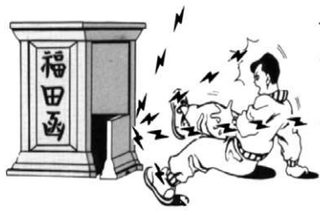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 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유원숭,요잡작법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소설가

도끼의 시대는 이제 그만

부끄러운, 익명의 추억이 하나 있다. 예비군 훈련을 받던 시절이었다. 예비군복이란 유니폼은 괴력을 발휘한다. 그것을 입고 무리 속에 섞이면 객기와 투정, 오만과 방자가 발휘된다. 현역병 시절의 분노와 억하심정이 창처럼 솟구친다. 그래서 일부러 훈련장 질서를 뭉개고 교관을 희롱한다. 동조하는 동지들이 수두룩하다. 익숙하지 않은 쌍소리도 거침없이 나온다. 어지간히 심술을 부려도 결코 구타할 수 없고 영창도 못 보낸다는 걸 안다. 솜털 보송보송한 조교들만 발을 동동 구른다. 내 속에 그런 악마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만용을 부려대곤 했다. 유니폼 속에, 무리 속에, 익명 속에서 누리는 쾌락이었다.

바야흐로 익명의 창과 송곳이 창궐하는 시대다. 인터넷이란 무한바다에 표현의 자유란 갑옷을 입은 창기병들이 넘쳐난다. 마구잡이로 던지는 돌에 누가 맞아 머리통이 깨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혹은 목숨을 잃든 알 바 아니다. 심심해서 내지른 창질에 누군가의 가슴팎에 벌건 피가 흘러도 알 바 아니다.

작은 송곳으로 콕콕 찔러보았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가 나타나고 박수치는 무리들이 우르르 몰려오니 신명이 난다. 우쭐해진다. 어흠! 어느 순간 황제가 된 기분이 든다. 선거유세 한 번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라 부르는 백성들이 생겼다. 통반장 한번 해본 일이 없는데 단숨에 대통령이라니, 기분 짜진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인간은 태어나면서 입안에 도끼를 물고 나온다고 했다. 섬뜩한 경고이다. 인터넷의 바다에는 도끼가 난무한다. 정보의 창고라는 순기능보다 악성 루머, 악성 댓글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인터넷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의견이나 논리를 제시하기보다 단순한 욕설과 협박으로 일관하는 악플이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0.1%의 누리꾼이 댓글의 30%를 도배했다.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좋을 골방백수들이 악성루머, 악성댓글의 주생산자이다. 어느 악플꾼은 하루 23개 꼴로 75일간 1755개의 악플을 생산했다. 긍정보다는 부정, 포지티브보다는 네가티브가 더 매혹적이다. 우리 속에 있는 악마는 생명력이 끈질기다. 부정적 글과 댓글에 누리꾼이 더 몰린다. 그것은 어느 순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왜곡된 여론=영향력이란 원리가 작동된다.

이러한 구조와 심리현상은 고쳐지고 치유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결과 질타, 역공격과 문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악마성에 반발심이란 기름을 부으면 대형화재가 된다. 무차별 공격, 묻지마 살인도 이런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

골방백수와 비뚤어진 심성의 소유자들을 태양에너지가 풍성한 세상 속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땀 흘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바람소리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연의 품이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 짧게는 한 달이면 족하다. 망가지면 반사회적 존재가 된다. 친구 P는 잘나가던 증권회사 지점장이었다. 사건이 터져 그는 잠적한 지 한 달만에 노숙자가 되었고 지금은 연락두절이다. 가정이 해체된 것은 물론이다.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로 되어있던 '미네르바'는 결국 구속되었다. 바라건데, 곤장 몇 대 세게 치고 각서 받고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의 재능을 사회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유능한 해커들이 해킹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역군이 되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묵묵하고 은은하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까불어 흩어버리면서/ 자기 허물은 투전꾼이 나쁜 패를 감추듯 한다." <법구경>

"쇠에서 생긴 녹이/ 쇠에서 나서 쇠를 먹어 들어가듯/ 방종한 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다." <법구경>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나'라는 집착 내려놓는 마음공부하세요"

한 처사님이 보내주신 새해에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답은 마음공부였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㊾ 행복해지는 방법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아라

미워한다고 소중한 생명에 대하여 폭력을 쓰거나 괴롭히지 말며,
좋아한다고 너무 집착하여 곁에 두고자 애쓰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생기나니
사랑과 미움을 다 놓아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분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늙는 괴로움도 젊음을 좋아하는데서 오고,
병의 괴로움도 건강을 좋아하는데서 오며,
죽음 또한 삶을 좋아함, 즉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오고,
사랑의 아픔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하는데서 오고,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두 가지 분별로 인해 온다.
좋고 싫은 것만 없다면 괴로울 것도 없고 마음은 고요한 평화에 이른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 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게 되면
그 때부터 분별의 괴로움은 시작된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인연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이것이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는
수행자의 걸림없는 삶이다.
사랑도 미움도 놓아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새해에는 주위 사람들과 사랑하고 배려하며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다음 법어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 보십시오. "나라는 집착을 놓으면 한마음이니 화목과 공덕이 저절로 찾아온다." 나무 자성본래불.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본 란 100회를 함께 회향하시는 소감을 환영합니다. seon@hope.korea.com(황수경), 서울 마포우체국사서함 111호 (우121-041)

社說

벌써 '총무원장 선거' 얘기?

연초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이야기가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고 있다. 선거가 있는 해엔 의례 겪는 일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것도 십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가 바뀌기 무섭게 후보군이 거론되고 이런저런 전망이 오고간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불을 오래 지피면 방바닥은 그만큼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10월에나 있을 선거 얘기, 그것도 불교계의 선거 얘기가 연초부터 연기를 피운다는 것은 과열의 소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 가운데 선거의 혼탁 과열 부패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조계종은 올해 총무원장 선거만큼은 축제를 하듯, 화합중(和合衆 · 승가)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선은 사회적으로 몹시 어려운 때라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늪에 빠진 국민들이 승가의 혼탁 선거를 본다면 어떤 말을 할까? 최근 몇 년간 불교계가 사회에 보여준 부끄러운 일도 많은데 말이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난해 우리는 '종교편향'을 사회적 이슈로 띄웠었다는 것이다. 타종교인들에 의한 불교의 폄훼 사례들을 나라가 떠들썩하게 부각시킨 불교계가 추악한 선거판을 연출한다면 사회적 망신은 둘째로 치고, 많은 불자들이 개종을 고려할지도 모를 일이다.

올해 조계종의 총무원장 선거는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 후보를 단일화하고 축제 분위기에서 추대형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 것이다.

케이블카 보다 상생의 길 찾기를

정부가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된 사유지 가운데 일부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국립공원 지역의 케이블카(삭도) 설치와 관련한 법도 고쳐서 총 연장 길이의 제한선을 2㎞에서 5㎞로 늘인다고 한다. 팔공산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상반된 견해로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산이 포함된 국립공원이 '개발'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얽혀버린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화두를 푸는 방법은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개발론자들은 개발의 필요성과 방법, 향후의 보존관리 방안, 수익구조와 수익의 사회적 환원 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수립해 지역민을 포함한 국민을 이해시키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아주 가벼이 여긴다. 반대론자들 역시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과 상생의 길 찾기를 하기보다는 안 된다는 말과 행동으로 막으려고만 하는 것이다.

개발과 환경보존의 화두를 푸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따른다. 보다 거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과 긴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 같은 원론이 무시되기에 삽질을 하려는 측과 막으려는 측의 물리적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팔공산 케이블카를 두고 대구시는 추진하려하고 경산시는 말은 못해도 내심 못마땅한 입장이라 한다. 이 역시 원칙에 입각한 고민 절차가 무시된 탓이다. 자연 환경과 사람이 상생하는 길,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개발에 조급할 것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길 바란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금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적요한 눈밭 가득찬 '침묵의 설법' 들어보라



❷ 신흥사, 僧俗이 금강초롱 불 밝히다

신흥사 부도밭은 일주문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늘 관광객이 북적대는 매표소를 거쳐 바로 일주문으로 가면 부도밭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로 가면 찾기 어렵다는 역설이 부도밭이 어떤 곳인가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안내원들의 손짓 몸짓이 분주한 주차구역을 지나 또 다른 매표소가 있는 찻길을 따라 가다보면 쉽사리 부도밭을 만납니다. 찾기 어려운 곳은 아니지만 쉬 가지 않게 되는 곳이 부도밭이고 보면 어느 절이나 형편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온 사람이 아니고는 누구나 무심히 지나치는 곳이 부도밭이고 신흥사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차를 굽은 길가에 바짝 붙여 세우고 눈을 들어 보니 아차 싶습니다. 두툼한 솜이불을 덮고 있는 부도밭 풍경, 하늘은 새파랗고 아침 바람은 캥캥 거리며 목 줄기를 파고듭니다. 무릎까지 차오를 것 같은 눈밭에 들어갈 일이 아뜩합니다. 하지만 절망과 희망은 같이 옵니다. 가슴에 갑자기 불이 켜집니다. 마침 차 안에 장화 한 켤레가 있다는 사실이 천하를 얻은 기쁨일 줄이야.

장화를 신고 올라선 신흥사 부도밭. 그 하얀 눈밭엔 단 하나의 발자국도 없습니다. 눈이 내린지 보름쯤 지났지만 아직 한 사람도 다녀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겨울 아침 바람처럼 차갑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신년 벽두에 찾은 이 적요의 공간에 내가 첫발자국을 남긴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기도 하여 스스로 만족합니다.

부도밭은 차갑습니다. 헐벗은 숲을 휘휘 돌아 부도밭을 거쳐 관광객들을 만나러 가는 산바람이 눈밭의 표면을 쓸고 있을 뿐, 어느 것 하나 정겹게 살아 있음에 자족하는 몸짓이 없습니다. 비림(碑林)을 지키고 있는 옛 스승들의 부도는 모두 19기입니다. 우리나라 부도의 전형이라 할 원당형의 부도는 3기가 있고 나머지는 석종인데 온전한 모양을 갖추지 못한 부도도 있고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는 모두 7기입니다. 12기의 부도는 주인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있지만, 그 주인의 생애를 함께 전하지는 못하고 있기 일쑤입니다. 부도에는 주인의 이름만 새겨지고 생애와 사상, 권속들의 이름 등은 부도탑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신흥사 부도밭에 서 있는 비는 모두 6개입니다. 스님의 탑비 4기와 공적기념비 1기, 그리고 신흥사 사적을 기록한 비석 1기가 전부입니다.

신라불교의 거목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신흥사지만, 구체적인 기록을 남긴 것은 조선 인조 때부터입니다.

천년 여 동안 흔적을 잃었던 신흥사가 오늘의 자리에 중건 된 것은 1644년(인조 22년)의 일이이지요. 기록이 전하는 이 해는 영서(靈瑞) 연옥(蓮玉) 혜원(惠元) 세 스님이 2년 전에 불에 타버린 신흥사의 중건을 발원한 때입니다. 세 스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절의 중건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세 스님이 같은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내용인즉, 소림암(小林庵)에서 왔다는 한 신인(神人)이 "선정사 옛터 아래쪽 10리 지점에 절을 지으면 수만 년이 가도 3재(三災)가 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일러 준 것입니다. 세 스님은 더욱 분발하여 불사를 추진했고 마침내 신인이 가르쳐 준 곳에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신흥사(神興寺)라 했으니, 신인이 길지를 정해 줘 절이 흥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새 신(新)자를 써 신흥사(新興寺)라 표기 하는데, 1995년 신흥사가 설악권을 포함한 영동지역의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는 중심이 되리라는 서원을 담아 개명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흥사는 1644년 세 스님의 발원에서부터 그 역사적 실체를 더듬을 수 있습니다. 부도밭의 부도들과 비 역시 그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어서 이 한적한 부도밭 이야말로 신흥사 역사의 산 증인들이 서 있는 곳임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눈 덮힌 설악의 봉우리와 파란 겨울하늘을 배경으로 고요 속에 침잠해 있는 신흥사 부도밭 전경. 아래 사진은 대원당 부도와 비.





염불 잘 했던 용암 스님 목소리 들리는 듯

1644년 중창 이후 부도 19기 비 4기… 역사의 산 증거로 남아

조윤형 강세황 등 명필가들의 글씨 생생

일체는 무상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인연을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 하면 떠나는 곳이 우리들 삶의 무대입니다. 그러나 한 번 출연했던 이 무대에는 모든 출연자들의 흔적이 남습니다. 시간의 축을 따라 세월이 바뀌고 풍속이 변하여도 사람의 공간에는 형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 사람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이 차가운 부도밭에 서 있는 나는 저 앞산의 등산로와 케이블카를 즐기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제의 그들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지금 내 모습은 내일의 그들입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살다간 흔적을 남기는 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골을 수습해 넣을 작은 부도 하나에 족하여 탑비를 세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와는 달리 먼저 '적멸의 즐거움'을 찾아 떠나버린 수행자의 자애로운 형상과 따사로운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장엄한 부도를 조성하고 웅장한 탑비를 세워 그의 궤적을 만대에 전하고자 했으니 이 또한 의미 속에서 무의미를 전하는 법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번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에 옛 스승들의 철저했던 구도적 삶의 기록이 부도와 빗돌로 전해진다는 것은 그나마 고마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신흥사 부도밭으로 오르는 계단은 중앙 지점에 있습니다. 눈 무더기에 푹푹 발이 빠지는 계단 여남 칸을 올라서니 바로 앞에 묵직하게 서 있는 부도 하나가 "이놈 추운 날 무엇 하러 왔느냐"하며 호통을 치는 듯합니다. 지대석과 기단부 그리고 달항아리 같은 탑신부와 상륜부를 의젓하게 갖춘 대원당탑(大圓堂塔)입니다. 이 탑의 짝이 되는 대원당대선사비는 귀부가 없이 비좌에 꽂혀 있지만 비신과 이수를 갖추고 팔작지붕 같은 옥개석을 덮고 있습니다. 비신에 새겨진 글씨가 아주 옹골찬 것이 눈을 붙잡아 맵니다. 조선 후기 초서와 예서의 대가로 이름을 날렸던 조윤형(曺允亨 1725~1799)의 솜씨라니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비석 가운데 귀부와 이수 그리고 빗돌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은 용암당대선사비입니다. 용암 대선사는 1783년 나주에서 태어나 삭발염의를 하고 전국 명산대찰을 순례한 헌걸찬 수행자였다고 전합니다. 무엇보다 용암 대선사는 염불을 잘 했다고 합니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100일 기도하고 난 뒤에 득음을 했다고 하는데, 그의 제자들도 목청이 우렁우렁하여 설법을 잘했다고 전합니다.

용암 대선사는 하나의 '원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스님들이 법상에서 설법을 시작할 때나 중간 그리고 마칠 때에 설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게송을 읊고 뒤에 길게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이 바로 용암 대선사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용암 대선사는 참으로 멋진 구도자였나 봅니다. 가슴을 훤하게 틔워주는 경전 한 구절 혹은 산천을 떠돌다가 문득 눈을 번쩍 뜨게 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진리의 원음을 길게 토해내고는 아미타불께 그 열락을 바치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신흥사 부도밭의 비석들은 1764년에서 1827년 사이, 조선의 후기에 세워진 것들인데 하나같이 명필들의 서법(書法)이 한껏 기량을 자랑하고 있어 눈여겨 볼만합니다. 대원당의 비는 조윤형이 썼고 용암당 대선사의 비는 시 서 화의 삼절(三絶)로 칭송 받았던 강세황(姜世晃 1712~1791)이, 신흥사사적비는 문필가로 이름을 떨친 김상숙(金相肅, 1717~1792)이 썼습니다. 당대 명필들의 서권기가 가득한 신흥사 부도밭에는 품 넓은 절집 고승들과 마을의 학자 예인들이 승속을 가리지 않고 펼쳐놓은 이야기들이 내년 봄의 금강초롱에 불을 댕기고 있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법의 당간을 무너뜨린 동국대를 규탄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슬퍼할 일입니다. 평생 역경사업에 매진해 오신 우리시대의 역경보살, 경학(經學)의 대가 월운큰스님이 일생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해온 역경불사의 현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일생을 바쳐 역경사업에 몰두해온 노스님을 정중한 예우와 따스한 환송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매몰차게 내쫓는 이런 무뢰한들이 활개를 치는 불교 집안 풍토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법(진리)을 추구하는 불교집안에서 통할 법이나 한 일인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무나 감당할 수도 없고 하려들지도 않는 역경원장이라는 고난의 자리에 앉아 오로지 역경불사에만 몰두해온 노스님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쫓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무례요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월운큰스님은 1962년 비구대처의 오랜 분쟁을 끝내고 새롭게 발족한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의 3대 사업의 하나인 역경사업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고(故) 운허큰스님의 상좌로 운허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1993년부터 만 15년간을 동국역경원 원장 직에 봉직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2001년에는 마침내 해인사 소장 고려대장경을 전부 번역 간행하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뒤이어 개역 전산화불사를 시작해 이제 2년 남짓이면 대작불사가 전부 마무리 하게 되어 있어 지금도 노구를 돌보지 않으시고 역경불사에 여념이 없으신 종단의 큰 어른이십니다.

저희 후원회원들은 큰스님의 이러한 역경불사 원력에 감복해 만13년을 한결같이 십시일반 동참해 왔고 생을 마치는 그 날까지 스님을 도와 역경불사에 동참하리라 기도 발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 같은 역경원장 해임 소식에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래도 되는 건가? 재가불자도 아니고 출가불자인 스님이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일 수 있다는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와 구실을 갖다 붙였지만 속 내용은 어이없게도 봉선사 문중 출신의 현직 동국대이사스님 한 분이 반대편으로 돌아섰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엉뚱하게 화살을 돌려 봉선사 조실인 월운스님을 역경원장직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사실상 세 기관을 통합해 운영할 재원도 부족하고 실효성도 떨어져 휴면상태로 남아있다는 불교학술원을 발족하는데 스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입니다.

팔순이 넘은 노령에 큰스님인들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은사스님의 유지를 내가 마무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며 의욕적으로 역경불사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큰스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상좌스님들의 걱정을 더느라고 스님께서는 창에 검은 커텐을 설치해가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길만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그 어렵고 힘든 직분을 감당해 오신 스님에게 찬사와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닭벼슬보다 못한 종단의 권력을 쥐기 위해 스님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해답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번 역경원장 해임사태에 대한 책임을 준엄하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종단의 위계와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책임자의 깊은 참회와 반성이 있어야 하겠기에 저희들은 아래와 같은 결의사항을 요구합니다.

- **이번 사태를 독단적으로 처리해 스님과 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킨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영담 스님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공개 참회하라.**
-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뒤늦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스님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임 원장을 임명하는 무례를 범한 동국대 총장과 학사부총장은 행정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월운큰스님께 정중하게 참회하라.**
- **월운큰스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역경사업의 활발한 전개를 위한 역경원 활성화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

만약 위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저희 후원회원들은 향후 역경사업에 대한 모든 후원을 중지할 것을 결의한다.

불기 2553년 1월 15일

동국역경원후원회 회원 일동 합장